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용 우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국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남 선 애

# 세계 각국의 지리교육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국을 중심으로 -

권 용 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남 선 애

# 인 준 서

남선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지리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으로 인한 공간상의 구조 및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의 지리학은 과거의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선형적 연구를 토대로 환경문제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교육은 이러한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 사고, 연구방법을 통해 국토나 세계의 지역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학문분야로서 지리학의 발전 정도가 지리교육에 반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지리학이 성립된 독일, 프랑스, 영국과, 지리학에 계량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미국,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 그리고 개방화 정책으로 변화하는 중국,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의 지리교육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리교육의 변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각 국가의 현재 대학 진학 목적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1, 2, 3학년 지리교과서의 목차와 본문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국가 지리교육의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방법론을 설정한다. 또한 지리교과서의 구성 내용을 크게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으로, 지역지리학은 다시 자국의 지리학과 자국 외 지역을 세계 대륙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계통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나눈 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고찰한다. 그리고 각 국가별 지리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각 국가의 여러 여건과 배경을 분석한다.

8개국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리교육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공통점은 8개국별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리교육 내용 분석 방법인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 등의 분류 분석 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지리교육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 자연지리학이나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인문지리학의 비율이 자연지리학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유사점으로는 환경이나 재해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를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주제를 서술을 하는 데 있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접근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각 국가는 국가의 위치나 역사적 배경,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 혹은 사회변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배경과 원인이 작용하여 현재의 지리교과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경우 산업·경제 및 기후 부분이 강조되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사회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다. 영국은 자연환경 부분에서 특히 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와 대책에 대해 강조한다. 미국은 문화·역사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러시아는 인구 부분을 비중 있게 설명한다. 중국은 산업·경제 부분을 40%의 비중으로 특히 중요하게 반영한다. 일본은 인문지리학의 주제별로 전 세계 혹은 각 지역을 설명해 가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근대 교육 이전 시점인 조선시대와 근대 교육의 태동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를 각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지리교육을 분석했다. 조선 시대에는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의 목차와 내용을 통해 당시 지리학의 위상을 확인했다. 개화기에는 『사민필지(士民必知)』의 목차와 내용을 통해 당시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지리교과서는 일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해방 직후에는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지리교과서는 서구의 지리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있다. 또한 지리교육은 국토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데 유효한 분야임이 확인되었다.

세계 8개국 지리교육 내용을 분석·연구한 결과 지리교육의 실체를 제공하는 현재의 지리학은 국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학문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이라는 점이 인지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범위	3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필요성	12
II.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4
1.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연구	14
1)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론	14
2) 신지역연구 방법론	34
2. 지리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44
1) 학위논문을 통한 연구	44
2) 학술지 게재 논문을 통한 연구	59
3. 국가별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64
1) 독일의 지리교육	64
2) 프랑스의 지리교육	66
3) 영국의 지리교육	69
4) 미국의 지리교육	71
5) 러시아의 지리교육	73
6) 중국의 지리교육	74
7) 일본의 지리교육	76
8) 한국의 지리 교육	78

Ⅲ. 8개국별 지리교과서 분석 .....	84
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 분석 .....	84
1)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84
2)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89
3)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94
4)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98
5)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103
6)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107
7)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111
8)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	115
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 비교 분석 .....	120
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비교 .....	120
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2
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4
4)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6
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 분석 .....	128
1) 독일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28
2) 프랑스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31
3) 영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34
4) 미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37
5) 러시아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39
6) 중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41
7) 일본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43
8) 한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	147
4. 소결 .....	150
Ⅳ. 개화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 지리교과서 분석 .....	153
1. 개화기의 지리교육 .....	153

1)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 .....	153
2)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	155
3)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	157
2. 일제강점기의 지리교육 .....	158
1) 1924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 .....	158
2) 1935년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 .....	160
3. 1945년 이후의 지리교육 .....	162
1)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지리교육 .....	162
2) 1950년대의 지리교육 .....	170
3) 1960년대의 지리교육 .....	174
4) 1970년대의 지리교육 .....	179
5) 1980년대의 지리교육 .....	181
6) 1990년대의 지리교육 .....	183
7) 2000년대의 지리교육 .....	185
4. 소결 .....	188
V. 결론 .....	190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차

<표 1>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기준 .....	7
<표 2>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7
<표 3>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
<표 4>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
<표 5>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체계 비교 .....	9
<표 6>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교 .....	9
<표 7>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교 .....	10
<표 8>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교 .....	10
<표 9> 고대의 지리학자들과 그의 업적 .....	17
<표 10> 바레니우스의 지리학적 연구 .....	19
<표 11> 리히트호펜의 지리학적 연구 .....	21
<표 12> 헤트너의 지리학적 연구 .....	23
<표 13> 비달 드 라 블라쉬의 지리학적 연구 .....	26
<표 14>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의 항목 .....	29
<표 15> 동국여지지와 대동지지의 항목 .....	32
<표 16> 아방강역고 권별 내용 구성 .....	33
<표 17> 필립 뺑쉬멜의 지리학적 연구 .....	43
<표 18> 에카르트 칼의 지리학적 연구 .....	44
<표 19> 지리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현황 .....	46
<표 20> 지리교과서 분석 학회지 게재 논문 현황 .....	59
<표 21> 2016년 현재 한국의 대학교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개설 현황 .....	79
<표 22>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 체계 .....	80
<표 23> 중학교 지리교육 내용 체계 .....	81
<표 24> 고등학교 한국지리교육 내용 체계 .....	82
<표 25> 고등학교 세계지리교육 내용 체계 .....	83

<표 26>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84
<표 27>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5
<표 28>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7
<표 29>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89
<표 30>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0
<표 31>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2
<표 32>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94
<표 33>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5
<표 34>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6
<표 35>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98
<표 36>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9
<표 37>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01
<표 38>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103
<표 39>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04
<표 40>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05
<표 41>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107
<표 42>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08
<표 43>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09
<표 44>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111
<표 45>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12
<표 46>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13
<표 47>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	115
<표 48>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16
<표 49>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117
<표 50>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비교 .....	120
<표 5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3
<표 5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5
<표 5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	127

<표 54>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국가도시정책 유무 .....	137
<표 55> 본 논문 분석 국가 8개국의 인구, 인구 구성 및 종교 .....	139
<표 56> 중국의 도시화 단계별 도시화 수준 .....	142
<표 5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 경과 .....	145
<표 58>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의 목차 .....	154
<표 59>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의 계통지리지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56
<표 60>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57
<표 61> 1924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59
<표 62> 1935년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60
<표 63> 1947년 『조선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62
<표 64> 1947년 『조선지리』의 목차 중 일부 .....	163
<표 65> 1947년 『먼나라』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65
<표 66> 1947년 『먼나라』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65
<표 67> 1949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67
<표 68> 1949년 『경제지리』의 산업별 분량 및 구성 비율 .....	169
<표 69> 1950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0
<표 70> 1953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2
<표 71> 1956년 『국토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3
<표 72> 1956년 『인문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4
<표 73> 1960년 『인문지리』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5
<표 74> 1960년 『인문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5
<표 75> 1961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6
<표 76> 1967년 『지리1』 과 『지리2』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7

<표 77> 1967년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8
<표 78> 1976년 『지리1』 과 『지리2』 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79
<표 79> 1976년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0
<표 80> 1984년 『지리1』 과 『지리2』 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1
<표 81> 1984년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2
<표 82> 1994년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3
<표 83> 1994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4
<표 84> 2002년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5
<표 85> 2002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 186
<표 86> 개화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리학 및 주요 국가 정책	..... 187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11
그림 2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4)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6
그림 3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4)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88
그림 4 Thomas B. 외, 2014, <i>Geographie 12</i> , westermann gruppe.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	88
그림 5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1
그림 6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3
그림 7 Pascal B. 외, 2009, <i>GÉOGRAPHIE Les hommes occupent et aménagent la Terre</i> , HATIER.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	93
그림 8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5
그림 9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	97
그림 10 Cameron D. 2009, <i>Edexcel A2 Geography</i> , PHILIP ALLAN UPDATES.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	97
그림 11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00
그림 12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02
그림 13 Richard G. Boehm, 2014, <i>DISCOVERING WORLD GEOGRAPHY</i> , McGraw-Hill.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	102
그림 14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04
그림 15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06
그림 16 Максакoвский В. П., 2012, <i>ГЕОГРАФИЯ</i> , ПРОСВЕЩЕНИЕ ИЗДАТЕЛЬСТВО.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	106
그림 17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08
그림 18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10
그림 19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地理课程教材研发中心, 2014, 『地理 3』, 人民教育出版社. 교과서 표지와 목차 .....	110

그림 20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12
그림 21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14
그림 22	金田章裕, 2014, 『地理B』, 東京書籍.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114
그림 23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16
그림 24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118
그림 25-1	최규학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119
그림 25-2	위상복 외,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비상교육.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119
그림 26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구성 비율 비교	121
그림 27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구성 비율 비교	122
그림 28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124
그림 29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126
그림 30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127
그림 31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	154
그림 32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155
그림 33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朝鮮地理)』	158
그림 34	1947년 『조선지리』	164
그림 35	1947년 『먼나라』	166
그림 36	1949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	168
그림 37	1949년 『경제지리』	169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로부터 주변지역과 나아가 방대한 미지의 세계에 이르는 땅(geo)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기술하는(graphy)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리학은 과학적 사고 및 방법론과 다양한 철학적 사조를 적극 받아들여 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노력의 결과 오늘날 지리학은 땅에 관한 자연과학적,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두루 갖추게 됨으로써 주요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학은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연구가 땅·지역·공간에 관한 총체적(holistic) 학문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지리학은 14~15세기 지리상 발견으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유럽의 많은 여행가 및 탐험가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직접적인 탐험으로 획득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세계에 대한 지식은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 시기에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유럽은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분석 연구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리학은 지역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 백과사전식 나열에서 탈피했다. 유럽 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지리학은 지표상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정치,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인간과 관련된 모든 땅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전개되었다. 그것은 각 나라와 세계를 알아야 땅에 관한 역사, 종교, 관습,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리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지리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지리교육학은 지리학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지리학의 발전 정도는 지리교육 내용에 반영이 되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지리교육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리학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리교육의 여러 부분 중 지리교과서를 분석하면 지리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8개국의 고등학교 지리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각 나라별로 여하히 지리교육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8개국은 근대지리학이 형성된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량혁명을 주도한 미국,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 개방정책으로 변화된 중국,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지리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로 지리교육 내용 분석에 관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 국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 내용 구성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각 국가 간 지리교육상의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지리교육 내용을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여 시대별로 나타나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대상 교과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국에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등교육과정의 지리교과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 진학 목적의 고등학교 수준의 지리교과서를 여러 방법으로 입수하여 분석했다.

첫째, 독일의 교과서는 바이에른(Bayern) 주(州)에서 사용하는 westermann gruppe 출판사의 교과서<sup>1)</sup>를 선택했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지방 자치의 오랜 전통이 교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연방주의 학교법에 따라, 해당 문화부가 발행을 허가한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이에른 주는 전통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허가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10페이지가 넘는 평가기준과 학교별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심사한다(강선주 외, 2012). 또한 이러한 엄격하고 보수적인 전통으로 인해 독일의 다른 주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다른 주는 바이에른 주의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대입 평가 기준과 수준이 바이에른 주의 기준을 따른다. 이런 이유로 이 교과서를 선택했다.<sup>2)</sup>

둘째, 프랑스의 교과서는 Hatier라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했다.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의 제작, 선택, 활용 등의 면에서 ‘자유’가 보장된다(Choppon, 2005; Bruillard, 2011; 강선주 외, 2012 재인용).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의 개발, 발행, 선정, 공급에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프랑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발표하면, 교육부를 제외한 교과서를 발행하고 싶은 사람 또는 기관은 누구나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를 집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중

- 
- 1) 대학 진학 목적의 고등학교 수준의 지리교과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장의 이하에서 언급하는 교과서는 이를 의미 것임.
  - 2) 교재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서점에 주문하여 구입함. 목차와 본문 내용의 해석은, 11권은 성신여대 독어독문학과 4학년 학생에게 부탁하고, 12권과 파일은 ‘저먼라운지’라는 독일어 전문 번역 사이트에 의뢰함.

Hatier라는 출판사는 프랑스에서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정보와 도움을 얻고 싶은 학생들에게 시험 관련 정보 사이트인 [www.annabac.com](http://www.annabac.com)를 제공하고 있다(강선주 외, 2012). 이런 이유로 Hatier의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었다.<sup>3)</sup>

셋째, 영국의 교과서는 Edexcel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영국에서 교과서는 상업적으로 생산된다. 영국은 국가에서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을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며, 학교를 통하여 공급하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대개 무상으로 학생에게 제공된다(강선주 외, 2012). 또한 영국의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나 상위권 대학 입학자격시험인 A-level과 같은 시험도 출판사가 주관하는데 그 중 하나의 출판사가 Edexcel이다. 따라서 Edexcel의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었다.<sup>4)</sup>

넷째, 미국의 교과서는 McGraw-Hill의 지리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이 교과서는 3년 동안 학습하는 내용을 한 권에 담고 있다. 미국은 교과 교육 내용이 각 주 및 각 지역 또는 학교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이며 특히 주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합중국을 수립할 당시 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연방주의적 성격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이로 인해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되는데 McGraw-Hill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90%의 미국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한 디지털 자원의 사용에 이 출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한다. 가장 많은 교사들의 지침이 되는 출판사의 교과서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sup>5)</sup>

다섯째, 러시아의 교과서는 ПРОСВЕЩЕНИЕ ИЗДАТЕЛЬСТВО(계몽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했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구소련 당시에는 국정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계몽출판사 한 곳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1930년대부터 교과서 시장을 독점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러

---

3) 프랑스 교과서는 프랑스의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www.Eyrolles.com](http://www.Eyrolles.com)을 통해 구입함. 목차와 본문 내용의 번역은 성신여대 불어불문과 4학년 학생에게 맡겨서 함.

4) 영국의 교과서는 2014년에 영국 southhampton에 거주했던 현재 오산대학교의 송희정 교수에게 부탁하여 구입함.

5) 미국의 교과서는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서점에 주문하여 구입함.

시아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떤 출판사나 연구자도 자유로이 출판과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과서 출판사들이 난립하게 되어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부의 발의에 의해 교육부에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교과서만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 법 개정을 채택했다. 그리하여 교육부는 각 과목당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은 3개의 교과서 이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Невское время*, 제36호, 2003, 오만석, 2003, 재인용). 계몽출판사는 러시아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출판사이기에 선택하게 되었다.<sup>6)</sup>

여섯째, 중국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므로 이것으로 분석했다.<sup>7)</sup>

일곱째, 일본의 교과서는 동경서적의 지리B를 선택했다. 일본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 교과서에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문부과학성 검정교과서’와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 두 종류가 있다. 따라서 출판사가 임의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출판사들은 정부가 고시한 집필 지침서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윤유숙, 2012).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지리A와 지리B로 나뉘는데 대학 진학 목적의 고등학교에서는 지리B를 사용한다. 따라서 지리B를 선택했다.<sup>8)</sup>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선택했다.<sup>9)</sup>

6) 러시아 교과서는 원불교 대치교당 김기홍 교무님의 주선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원신영 교무님이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도서관을 통해 교과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받은 것임. 러시아 교과서 목차와 본문 내용의 번역은 ‘베리타스통번역센터’라는 사이트에 의뢰함.

7) 중국 교과서는 성균어학원 이지선 선생님이 중국에서 구입한 것을 받은 것임. 또한 성균어학원에서 2014년 11월과 12월에 본 연구자가 담당한 반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이 중국 길림성 연길(옌지)시에 위치한 [우리학교]라는 이름의 조선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글판 중국 지리교과서를 구해 줘서 따로 번역할 필요 없이 분석할 수 있었음.

8) 일본의 교과서는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성균어학원 이지선 선생님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임. 목차와 본문 내용의 번역은 성신여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뢰함.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 국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 내용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 각 국가 간의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한국의 지리교육 내용을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지리학의 발전 과정 및 사회 변화,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지리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지리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방법론 도출은 2장에서 고찰·설명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곧 지리학사를 리뷰하면서 지리학자별 지리학의 분류 방법을 검토한 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참고로 하여 지리교육의 분류 기준을 설정했다(표 1).

본 연구의 3장 8개국별 지리교과서 분석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3장의 1절은 8개국 각각의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을 분석한다. 먼저 지리학을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각 분량 체계를 분석한다(표 2).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지역지리학은 자국의 지리와 자국을 제외한 세계지리로 구분하여 분량과 내용을 비교하며(표 3), 계통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파악한다(표 4). 구성 체계 파악을 위해 통계적 분석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통계적 분석 기법은 SPSS 18.0을 활용했다.

---

9) 한국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학과별 내용체계에 따라 집필되므로(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출판사의 선택은 중요한 요소가 아님. 따라서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서점에 가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목차와 본문 내용을 분석함.

<표 1>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지리학(1)	자국(11)	자국의 국토(11101)	
	세계대륙(12)	유럽(12101)	
		아시아(12102)	
		아프리카(12103)	
		북아메리카(12104)	
		남아메리카(12105)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12106)	
계통지리학(2)	자연지리학(21)	경관(22101)	
		기후(22102)	
		지형(22103)	
		토양(22104)	
		생물(22105)	
		수문(22106)	
		자연환경·자원(22107)	
		자연지리학 개관(22100) <sup>10)</sup>	
		인문지리학(22)	면적·위치(22201)
			인구(22202)
	산업·경제(22203)		
	정치·사회(22204)		
	도시·촌락(22205)		
	교통(22206)		
	문화·역사(22207)		
	인종·언어(22208)		
	인문지리학 개관(22200) <sup>11)</sup>		
	방법론(3)		지도학(33100)
		GIS(33200)	

출처: 지리학사와 지리학자별 연구방법론을 리뷰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표 2>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자국		
	자국 외 세계 대륙 <sup>12)</sup>		
	계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방법론 <sup>13)</sup>		
	계		100

주: <표 1>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10) ‘아메리카의 자연지리,’ ‘자연지리적 환경의 총체성’ 등과 같이 자연지리학의 세부적인 주제가 아닌 자연지리학의 주제를 망라하여 기술한 부분을 의미함.

11) ‘세계화의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등과 같이 인문지리학의 세부적인 주제가 아닌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망라하여 기술한 부분을 의미함.

<표 3>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자국		
세계 지역 공통 <sup>14)</sup>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전체합계		100

주: <표 1>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4>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기후		
	지형		
	토양		
	생물		
	수문		
	자연환경·자원		
	자연지리학 개관 <sup>15)</sup>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인구		
	산업·경제		
	정치·사회		
	도시·촌락		
	교통		
	문화·역사		
	인종·언어		
	인문지리학 개관 <sup>16)</sup>		
	지도학		
	GIS		
전체합계			100

주: <표 1>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12) 본 논문에서는 자국의 내용을 국내지리, 자국 외 세계 대륙을 세계지리로 명명함.

13) 방법론은 계통지리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비중을 나타냄.

14) 세계 지역 공통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등의 전 세계 지역을 의미함.

3장의 2절은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을 비교 분석한다. 먼저 지리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표 5>와 같이 비교한다. 두 번째로 지리교과서의 내용 중 자국의 내용을 제외한 세계지리 내용 구성을 비교한다(표 6). 세 번째로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을 비교하고(표 7) 마지막으로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을 비교한다(표 8).

<표 5>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체계 비교

구분	전체분량 (page)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국내지리	세계지리	계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방법론	계
독일				100				100
프랑스				100				100
영국				100				100
미국				100				100
러시아				100				100
중국				100				100
일본				100				100
한국				100				100

주: <표 2>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6>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교

구분	국가별 세계지리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세계 지역 공통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세계지리분량(page)								

주: <표 3>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15) 자연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지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자연지리학 개관으로 분류함.  
 16)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지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인문지리학 개관으로 분류함.

<표 7>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교

구분	국가별 자연지리학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경관								
기후								
지형								
토양								
생물								
수문								
자연환경·자원								
자연지리학 개관								
자연지리학 분량(page)								

주: <표 4>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8>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교

구분	국가별 인문지리학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면적·위치								
인구								
산업·경제								
정치·사회								
도시·촌락								
교통								
문화·역사								
인종·언어								
인문지리학 개관								
지도학								
GIS								
인문지리학 분량(page)								

주: <표 4>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3장의 3절은 국가별로 지리교과서를 분석한다. 3장의 1절과 2절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지리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각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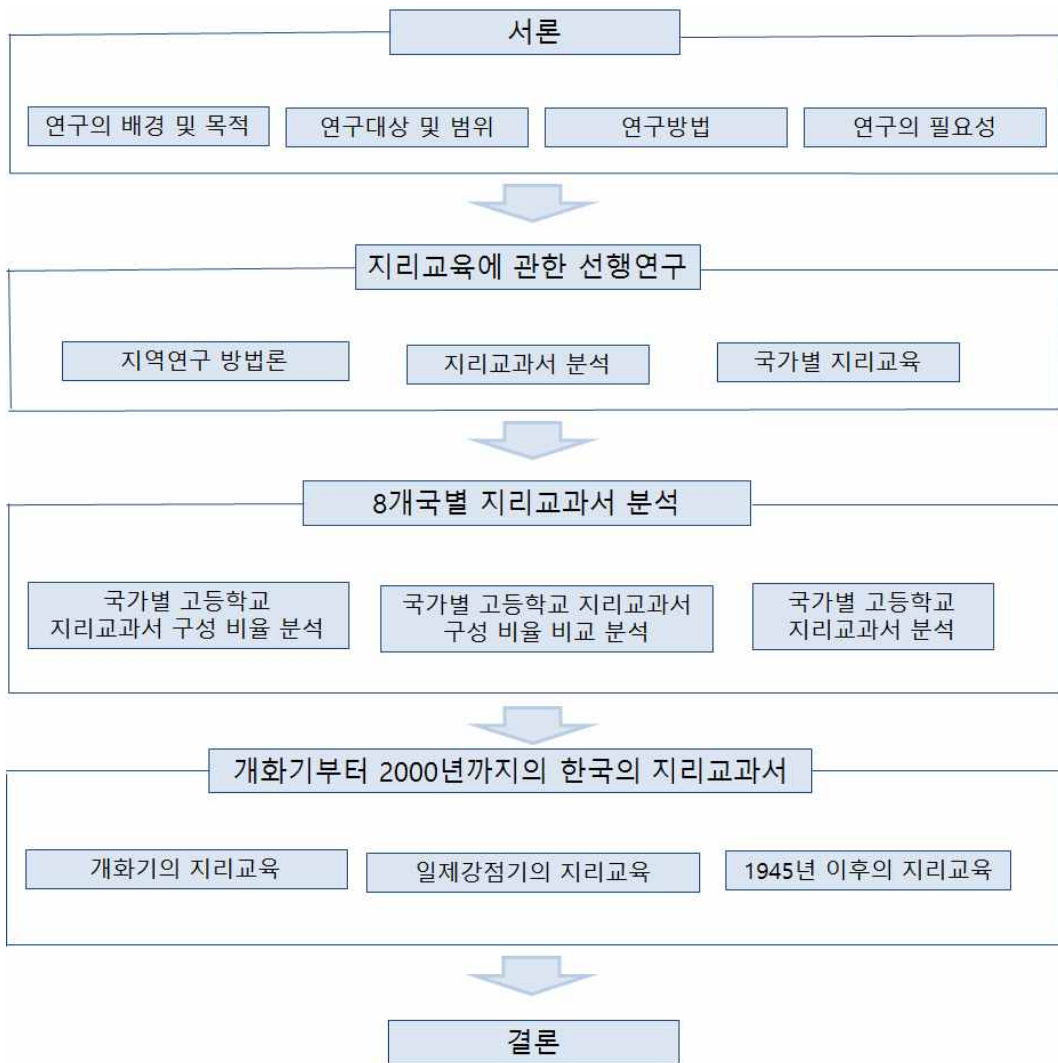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흐름도

출처: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4. 연구의 필요성

지리학의 문헌적 연구는 고대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인들은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장소를 장소학적으로 세밀하게 기술했다. 헤로도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스트라보,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바레니우스는 지리학에 대해 수학적·기하학적 고찰방법을 강조하여 일반지리학과 특수지리학으로 나누어 지리학을 연구했다. 이후 훔볼트와 리터 등에 의해 지리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리터의 영향으로 라첼은 인문지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라첼과 함께 활동한 지리학자 중 자연지리학을 배경으로 지리학을 전개한 학자는 리히트호펜이다. 리히트호펜은 자연지리학 및 지형학뿐만 아니라 지역지리학과 일반지리학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지리학을 연구했다. 라첼 이후 1900년대 초반 헤트너는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지리연구를 강조했다. 헤트너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리학을 지리학으로 통일하고 지리학의 대상이 반드시 사상 간의 인과관계를 가져야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근대지리학은 독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훔볼트와 리터의 사상인 지구 통일체의 개념을 도입하여 프랑스에서 지리학의 체계를 구축한 학자는 비달 드 라블라쉬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 방식으로 생활양식(genre de vie)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지리학은 지표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지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국의 전통 지리학은 서구 지리학 발달에 못지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가장 오래된 지리지로 평가받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는 국가 통치를 위한 정치·군사 목적으로 편찬되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사회의 변화는 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리학 자체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새로운 사조의

등장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인간 삶의 질적 부분의 강조에 따른 자연환경의 중요성,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에 따른 지역 간의 격차 등으로 신지역 연구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1960년대의 계량 혁명을 기점으로 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간적 패턴과 공간적 과정을 강조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최근에는 지역연구 관점에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리학의 지리학사적 흐름과 지리학 연구방법론의 변화는 고스란히 지리교육의 방법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리교육의 연구방법론을 설정해 보고자 지리학사의 맥락에 바탕을 두고, 지리학자별, 국가별,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별로 지리교육의 내용을 고찰했다. 학자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연구방법론이 있고 그것은 지리교육에서 다각적인 분석방법론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과서 내용분석의 기준으로 크게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 등의 3가지로 분류했다(표 1). 이는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의한 지리학의 분류체계<sup>17)</sup>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것이다.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여러 나라를 사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합적인 분석방법론에 입각한 것과 같은 지리교육 내용연구는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지리교육의 분석방법론에 입각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국의 지리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각 나라별로 지리교육이 여하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

17) 자연지리: 지형학, 기후학, 수문학, 토양지리, 생물지리, 환경지리, 생태지리, 해양지리, 지형경관론, 한국지형지, 경관생태론  
 인문지리: 인구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사회지리, 문화지리, 도시지리, 촌락지리, 교통지리, 역사지리, 관광지리, 풍수지리, 사진지리, 지리학사  
 지역지리: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극지, 해양  
 지적/지리정보: 지적학이론, 지적행정/법, 지적측량/정보, 계량지리/방법론, 지적/지리정보, 지도학/지리정보시스템

## II.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1.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연구

#### 1)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론

##### (1) 서양의 지역연구 방법론

지리학의 문헌적 출발은 고대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이나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지리학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온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권용우, 1985).

현재까지 알려진 지리학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저술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으며, 지리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장소를 장소학적으로 (topographically) 세밀하게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런 기술에는 기후나 토양의 비옥도와 같은 자연조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양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박경환 외, 2015).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의 헤로도토스(Herodotus, BC 485-425)는 『역사(Histories)』를 집필하여 지중해와 흑해연안 제국들의 역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방대한 지역을 답사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각 지방의 성직자들이나 도서관 사서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각 지방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주민들의 풍습과 신앙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여행기를 세밀하게 기술하면서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이론을 펼쳐냈다.

한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는 지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공간인 ‘장소’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를 남겼다(박경환 외, 2015).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소란 공간뿐만 아니라 이동과 변화를 모두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장소란 모든 사물들에 선행한다고 했다(Casey 1997, 박경환 외 2015, 재인용).

지리학에 대해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긴 스트라보(Strabo, BC 64~AD 23)는 지리학의 통합적인 성격 또는 전체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다른 분야의 지식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대의 지역연구는 여행가나 탐험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한 이미 알려진 세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했다(이희연, 최재현, 1998).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Alexander, 기원전 365~323)는 각 분야에 걸친 수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게 함으로써 지리학태동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지리학태동기에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스트라보(Strabo), 프톨레마이우스(Ptolemaeus) 등은 제각기 괄목할만한 지리학적 업적을 남기면서 두드러진 학문적 활동을 전개했다(권용우, 1985).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73~192년경 고대그리스의 지리학자이다. 그는 그리스지리학을 집대성하여 『지리학(Geo-graphica)』(제1권 지리학사, 제2권 수리지리학, 제3권 세계지리)을 저술하여 고대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지위를 확립했다(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그는 일반적으로 지구를 처음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권용우·안영진, 2001).

스트라보(기원전 64~서기 20년)는 고대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며 여행가,

역사가로서 17권의 『지리학(Geographica)』을 저술했다. 그는 “지리학자는 수학적 지식에도 능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주로 지방지적 전통의 저술들을 남겼다(전중환 외, 2003). 스트라보는 앞선 고대의 학자들 즉, 에라토스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저작들을 활용하여 유럽에 대해 8권, 아시아에 대해 6권, 아프리카에 대해 1권의 분량으로 각 대륙에 관한 지지를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최초의 지지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83~168년?)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약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 천문학, 지리학자이다. 아랍어역본 천문서인 『알마게이트』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천체의 운동과 특정 장소의 위치 측정 방법을 이 책에 담고 있다. 지구의 위·경도를 이용해 세계 지도를 제작한 그는 지리학 저서인 『지리학 집성(Geographiska Syntaxis)』의 서장에서 지리학을 일반적으로 부분들의 결합된 전체로서, 당시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지구에 관해 묘사적 구획화 내지 지도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권용우·안영진, 2001) (표 9).

그러나 2세기 중반 이후 로마의 쇠퇴와 함께 서구 사회에는 여러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대 과학을 비롯하여 지리학 분야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3세기 이후 중세시대까지의 시기에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기독교문화 획일주의에 의한 여타 학문의 침체화 등으로 인해 지리학 발달상의 암흑기가 형성되었다(권용우, 1985).

<표 9> 고대의 지리학자들과 그의 업적

지리학자	업적
헤로도토스	『역사(Histories)』를 저술, 지중해와 흑해연안 제국들의 역사와 각 지방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주민들의 풍습과 신앙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기록
아리스토텔레스	'장소'란 공간뿐만 아니라 이동과 변화를 모두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
에라토스테네스	'지구'라는 뜻의 'geo'와 '기술하다'라는 의미의 'graphy'로부터 'geography' 단어를 명명, 그리스지리학을 집대성하여 『지리학(Geo-graphica)』을 저술, 고대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지위를 확립
스트라보	17권의 최초의 지리지인 『지리학(Geographica)』을 저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등에 관한 지지를 자세히 기술
프톨레마이오스	『지리학 집성(Geographiska Syntaxis)』을 저술, 지리학과 지역지를 구분, 지구의 경위를 이용해 세계 지도를 제작

출처: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십자군 원정으로 동서무역이 활발해져 그 무역의 중심에 있는 이탈리아와 북유럽 한자동맹 도시들은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 15세기에 들어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팽창을 거듭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슬람의 학자들과 그들의 지적 성과물이 서유럽으로 유입되었고 유럽인들은 신허로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2~1506)는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는 인도항로,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480~1521)은 최초로 지구 횡단에 성공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리학의 영역은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그 뒤를 따라 많은 탐험가들에 의해 전 세계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축적되었다.

이처럼 유럽세계로 들어오는 전 세계에 대한 방대한 지리적 지식들은 과

학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체계화 되었다. 특히 뮌스터(Sebastian Münster, 1489~1552), 아피아누스(Peter Apianus, 1495~1552), 바레니우스(Bernhard Varenius, 1622~1650), 클뤼버(Philip Clüver, 1650~162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등은 그들 나름대로 지리학에 대한 근대적 의미에서 체계화 시켰다(권용우, 1985). 이들 중 바레니우스는 1650년 암스테르담에서 『일반지리학(Geographia generalis)』을 발간하여 지리학을 우주지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지리학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권용우·안영진, 2001). 바레니우스는 지리학에 대해 수학적·기하학적 고찰방법을 강조하고, 일반적 원리 내지 이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지리학을 일반지리학과 특수지리학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바레니우스는 독일인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지리학자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일본의 나가사키항을 수출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관해 많은 자료를 연구했다. 이것의 영향으로 바레니우스는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항해술에 관한 저술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리학이 매우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역설하게 되었다. 그는 지리학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부분과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마다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표 10).

칸트는 1756년부터 40여 년 동안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 대학에 재직하면서 자연지리학을 강의했다. 그는 자연지리학 강의에서 역사학과 지리학의 차이점에 대해 정의했다. 칸트 이후 지리학이 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함에 따라 지리학은 독자적 학문분야로 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연구에 바탕을 둔 지역지리학은 계속적으로 지리학의 중심 분야가 되어왔다.

<표 10> 바레니우스의 지리학적 연구

분야		내용
일반지리학	절대적 요소	육지, 수리, 산맥, 숲, 사막, 공기의 분포, 지구의 크기, 형태, 위치
	상대론적 부분	전체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현상, 경위도, 기후대
	각 지역 간의 비교	지표의 각 지역 간의 차이점 비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특수지리학	천체적 요소	태양과 별의 운행으로 생긴 영향, 즉 기후와 기후대를 포함한 여러 현상들
	지구적 요소	기복과 수문, 동식물, 각종 광물과 토양 등에 관한 기술
	인문적 요소	각국의 교역, 취락, 생활양식, 정부형태를 포함한 인문적 현상

출처: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이후 지리학의 필요성을 정확히 간파한 학자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였다(권용우, 1985). 그는 1845년부터 1862까지 17년에 걸쳐 저술한 ‘우주론(Komos)’에서 총체적 기술은 자연물의 과학적 형태로서 자연적 실재는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이 내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행기록, 시, 경관에 대한 합리적 묘사, 이국적 식물분포의 대조와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훔볼트의 주장을 지역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볼 때, 그의 연구방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표상의 다양한 실재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경험적 인식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James & Martin, 1981, 권용우, 1985, 재인용).

또한 근대지리학의 정립에 공헌한 리터(Carl Ritter, 1779~1859)는 1820년 베를린(Berlin) 대학의 교수가 됨으로써 academic geographer 시대를 개막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리터는 지리학의 연구 목적이 방대한 지리적 현상의 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논거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객관적 현상을 상호 비교하여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했

다. 그의 비교지리학(Vergleichende Erdkunde)적 사상체계는 1817년부터 1859년까지 42년에 걸쳐 저술된 ‘지리학(Erdkunde)’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리터는 자연 대 인간, 무대 대 역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인문지리학을 수립했다(Dickinson, 2014).

리터의 지리철학을 이어받은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은 인문지리학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라첼의 지리철학은 그의 저서인 ‘인류지리학(Anthropogeographi, 1882; 1891)’ 과 ‘정치지리학(Politische Geographie, 1897)’ 에 잘 나타나 있다. 라첼의 지리학적 접근방법은 환경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상호관계의 측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권용우, 1986).

라첼과 함께 활동한 지리학자 중 자연지리학을 배경으로 지리학을 전개한 인물로 리히트호펜(Freiherr 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을 들 수 있다. 이들 지리학자들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 지리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리히트호펜 역시 라첼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해외여행과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독일의 이해관계를 대내·외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권용우·안영진, 2001).

리히트호펜은 지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전체로서 지구에 관한 고찰 또는 천문학과 측지학, 지구물리학, 지질학, 기상학 등 지구에 관한 연구에 독립된 학문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리학의 전체적인 역사적 발달에 부응하여 대륙과 국가, 지역 그리고 장소에 관한 지식에서의 상이점과 다양성에 따른 지표의 지식이라는 데서 그 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헤트너, 안영진 역, 2013). 리히트호펜은 자연지리학과 지질학을 관련시켜 지표를 관측하는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 즉, 도로, 지도, 문헌에 의거한 측정 등을 통한 지도화와 기상자료의 수집 등을 지리학의 첫 번째 연구 분야라고 했다. 또한 지표의 형성 과정에 관해 최초로 본질적 해석을 하였고 암석의 기계적

풍화, 지하수와 유수의 기계적 작용, 해안과 섬, 대양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풍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즉, 암석, 구조, 지각, 기후 등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토양, 암석, 산맥구조, 유용광물, 지형의 유형 등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표 위의 사물과 현상의 인식 방법을 지역지리학과 일반지리학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역지리학은 개별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의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구분포, 인종, 언어, 취락, 산업, 종교, 도로, 산물, 무역중심지, 국경선,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이 해당된다. 이것이 지지(地誌)로 발전하는 부분이다. 일반지리학은 지표와 인과론적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는 사물과 현상의 지역적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일반지리학은 지표와 인과론적 상호관계하에 전개되는 지역 현상을 구성요소별로 분해,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계통지리학으로 발전된 부분이다. 리히트호펜은 1860년대 후반 중국의 지질 및 지리에 관한 현지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한 후 1872년 독일로 귀환하여 독일의 중국 진출에 관한 전략적 중요성을 전파하기도 했다(표 11).

<표 11> 리히트호펜의 지리학적 연구

분야	내용
자연지리학 및 지형학	지표의 형성 과정, 암석의 기계적 풍화, 지하수와 유수의 기계적 작용, 해안과 섬, 대양에 관한 연구 토양, 암석, 산맥구조, 유용광물, 지형의 유형 등에 대한 연구 도로, 지도, 문헌에 의거한 측정을 통한 지도화와 기상 자료의 수집
지역지리학	개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인구분포, 인종, 언어, 취락, 산업, 종교, 도로, 산물, 무역중심지, 국경선, 역사성 등이 해당
일반지리학	지표와 인과론적 상호관계하에 전개되는 지역 현상을 구성요소별로 분해, 분석하여 설명 지형, 기후, 지질, 수리, 생물, 해양과 섬, 광산, 자원 등

출처: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라첼이후 1900년대 초반 헤트너(Alfred Hettner, 1859~1941)는 상호 작용론에 입각한 지지(Länderkunde)연구를 강조했다. 헤트너는 1898년 발표한 논문에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지리학의 뚜렷한 주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 지표상의 지역들에 대한 연구로 간주했다(Hettner, 1898, 김재완, 2000, 재인용).

그는 인간을 지역 내에서 자연과 통합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과학의 진보와 발맞추어 지리학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에서 벗어나 인과관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ettner, 1898, 김재완, 2000, 재인용). 그 후 1905년 논문에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지리학을 지지학으로 통일하면서, 모든 지역은 고유하며, 그 고유성은 가시적 경관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경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리학을 지역적 현상을 개개의 현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적 현상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성으로서 지역적 특성인 지역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희연, 최재현, 1998).

따라서 헤트너는 지리학의 대상이 반드시 사상 간의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래야만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헤트너는 지리학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지리학은 단위지역을 정의하고 기술하며, 그것들을 귀납적 방법에 의거하여 범세계적으로 종합 기초한 후 지역 간의 상호비교를 행하는 비교지지(Vergleichende Länderkunde)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헤트너의 지지연구는 ‘지리적 인과론’의 개념을 가져오게 했다(권용우, 1986).

헤트너는 자연세계의 영역인 땅, 물, 공기, 식물, 동물, 인간은 공간적인 상호작용과 인과관계 아래에서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은 지표를 변화시키는 존재이지만 지리학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지리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은 지표상의 제현상과 지역 내의 인과관계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현상들의 배치라고 지적했다(권용우, 1986)

지역의 지지연구에 대하여 주장한 헤트너의 공헌을 정리하면, 첫째, 지리학은 지지연구라 주장하면서 지지연구의 전념하였으며, 둘째,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규명이 지리학의 주제라 하면서 지역론, 지리적 인과론을 통해 지역 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리학 잡지를 창간하여 지리학발전에 공헌했다(권용우, 1986)(표 12).

<표 12> 헤트너의 지리학적 연구

분야		내용
지지학	지리학의 역사	원시민족과 고대 문화민족의 지리학 고대의 지리학 중세의 지리학 근세의 지리학 19세기 및 20세기의 지리학
	지리학의 본질과 과제	학문의 체계 과연 일반지구과학은 성립할 수 있는가? 지표에 관한 지역과학으로서의 지리학 지리학의 여러 분야 및 자연과학과의 관계 심미지리학과 예술로서의 지리학 응용지리학
	지리학적 연구	탐험 장소의 규정과 지도 작성 지리학적 관찰 지도를 통한 연구와 문헌을 통한 연구 인과관계의 연구 공간적 관련성의 구성 지역의 심미적·응용적 가치에 관한 연구
	지리학적 개념 및 사상의 구성	지리학 이론의 과제와 의의 지리학적 해석의 본질 지리학적 사실의 평가 지리학적 인과성 개별 자연계의 지표 공간 대륙, 국가, 경관 경관의 심미적 가치 경관의 실용적 가치

	지도와 그림	지도학의 의의와 발달 지도학적 작업 지구의와 지도투영법 지도학적 서술의 일반적 특성 지형도 자연지리학적 지도와 인문지리학적 지도 지도학에 관한 문헌 지리학적 그림
	언어적 서술	언어적 서술의 본질과 과제 그리고 지도와의 관계 서술에 관한 작업 지리학적 고유명사 지리학적 용어 다양한 형태의 서술 서술의 방식 지리학의 체계: 일반지리학과 지리학 지리학 문헌
	지리학적 교양	지리학적 교양의 본질 지리학적 교양의 방향 지리학적 교양의 가치 지리학적 교양에 이르는 길
	(초·중·등)학교의 지리학	지리(학)의 위상 학교에서의 지리(학)의 과제 지리 수업의 내용 지리 수업의 주요 영역 지리 수업의 진행 과정 교수법 지리 수업의 보조 수단 지리교사
	대학의 지리학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지리학의 위상 지리학의 연구 연구와 시설 대학의 지리학 교수

출처: 안영진 역, 2013, 『지리학: 역사·본질·방법』의 목차를 재구성함.

한편, 근대지리학을 정립한 훔볼트와 리터, 리터의 지리철학을 이어받은 라첼, 지리학을 주장하였던 헤트너는 모두 독일의 지리학자로 근대지리학은 독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훔볼트와 리터의 사상인 지구 통일체의 개념을 도입하여 프랑스에서 지리학의 체계를 구축한

학자가 비달 드 라 블라쉬(Vidal de la Blache, 1845~1918)이다(이희연, 1997).

비달 드 라 블라쉬는 1898년 소르본느 대학 지리학 교수에 취임하여 상세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연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그 지역의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일반 연구와 비교 연구의 종합에 의한 총체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술한 『세계지리(Géographie Universelle)』는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지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비달의 지리적 사고는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간의 분포를 설명하고 개인적인 묘사를 통해 사회조직을 설명하며 동질적인 환경에서의 인간생활에 대한 접근이었으며 또한 지형, 기후, 토양과 농업의 관계, 자연자원과 경제생활 등을 다루었다(Claval, 1998, 문남철, 2005 재인용)

또한 비달 드 라 블라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 방식으로 생활양식(genre de vie)의 개념을 제시했다. 생활양식의 구체적 표현으로는 ①도로, 임야, 농장, 마을, 도시 ②인구의 분포, 밀도, 이동 ③문화 유형의 특징적 분포 ④의식주의 분포와 환경과의 관계 등을 예시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용우, 1985).

비달의 지리학은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제반 자연과학들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지리학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Dickinson, 1969, 손명철, 1995, 재인용) 첫째, 지리학은 지표현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지표 제 현상의 유형들을 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고려한다. 둘째, 지리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표현상은 상이한 유형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조합된 것이거나 이들이 변모된 것이다. 셋째, 지리학은 이들 현상의 다양한 변이를 기술하고 설명하려 하면, 넷째, 지리학은 자연환

경, 특히 기후와 식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하려 한다. 그러므로 지리학은 지표현상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며, 또한 지리학은 지표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막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리학의 지역에 관한 연구 방법론을 종합해 보면, 크게 독일 바레니우스의 특수지리학과 일반지리학, 리히트호펜의 자연지리학 및 지형학과 지역지리학, 일반지리학, 헤트너의 지지학, 프랑스의 비달 드 라블라쉬의 생활양식론을 밝힌 인문지리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13).

<표 13> 비달 드 라블라쉬의 지리학적 연구

분야		내용
인문지리학 (생활양식론)	인구분포	개관 인구밀도의 증가 인구의 집중: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집단 지중해 지역 결론: 결과와 추론
	문화의 요소	인구집단과 환경 도구와 재료 생계 수단 건축 재료 취락 문명의 진화
	유통	교통수단 도로 철도 대양
		인종의 형성 발명의 전파(기구와 동물의 가축화) 생활양식과 문화권 도시

출처: 최운식 편역, 2002, 『인문지리학의 원리』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 (2)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연구 방법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리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어 온 한 사회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각 지역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 지리학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의 차이점이나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분야이다.

한국의 전통 지리학은 서구 지리학 발달에 못지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로부터 조선, 그리고 지리학 발달의 공백을 이루었던 일제시대 까지를 ‘전통 지리학’ 시기라고 한다(양보경, 2002).

전통 지리의 오랜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읍지와 지리서류에 관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지리지는 지리에 관한 서적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행 안내기나 산천기(山川記), 잡기(雜記)에서부터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리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리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을 지칭한다(장의선, 2006).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시간적·공간적·자연적·인문적인 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으로서 전통 지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지칭한다(양보경, 2002). 따라서 이러한 특징의 읍지와 지리서류에는 한반도의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들이 실려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실태와 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지는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도 편찬되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지리지는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가 유일하다(이찬, 1965, 권용우 외, 2010, 재인용).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기 시작한다(권용우 외,

2010). 지리지는 편찬주체와 다루는 지역범위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리지는 편찬주체에 따라 관찬지리지(官撰地理誌)와 사찬지리지(私撰地理誌)로 나누어진다. 관찬지리지는 국가나 도(道), 각 지방의 관아에서 편찬한 지리지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이 대표적인 지리지이다(권용우 외, 2010)(표 14). 조선 초기 관찬지리지는 대개 국가 통치를 위한 정치·군사 목적으로 편찬되었다(박홍갑, 2005). 대표적인 관찬지리지 중 하나인 1454년(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는 전국 지리지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사회·경제·군사적 측면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서인원, 1999). 『세종실록』 지리지는 경도 한성부를 비롯하여 당시 8도(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평안·함길)에 속해 있는 328개 군현(유수부 4, 대도호부 4, 목17, 도호부 33, 군 90, 현 180)의 각종 인문지리적 내용을 싣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행정·경제·국방·사회·문화·자연환경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인원, 1999).

행정적인 측면의 내용은 관원(官員)·연혁(沿革)·소관(所管)·사경(四境)·향소부곡(鄉所部曲)·해도(海島)·월경처(越境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관원·연혁·소관으로, 일반군현에서는 관원·연혁·소관·사경·월경처·해도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연혁은 각 지방의 행정서로서 지방 명호의 변화·행정단위의 승격 및 하락·소속 군현의 잡속 등이 잘 서술되어 있어서 당시 군현제도의 실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중앙 집권화에 필요한 제도의 개편을 위한 목적과 북방 개척에 필요한 역사 지리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서인원, 1999).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호구(戶口)·군정(軍丁)·토지비척(土地肥瘠)·간전(墾田)·토의(土宜)·토공(土貢)·토산(土山)·염소(鹽笑)·철장(鐵場)·자

기소(磁器所)·도기소(陶器所)·대제(大堤) 등이 있다. 이렇듯 토지에서부터 각 지역의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징발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총 정리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중세적 경제 단계인 조선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세(田稅)에 있어서 토지, 역에 동원되는 호구·군정, 공납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산물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간전·호구·군정의 항목들은 조선 초기의 경제적 양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서인원, 1999).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씨항(姓氏項)은 단순히 우리나라 씨족의 연원이나 족보 형성에 대한 내용의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 계층의 형성 과정이나 동향, 사회의 신분 구조와 지방 사회의 구성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중세 봉건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토지에 긴박되어 있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이 많을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서인원, 1999).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물(人物)·사묘(祠廟)·영이(靈異)·불자(佛字)·능묘(陵墓)·풍속(風俗) 등과 같은 문화적 측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영이항(靈異項)에 수록된 설화 부분이다(서인원, 1999). 이는 조선 전기 집권층은 단군을 역사의 정통으로 하여 자신들의 건국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표 14>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의 항목

자료/시기/ 분류/편목	지리지의 종류 및 편찬 시기					비고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도서	1871-72년 도지	광무 3년 읍지	
	15세기 전반	16세기 전반	18세기 중반	1871-72년	1899년	

地圖	-	全國, 道 지도	道, 郡縣 지도	郡縣지도	郡縣지도	
建置沿革	●	●	●	●	●	지명 및 읍격 이력.
郡名		●	●	●	●	옛 지명
屬縣	●	●				지명
官員, 官職	●	●	●	●	●	軍官, 吏, 儒, 鄉任 등의 편목도 있음.
姓氏	●	●	●	●	●	
風俗	●	●	●	●	●	
形勝		●	●	●	●	
山川	●	●	●	●	●	島嶼, 江海 등의 편 목도 있음. 渡, 津 포 함.
疆域				●	●	
坊里			●	●	●	
道路			●	●	●	
公廨, 宮室		●	●	●	●	營鎮 편목도 있음.
倉庫, 倉司		●	●	●	●	
土產, 土宜	●	●	●(物産)	●	●	
俸廩			●	●	●	
城池, 城郭	●	●	●	●	●	
關防, 鎮堡		●	●	●	●	
關阨				●	●	
兵船			●	●	●	
堤堰	●		●	●	●	
學校, 校院		●	●	●	●	書院 편목도 있음. 騎撥, 院站 편목도 있음.
驛院, 驛站	●	●	●	●	●	
烽燧, 烽火	●	●	●	●	●	
橋梁		●	●	●	●	
祠廟, 壇廟	●	●	●	●	●	
牧場			●	●	●	
魚梁	●					
鹽所	●					
磁器, 陶器 所	●					
津渡, 津航				●		
場市			●	●	●	
佛宇, 寺刹	●	●	●	●	●	
陵寢, 塚墓	●	●	●	●	●	墓所 편목도 있음.
古跡		●	●	●	●	
故事, 典故						

樓亭	●	●	●	●	●	
戶口	●		●	●	●	人摠 편목도 있음.
軍額.軍摠	●		●(軍兵)	●	●	
結摠.田結	●(墾田)		●	●	●	
糶糶			●	●		
田稅			●	●		
進貢.進上	●(土貢)		●	●	●	
大同			●	●		대동세(대동법 시행)
均稅			●	●		균역세(균역법 시행)
結錢			●			
土質 (비옥도)	●					
還摠					●	
題詠.詩文		●	●	●	●	重修記, 上樑文
碑板.冊板				●	●	
人物	●	●	●	●	●	孝子, 孝女, 烈女, 孝婦, 忠臣, 流寓 등의 편목도 있음.
名宦		●	●	●	●	科擧, 名賢 편목도 있음.
八景.十景				●	●	
先生案.宦蹟				●	●	
邑事例				●		

주: 권용우 외, 2010, 『한국지리지 발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38-39.

그 이후에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고을 단위의 사찬지리지의 편찬이 늘어났다. 이런 조류는 16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7세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임란을 전후하여 지리지에 한 새로운 인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시기 지방 수령이나 재지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던 사찬지리들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예속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큰 전쟁을 겪고 난 후 지방사회를 재건하는데 읍지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박홍갑, 2005). 사찬지리지는 개인이나 지방유림이 편찬한 읍지와 전국지리지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이 있다(권용우 외, 2010)(표 15).

<표 15>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와 『대동지지(大東地志)』의 항목

지리지	항목
동국여지지	旱田, 水田, 建治沿革, 名勝, 形勢, 風俗, 山川, 土産(광물 산출지 포함), 城郭, 公署, 學校, 宮室, 倉庫, 烽燧, 郵驛, 關梁(관문 다리), 祠廟, 陵廟, 寺刹, 古蹟, 名宦, 流寓, 人物, 烈女
대동지지	沿革, 邑號, 古邑, 官眞, 形勝, 山水, 嶺路, 島嶼, 疆域表, 坊面, 官衙, 宮室, 倉庫, 土産, 城池, 鎮堡, 祠院, 驛站, 驛道, 烽燧, 橋梁, 壇壝, 廟殿, 牧場, 津渡, 場市, 陵臺, 陵寢, 陵園, 典故, 故事, 樓亭, 田民表, 穀簿

주: 권용우 외, 2010, 『한국지리지 발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43.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 결과물로서 지리지들이 편찬되었다. 이들 지리지 가운데는 기존의 백과사전적인 지리지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구성과 내용의 책들이 적지 않았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이 있다(표 16). 정약용은 자연학으로서의 지리학을 표방하여 신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풍수를 지리학과 완전히 분리시켰다.

정약용은 지리를 천문·역법 못지않게 중요한 학문으로 인식하여 군주뿐만 아니라 선비들도 마땅히 이를 탐구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의 지리학은 실증적, 고증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도를 매우 중시했다. 정약용은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 지리적 분야와 강역·행정구역의 변경과 같은 역사 지리적 분야 및 경제, 군사 지리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오상학, 2007).

지구의 형상과 세계 인식과 관련해서 정약용은 서학서나 서구식 세계지도를 통해 서양의 지리 지식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체설을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의 상대성을 인식했다. 또한 더 나아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중화관을 극복했다(임덕순, 1999).

<표 16> 아방강역고 권별 내용 구성

권	내용 구성
권1	조선고(朝鮮考)·사군총고(四郡總考)·낙랑고(樂浪考)·현도고(玄菟考)·임둔고(臨屯考)·진번고(眞番考)·낙랑별고(樂浪別考)·대방고(帶方考)·삼한총고(三韓總考)·마한고(馬韓考)·진한고(辰韓考)·변진고(弁辰考).
권2	변진별고(弁辰別考)·옥서고(沃沮考)·예맥고(濊貊考)·예맥별고(濊貊別考)·말갈고(靺鞨考)·발해고(渤海考).
권3	졸본고(卒本考)·국내고(國內考)·환도고(丸都考)·한성고(漢城考)·위례고(慰禮考)·팔도연혁총서상(八道沿革總叙上)·팔도연혁총서하(八道沿革總叙下)·패수변(溟水辯)·백산보(白山譜).
권4	발해속고(渤海續考)·서북로연혁속(西北路沿革續)·북로연혁속(北路沿革續).

출처: 권용우 외, 2010, 『한국지리지 발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48.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정약용은 국토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동수경(大東水經)』과 같은 저작을 집필했다. 또한 인문지리 분야에서는 국토 경영의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군사지리, 역사지리 등에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다양한 국방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서 『비어고(備禦考)』를 저술하였고, 국토강역의 역사를 다룬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외에도 촌락입지, 국토에 세부 지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기술했다(오상학, 2007).

지역연구 방법론은 그 당시의 사회적 철학 내지는 지리사상에서 비롯되었고, 또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변천과 더불어 방법론도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대체로 지역의 개개 속성을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었으며 이들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속성에 의하여 지역을 구명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하지만 그 시대의 세계 지역연구의 흐름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방법론을 구사해 왔다(박태화, 2002).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적 지리학자들은 자연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조선 후기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가 지역 내지 국토의 공간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지리학의 다양화, 계통지리학적인 전문화의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근대지리학적인 면모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양보경, 1994).

## 2) 신지역연구 방법론

### (1) 신지역연구의 발생배경

신지역연구 방법론은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론은 지역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언어사용의 한계와 혁신적 방법의 결여, 지역자체의 경계 모호성, 지리적 축척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 소단위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 부족,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지역격차의 의미상실과 이로 인한 지역연구의 중요성 감소 등이 한계점으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서술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탈피, 적절한 어휘사용과 실험적인 태도와 상상력, 광범위한 인식의 폭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aterson, 1974, 이희연·최재현, 1998, 재인용).

신지역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였던 전통적 지역연구와는 다르게 195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회를 인식하여 지역연구에서 인간, 자연, 사회 간의 관계고찰을 중요시하여 지역을 연구하는 데 사회 및 과학적 지역지리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지역연구에서 사회이론이 새롭게 도입되었다(이희연·최재현, 1998).

사회적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연구에서는 사회적 다양성과 지역적

인 차이를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는 개인과 제도, 장소에 따른 사회적 행위에 의해 계속 변화되고 재구성되므로 지역의 개념 역시 계속 재형성된다는 견해가 공론화되었다(Pred, 1986). 또한 전통적 지역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구체성과 개성기술적 방법이 일반적 구조를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간구조의 사회적 이론화에 이바지할 개념으로서 지역지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이것을 신지역지리, 재구성된 지역지리(new or reconstructed regional geography) 또는 변형된 지역지리(transformed regional geography)라고 한다(Gilbert, 1988). 즉,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공간적 패턴을 형성하는 일반법칙만을 강조하였던 연구와 개성기술적이고 구체성만을 강조하여 일반적 과정의 존재를 무시하였던 연구경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1980년대 이후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신지역지리 연구라 할 수 있다(서태열, 1989).

신지역지리학은 전통적인 지역연구 및 공간분석적 관점과는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연구를 중요시한다는 관점에서는 전통적 지역연구와 동일하지만 사회이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으로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은 학문적 고립과 사회과학을 거부하는 전통적 지역연구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Gilbert, 1988; Pudup, 1988), 공간분석적 관점이 광범위하게 실증주의적 양상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신지역지리에서는 공간분석의 오점을 지적하는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Sayer, 1985), 로컬리티(locality)와 같은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신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연구자 개인이 만드는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은 영역적 실체를 가지며, 공간구조가 형성되어지는 역사적인 물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역은 단순히 지표면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변형되는

동적인 실체로서 지역적 특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즉, 신지역지리 연구는 지역변형(regional transformation)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차이를 동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적 차이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패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신지역지리학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작인(作人)으로 간주하고, 장소를 구성 내용(contexts)으로 인식한다. 이때 장소를 변화시키는 인과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간의 행동과 완만히 변화하는 구조 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지역지리학은 지역에서 사회구조와 같은 일반적 구조와 과정이 구체적 내용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 과정이 지역의 구체성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신지역지리학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공간적 변이가 사회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세계는 복잡한 특정장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반적 과정자체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려는 개성기술적 방법과 특정한 법칙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방법 간의 논쟁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논쟁 속에서 신지역지리학의 철학적 기반은 법칙주의와 개성기술주의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Johnston, 1985).

## (2) 신지역연구에서의 지역에 대한 연구방법론

신지역연구에서는 다양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방법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리학에서의 지역 연구에 관한 방법론에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여러 지리학의 지역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물이 군사업무활동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어 지리학의 위상은 괄목할 정도로 높아졌다(권용우·안영진, 2001). 그러나 기존의 지역 연구는 여러 지역을 포괄적으로 아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에커만은 따라서 계통지리학의 선회, 재정비를 주장했다(권정화, 2005).

이러한 논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리학이 출현하게 되는데, 독특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성기술적인 방법보다는 계량혁명을 통한 법칙성의 추구와 일반화를 지향하는 보다 과학적인 지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리학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기법이 등장하게 되어 과정지향적이고 논리실증적인 지리학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되었다. 길버트(Gilbert Rozman, 1988)는 지역을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대한 지역적 반응체로 보는 관점, 장소와 문화에 관심은 두고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을 보는 관점, 그리고 개체와 구조의 변증법적 통합을 시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지역을 보는 관점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지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레그슨(Nicky Gregson, 1987)도 신지역지리학의 철학적 배경으로 인본주의, 구조주의, 구조화이론, 실재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철학적 배경에 따라 지역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제시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은 중간매개체이자 산물로서 구조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은 전체로서 부분으로 축소시킬 수 없으며, 지역의 구성요소는 자체적인 구성요소보다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가 중요시된다. 즉, 지역의 정체성은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이 특정한 지역공간상에서 서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란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결합과 조합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Allen, Massey & Cochrane, 1998).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연구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특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는 지역연구에서 내용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공간의 틀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다양한 층의 내용 구성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용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제도와 조직-행위자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구조(structure)란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국가, 성적역할의 차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심층적이고 규칙적인 사회적 행위이며, 제도와 조직(institutions)은 구조가 현실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표현된 것으로 국가정책기관, 다국적기업, 무역협회, 지방정부, 가정 등을 의미한다. 행위자(agents)는 인간 각 개인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제도와 조직-행위주체가 다양한 공간 규모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칼레(locale)이며, 로칼레는 지역의 내용 구성성(contextuality)을 구체화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을 제공하며,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정의된다(Giddens, 1984). 즉, 로칼레는 장기적인 구조의 힘과 단기적인 개인 행위 간의 상호 가역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며, 개인 거주지로부터 공장, 소도시, 도시, 국가, 세계로 공간적 범위를 점차 넓힐 수 있다.

구조화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스리프트(Nigel Thrift, 1983)는 지역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연계된 틀(setting)로서 이해했다. 그는 지역이란 시간과 공간상의 사회적 행위가 구조화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조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만드는 지역화과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시켜 시간과 공간상에 지역구분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연구에서 구조화이론의 도입은 상이한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으며,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이 불규칙하고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ocality’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Locality는 1980년대 영국의 산업 재구조화와 도시와 지역체제의 변화(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CURS)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Cooke, 1989)으로 Locale 개념이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며 행위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의미성이 결여된 부적합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배경에 두고 있다. Locality는 단순한 공동체나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 사회적 이익이 공간상에 집적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에너지나 능동적인 작용으로 이해하였으며, Locality를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Cooke, 1989). 그러나 Locality 개념은 각각의 현상이 갖고 있는 구체성을 잃지 않고 각종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과정과 일반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일반적 과정과 지역이 가지는 구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이 상이한 지역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지역적인 것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Duncan & Savage, 1989).

인본주의적 시각에서의 지역연구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개념도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공간으로서 주관적이며, 경험적이고 의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Buttimer, 1978). 또한 지역이란 집단과 장소 간의 문화적 관계의 구체적인 틀로 이해되기도 하며, 지역 간의 차이는 문화집단이 다른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파악된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지역형성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투안(Yi-Fu Tuan, 1982)은 지역이란 인간이 사회에 연결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사회에서의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다른 사람들과 연대감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존스톤(Ron Johnston, 1991)은 지역이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재생산되는 실체이지만 사회적 힘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 의한 의도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한 지역의 변화는 인간에 의해 유도되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지역은 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결정되는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면서 변화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장소(place)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소의 구체성, 주관성, 상징성, 의도성, 그리고 문화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장소의 개념과 관계된 주장은 1980년대 인문지리학에 널리 도입되었으며, 독특성, 내용 구성, 장소적 시각을 강조하며 지리적 상상력(geographical imagination)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애그뉴(John Agnew)는 장소를 로칼레(locale), 입지(locality), 그리고 장소(place)의 의미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했다(Agnew and Duncan, 1989). 로칼레는 지역의 사회적 배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대표하고, 입지는 상위 질서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장소의 사회적 생활은 결국 상위의 국가나 세계경제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며, 장소의 의미성은 주관적 시각을 대표한다. 한편 존스톤(1991)은 장소는 자연 환경(physical environment),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장소에 대한 연구는 결국 세 가지 요소 전체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엔트리킨(J. Nicholas Entrikin, 1991)은 장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리학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장소의 개념을 주

관적, 개성기술적, 독특성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추구하는 관점과 객관적, 법칙추구적, 일반적 설명을 추구하는 관점 간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적 도구로서 제시했다. 이론을 추구하는 과학자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장소는 입지나 일반적 관계로서 환원되어지며, 주관적이며 자가 중심적 견지에서 볼 때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나 의도에 관계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만약 인간을 장소에 속한 행위자인 동시에 장소를 이론화하는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서 파악한다면, 장소에 대한 체계적 해설이 필요하며, 지역 연구자는 과학적 이론화의 객관적 측면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하는 주관적 측면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장소를 주관적으로 존재론적 관점과 객관적인 자연발생적 관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로서의 관점과 자연적 객체로서의 자연발생적인 관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역연구는 기술과 설명, 과학과 예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지역연구의 방법으로 해설적인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다(Sayer, 1989).

신지역연구에서 실재론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인과관계에서도 공간적으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연적 과정(contingent process)이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특히 경제 재구조화 과정에서 공간적 우연성에 의해 지역 간 차이가 형성되므로 지역은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적 틀을 제공한다.

신지역연구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재론적 입장에서는 구조와 작인, 일반성과 구체성, 존재와 부재, 지리적 규모에 따른 분석단위의 차이,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등의 이원론에 대한 극복을 위해 분석과 해설, 분석을 위한 실재적, 행위적, 경험적 수준, 필연적

관계와 우연적 관계 등의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지역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95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지역연구에서는 지역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지역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계량혁명을 기점으로 분석의 대상으로서 지역을 인식하고 지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간적 패턴과 공간적 과정을 강조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지역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최근의 지역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지역연구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구조주의적 시각과 인본주의적 시각, 그리고 실재론적 시각에서 새로운 개념과 연구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신지역지리학의 등장에도 프랑스의 지리학은 고유한 학풍을 이어가 독특한 지리학을 발전시켰다. 프랑스의 지리학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계량지리학이라는 급변한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고집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풍으로부터 고립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 덕분에 프랑스는 세계 지리학계의 사조변화와는 분리된 고유한 방법론과 철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문남철, 2005). 역사학과의 공존이 특징인 프랑스의 지리학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한 지역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지역연구의 방법론은 먼저 잘 알고 있는 특정지역에 관해 자세히 연구한 후 그 경험을 토대로 인간과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했다(이희연, 1997). 이러한 전통은 현대 프랑스 지리학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프랑스의 현대 지리학자 중 한 명인 필립 땡쉬멜(Philippe Pinchemel)의 *France A Geographical, Social and Economic Survey*의 목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17).

<표 17> 필립 뺑쉬멜의 지리학적 연구

분야	내용
프랑스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인 특징 1) 역사적인 구성 2) 지리학적 특징의 이점 3) 프랑스 발전의 인문적 요소
자연환경	지형, 기후, 토양, 식생, 하천과 용수, 환경과 환경정책
국민	19세 이후 인구의 성장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 변화 지리적 유동성과 인구의 이동 인구 구조 사교 방식과 문명의 차이
프랑스 공간 구조의 정책과 실행	지리학 행정 정치지리학과 지리학적 정책 토지 소유권 지리적 변화의 선도 기관
자원, 경제 활동과 경제 기업	농업과 1950년 이후 농업의 변화 농지의 소유 농업 생산물 및 임업 생산물 농업 유형 및 농업 정책 비에너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산업 구조 산업 입지 산업 정책 산업 환경 3차 산업 분야
공간 상호 작용의 기반 시설	교통과 통신망의 일반적 특징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 수송정책
프랑스 농촌 지역의 경관과 환경	농촌 공간의 세대별 이용 프랑스 농촌 지역의 건축 환경 농촌 경관 농촌 환경과 농촌 계획
도시 환경	도시 체계와 개발 1851년 이후의 도시 개발 도시기능 도시경관

출처: Philippe Pinchemel, 2009, *France A Geographical, Social and Economic Survey*의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또한 서구적 지리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유럽에서 가장 일찍이 근대지리학을 확립한 나라는 독일로서 헤트너 이후 독일 현대 지리학의 방법론은 독일에서 최근에 발행한 지리지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지리학을 전공하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지리학교수로 재직한 에카르트 칼(Eckart Karl)의 *Deutschland, Gotha*의 목차를 보면 현대 독일 지리학의 방법론을 알 수 있다(표 18).

<표 18> 에카르트 칼의 지리학적 연구

구분	내용
제1장	1980, 90년대의 독일: 전환기적 상황 - 지속과 단절
제2장	인구발전과 인구이동
제3장	정주취락 구조와 정주 공간
제4장	공업구조와 공업 공간
제5장	교통인프라와 교통 공간
제6장	농업구조와 농업 공간
제7장	관광과 관광 공간
제8장	통일 독일의 발전격차와 발전 구상
제9장	환경문제와 환경보존
제10장	독일의 아젠다 21 및 그 실천
제11장	독일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하에서의 긴급한 구조변동으로서 행정구역 개편
제12장	유럽과의 공동 성장을 위한 전제로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
제13장	세계화 시대의 독일

출처: Eckart Karl.(eds), 2001, *Deutschland, Gotha*, Klett-Perthes Verlag: 447,  
권용우 외, 2010 재인용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 2. 지리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 1) 학위논문을 통한 연구

세계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몇몇 국가의 지리교과서와 한국 지리교과서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과서의 전체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구성과 내용 체제는 양적 분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내용 서술 분석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편수는 박사학위논문 2편, 석사학위논문 24편으로 파악되었다. 박사학위논문은 1997년과 2010년에 각각 1편씩으로, 1997년의 박사학위는 한·중·일 세 나라의 세계지리교과서에 전개된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을 분석했고, 2010년의 박사학위는 프랑스의 교육과정을 초·중·고교 과정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했다. 석사학위논문은 <표 19>와 같다. 주요 학위논문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원택(1997)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또한 1990년대 후반 한·중·일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계지리교과서에 전개된 국제이해교육의 관련내용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①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향후 한·중·일의 세계지리교과서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적 틀에 맞추어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한국의 경우는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교과서 서술내용의 정보성·균형성 확보 및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은 198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제5차 개정과는 전혀 다른 학습지도 요령을 발표하여 교과서 내용의 획기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활발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순지식 위주의 전달형태로부터 벗어나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③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편향된 서술내용과 자국위주의 서술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며, 정보성 및 균형성·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④일본은 3국 중 가장 진보된 교과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 구성에 있어 자국위주·자국우월주의·강대국 지향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좀 더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표 19> 지리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현황

연도	편수	학교
1995	3	남북한 중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1	商業高等學校의 地理教育에 關한 研究 : 한국, 일본, 대만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	한국·프랑스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 1차 산업과 생활공간 단원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	남·북한 세계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영역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 연구 : 지역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3	남북한 고등학교 지리교과 교육과정 및 세계지리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영국의 7학년 사회(지리) 교과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10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리내용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삽화 분석 :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이탈리아 초등학교의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과 호주의 중학교 지리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비교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일 지리교과서 비교·분석 : 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	한·미·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아시아관련 지리내용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지리교과서의 구성체제와 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	영국 국가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개발교육 내용 분석 : DC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1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교육 내용 국가별 비교 연구 :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4	한국과 독일의 지리교과서 내용분석 : 중학교 수준의 자연지리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기반한 영국의 중등 지리 교육과정 프로젝트 연구 : OCR Pilot GCSE 지리 평가요강과 YP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총계	24	

출처: 지리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24개를 리뷰 후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이상균(2010)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국제적으로 지리 교과서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지리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습내용 조직 및 구성 원리, 그 연계성 및 계열화를 분석했다. 첫째,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학교급별로 그 자체로 완결적 구조를 내포한 순환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별로 진행되면서 단계와 수준이 심화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지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 단계(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세계지리를 자연지리 중심으로 계통지리적으로 구성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유럽의 맥락에서 프랑스 지리를 학습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세계 스케일과 프랑스 스케일에서 시사적인 정치 지리를 학습하도록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과서 분석결과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주로 사진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경관을 분석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진 관찰 및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확인이 주된 활동이 되고 있었으며, 중학교 수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나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석사학위 논문은 1995년의 3편과 1998년의 1편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홍창표(2001)는 1차 산업과 생활공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분석했다.

국애란(2002)은 학교 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민족, 화해, 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준비 교육, 통일 대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북한 주민들 간의 민족 이질화 문제를 극복하면서 문화 대한 객관적 이해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방

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남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을 채택하여 남·북한의 세계 인식과 시각 및 지리 개념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 국가 수립에 있어서 세계관과 시각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를 했다. 또한 남·북한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남·북한의 동일 영역에 대한 이질성이 크며, 국제 관계에 대한 시각차도 크고 지리적 개념 구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 질적 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교사들의 상호접촉 기회를 부여하여 통일 이후의 동질성 회복에 현장 교사들의 기회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피력했다.

윤재옥(2002)은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한 개선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서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양국 모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영역이 전체 환경교육 관련내용의 절반을 넘었고, 환경문제의 원인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영역들의 내용 비중도 대체로 비슷하여 한국과 중국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에서는 양국의 차이를 확인했다. 중국은 전체 활동 수에 대한 환경교육 관련 활동 수의 비율 면에서는 한국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삽화자료를 통한 환경교육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비교적 다양한 삽화자료를 통해 여러 영

역에 걸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중국은 자연환경과 자원에만 삽화가 집중하고 있고 삽화의 질도 상당히 떨어져 시각자료를 통한 환경교육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지리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은 한국이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 활동, 삽화 모두에서 환경보전 대책 및 실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지리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박영신(2004)은 남북한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양국의 세계지리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의 세계를 조망하는 시각과 국제관계 이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통일 후 남북한 세계관이 차이를 극복하며 통합적인 시각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논문을 통하여 ①지리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남한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고, 북한은 주체형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집단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만들어 내하고자하는 데 차이가 있다. ②교육과정 편제 면에서 남한은 지리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구성된 데 반해 북한은 국토지리와 세계지리가 모두 필수로 구성되어 북한의 '지리'가 남한의 경우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요과목임을 알 수 있다. ③단원별 비중과 지역의 구분방식을 비교했을 때, 남한은 지역을 문화권과 경제적 발전정도를 중심으로, 북한은 지리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했고, 각 대륙별 비중에 있어서도 서로의 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륙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④대륙별 내용 서술방식의 차이에 있어 남한은 특별히 사상이나 이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교과서의 시각자료로서 남한교과서에는 북한 교과서에 비해 많은 양의 시각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자료의 질과 자료 제시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⑥교과서에 사용된 용어와 지명의 차이이다. 지리 용어와 지명을 표기하는데 남한의 경우 한문으로 표기한 용어가 많고 외래어는 각 지역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반면, 북한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 많고 외래어 표기에는 된소리 표현이 많다 등 여섯 가지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지리 교육을 모색하고, 지리 교육과정 및 내용의 재구성에 참고하여 새로운 교과서 제작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노주연(2004)은 지리 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내용의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영국의 7학년 사회(지리) 교과서 각각 2권씩 총 4권을 선정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사회과 지리영역에서의 환경교육 내용은 전체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지리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내용은 전체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교육의 내용은 양국 모두 자연 재해 및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한국 교과서가 영국 교과서에 비해서 환경교육 내용에 관한 주제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로 지역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교육 내용이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원별 내용이 중복이 많아 산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국의 지리 교과에서는 환경 단원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과 영국 모두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자료가 사진에 편중되어 있으며, 환경교육 내용과 자료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배분이 적절하지 못하여 자료의 활용도가 영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지리 교과에서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분석 틀의 재편성과 환경교육 목표인 지식·이해, 기능, 가치·태도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정미(2004)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10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리내용을 형식 체제, 구성 체제, 내용 체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형식 체제 중 외형체제를 살펴보면, 두 나라의 색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판형, 지질, 활자크기와 쪽당 줄 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 구성 체제에서 단원별 분량은 한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보다 중단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리 영역에 해당하는 총 쪽수는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나라 모두 대단원명 - 단원개요 - 중단원명 - 소단원명 - 본문 - 탐구활동 - 대단원 정리 순의 구성체계를 보였다. 셋째, 교과서 내용 체제에서 두 나라 모두 이론이나 개념 외에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소개로 본문 내용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진우(2006)는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내용과 구성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과서에서 개선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은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제에 의해서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한국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로 세분화되어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지리A와 지리B로 조직되어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의 상호보완 관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 지리교과서의 자국지리를 분석해 본 결과 양국 모두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의 학습자료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가장 큰 서술특징으로 교과 구성 전체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일본을 다루고, 그 다음 소단원에서 일본이

중심이 되어 서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일본교과서 내의 한국 서술부분을 분석한 결과 일본 교과서에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에 관한 서술비교를 통해 학습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교과서가 평균 24.3개로 일본교과서의 평균 17개에 비해 더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혜옥(2006)은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삽화중심으로 삽화가 게재된 양과 유형을 비교분석했다. 교과서에 삽화가 게재된 양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교과서 모두 지역규모별 페이지당 한 개 이상의 삽화를 게재하였으며, 둘째 양국의 출판사별 전체삽화의 게재량은 일본 교과서가 한국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많았다. 셋째, 한국과 일본 교과서 모두 삽화의 유형 중 사진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한 장 이상의 사진을 매 페이지마다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지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과서에 게재하는 삽화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삽화의 구비요건별 분석결과 한국에 비하여 일본 교과서가 지도, 사진, 도표, 그림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삽화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삽화의 배치나 지면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일본의 교과서는 정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덕현(2008)은 이탈리아 초등학교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분과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서는 여러 교과목이 한권에 합본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둘째 교과서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교과서의 재질과 크기, 색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학습내용 구성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자연과학적 영역의 비중이 높으며, 환경교육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부교재의 경우 주교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읽을거리와 따라하기 등 주교재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사회과부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수행평가집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나리경(2008)은 한국과 호주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성체계와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호주 지리교과서의 소주제 문단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분석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교과서의 경우 산업화·도시화 및 자원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반면, 호주 교과서는 자연재해, 환경변화, 환경 보존 및 그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 자료에서 한국 교과서는 산업화·도시화와 자원과 관련한 시각자료들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환경오염과 환경보전 및 그 대책과 관련한 시각자료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각자료가 특정 주제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다. 반면, 호주 교과서는 자연재해, 환경변화와 관련한 시각자료들이 압도적이었으며, 환경 보존 및 그 대책과 관련한 시각자료들은 교과서 내용과 비교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윤경(2008)은 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서 환경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비교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환경교육의 목표와 과정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교육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박민정(2009)은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동북아시아 관련부분에 대해 단원 전개와 구성체제를 분석하고 분량, 학습 자료, 활동과 각 지역 간, 나라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 구분과 내용서술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개 체제와 구성체제에서 미국의 경우 본문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읽기자료, 학습 자료로 학습이 전개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학습요약이나 정리가 평균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며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상세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량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미국은 아메리카, 유럽 다음으로 3번째로 다루고 있는 차이를 밝히고 있다. 셋째, 한국, 미국 및 일본의 학습 자료 중에서는 사진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도, 도표, 삽화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동 유형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학습인 사실 확인형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탐구형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용서술 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를 경제개발과 산업화 중심의 경제 발전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의 동질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경제 발전주의적 관점과 결합시켜서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강대국으로서 제3자 입장 또는 미국 중심적인 사고에서 아시아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연(2009)은 중국의 지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중국의 국토관과 세계관을 알아보려고 중국의 개정된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지리교과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성 파악을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국토지리교과서에서는 특히 인구와 환경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계지리교과서에서는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고 아시아의 비중을 50%이상 반영하여 중국이 자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나라 세계지리교과서 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개혁개방이후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농업부문에

서 많은 이득을 얻었고, 세계에서 중국이 다방면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미나(2010)는 영국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나는 개발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개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 국가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개발교육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영국에서는 국가전체 교육과정에 개발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서도 개발관련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교육과 내용이 이제까지 원조 수여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시민성과 제3세계에 대한 이해 및 원조의 필요성, 개발쟁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이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나(2011)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교육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함께 파악해 보고자 일본과 영국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교육과정 내 지리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자국의 형태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을 중등 교육과정에서 최초의 영토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영토문제의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의 영토교육은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영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과는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했다.

심문숙(2012)은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교육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후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구 시스템, 인간-환경 간의 관계, 위치와 스케일을 포함한 지리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리교과서는 기후변화 원인으로 인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지리교과서의 경우 지질 시대 그래프를 통해 과거부터 기후가 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영국 지리교과서에서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요인이 함께 존재함을 제시했다. 미국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는 내용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홍경(2013)은 비교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지리와 관련된 학습내용 특징을 파악하고, 자연지리를 지리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중학교 수준의 자연지리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지리교과서 내용을 비교분석 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독일의 교과서 모두 대단원은 계통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단원의 하위 영역에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영역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으며, 단원의 학습내용은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한 것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중학교 수준의 지리영역 교과서의 상권에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내용이 같이 구성되어 있으나, 독일은 상권의 전체 대단원이 자연지리의 학습주제로만 구성되어 있어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한국과 독일의 중학교 수준의 지리영역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자연지리의 학습주제인 기후, 지형, 수문, 토양, 생물지리, 자연재해 등 6가지로 분류하여 각 주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서 분석했다. 한국은 6가지 주제 가운데 수문과 토양을 다루는 부분이 없었던 것에 비해, 독일의 교과서는 6가지 주제를 상권의 자연지리

영역의 학습내용에 모두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셋째, 탐구활동내용을 자연 지리의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과 독일의 탐구활동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사고능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2013)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를 비교 분석 했다. 일본 교과서는 국경과 영토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잠깐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북방 영토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지리교과서는 우리나라 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비해 내용적으로 더 깊이가 있고, 일본과 대치되고 있는 독도와 일제시대 때 빼앗긴 간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관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선(2013)은 중국 지리교육의 특성 및 지리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세계관을 밝히고자 중국 연변지역의 중학교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교과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실용주의 교육은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 분석, 학습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지리교과서 구성 체제는 저학년에서 지리학의 기초 이론인 계통지리학을 중시하는데 특히 자연지리 영역을 비중 있게 학습하여 응용지리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고, 점차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인문지리 영역의 비중을 높여 응용지리 학습으로의 진행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상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내용 분량 면에서도 자연지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인문지리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환경, 관광으로 위시되는 응용지리 관련 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둘째, 중화사상은 문

화상대주의와 함께 중국 초급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이룬다. 중화사상의 세계관은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중국 중심적 내용 및 어휘 선택,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국가별 내용 비중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중국 문화권 개념의 확대 해석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몽골, 티베트 등을 주변화 시킨 반면 대만, 러시아, 인도, 일본 등은 강조되어 있는 등 국가별 내용 안배에 중화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리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교과서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흥미 유발과 빠른 이해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학습 자료는 사진, 지도, 그림의 순으로 많았으며 중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표와 그래프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넷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학교 지리교과서는 독자적이고 독특한 지리 용어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자환(2013)은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기반한 영국의 중등 지리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의 파일럿 GCSE와 YPG 프로젝트 분석을 바탕으로 지리학의 ‘도시지리’ 영역이 어떻게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나타나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이며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교사와 학생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과 주제에서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지리적 사고와 활동을 보이므로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청소년의 지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리 교육과정의 학습 활동과 교수학습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심상지도 그리기, 역할 놀이,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에 의한 혁신적인 내부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

년의 생활세계를 반영한 지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과 전문가이자,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 학습을 촉진하는 중재자,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판단하는 평가자로서 더욱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째,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미래 직업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 2) 학술지 게재 논문을 통한 연구

지리교과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교과서 내용의 변천과정, 특정한 관점에서의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0).

<표 20> 지리교과서 분석 학회지 게재 논문 현황

연도	편수	논문 제목 및 학회지
1996	1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 국제이해교육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2	1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05	1	사회과 지리교육의 환경교육 내용 분석 : 한국과 영국의 7학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08	2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 지리교과서 다시 읽기 : 미국 세계 지리교과서 속의 '한국', 대한지리학회지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2011	2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삽화 분석 :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	한·영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 인구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총계	8	

출처: 지리교과서 분석 학회지 논문 8개를 리뷰 후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양원택(1996)은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현재 한·일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세계지리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2개의 중심주제, 6개의 소주제, 20개의 중심개념의 교과서 분석틀로 나누어 비중도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중심주제인 상호의존의 영역에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상존문제의 영역인 인권, 인구, 자원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의 차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우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을 별도로 채택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과의 상호보완 관계로 채택함으로써 취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면적으로 고찰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최운식과 윤재옥(2002)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양국의 환경교육을 비교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계지리 영역을 대상으로 양국의 중학교 지리(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이 중국보다 균형 있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내용이나 활동 모두 환경문제 해결에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밝혔으며, 보다 나은 환경교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리교과에 맞는 환경교육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 영역에 대한 중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관 정립 교육과 현실성 있는 교육의 강조, 보다 실제적인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 활동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영민과 노주연(2005)은 환경문제는 인간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지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나 단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과 지리교육의 환경교육 내용을 한국과 영국의 7학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 이후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영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의 환경교육 실태는 한국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환경과를 독립으로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의 내용을 지리, 과학에서 다루고 있었다. 환경교과의 독립은 환경교육 내용을 한 과목으로 체계적·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관련교과에서 내용을 조금씩 가져온 조립식 교과로서의 위치, 환경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의 미비, 학교에서의 환경교과 채택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혜정(2008)은 세계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세계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여 세계 지리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미국 세계 지리교과서는 제국주의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관점을 드러낸 반면, 한국은 이분법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배제, 오해와 고정관념, 단순화 등을 통해 세계 지리교과서가 어떻게 세계 다른 지역과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의 세계적 관점과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통해 교과서에 재현된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오류와 편견을 감지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소홀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복잡하고 논쟁적인 세계적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철기(2008)는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과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관련 내용의 선정 근거 및 서술의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두 세 개의 ‘근린제국(이웃국가)’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활·문화를 일본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근린제국과 관련한 지역학습이 생활·문화에 초점을

됨으로써 자연환경 내용은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독도는 대부분 분쟁 가능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의 영토로 명기하거나,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로 표기 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철기(2011)은 한·영·일 지리교과서에 활용된 내러티브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텍스트 서술에 주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단원구성의 관점에서 내러티브 텍스트는 본문보다 도입, 탐구활동, 읽기 자료 등 보조 자료에서 활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내러티브 텍스트가 설명식 텍스트로 이루어진 본문의 보완적 장치로 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둘째, 학령단계의 측면에서 내러티브 텍스트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 내러티브 텍스트가 학령단계가 낮거나 동일 학령단계 내에서도 사고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셋째, 내러티브 텍스트의 형식의 관점에서 타자에 의해 재현된 내러티브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은 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내러티브 형식의 신문기사와 만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소와 사건을 배경으로 한 완성도가 높은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내러티브 형식의 신문기사와 스토리식 만화는 설명식 텍스트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교과서 저자에 의해 재현된 내러티브의 경우, 대부분 가공인물을 설정하여 독백체 또는 대화체 형식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국의 『Geog.』 시리즈는 실제 인물의 자전적인 내러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 저자에 의해 가공된 인물보다는 실제 인물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지리적 이해와 감정이입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교과서는 교수학적 변환의 산물로서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고, 학생들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친절한 텍스트는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

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적 지식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조철기와 이하나(2011)는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발견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일본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다섯째,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미영과 조철기(2012)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지리교과서의 인구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양국의 지리교과서에서 인구 단원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다문화현상을 잘 담아내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자신의 국가에 대한 학습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경우 자국으로 이주해온 이주자들에 의한 우리 안의 다문화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전형적

으로 나타나는 우리 밖의 다문화 현상도 함께 다루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우 다문화 현상을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인구문제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주에 나타난 지리적 소수자를 인구지리적 측면에서 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히려 차별, 갈등,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리를 통한 다문화교육은 인구 단원을 통해서 우리 밖의 다문화 현상보다는 우리 안의 다문화 현상에 초점을 두면서,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청소년 세대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다문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리적 소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국가별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 1) 독일의 지리교육

독일은 1828년 베를린에서 리터의 주도하에 베를린지리협회(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가 설립되면서부터 근대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870년대 이후부터는 지리학의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 졌다(권정화, 2005). 이러한 학문적 발전은 지리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850년대까지도 일반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역사를 보완하는 교과목이었던 지리학은 1874년에 이르러 모든 국립대학에 지리학 강좌가 설치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국토 교육으로서의 지리학은 수많은 지역연구 또는 국토연구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현재까지

약 200여 년의 국토 교육 역량이 축적되었다(권용우·안영진, 2001).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중앙 정부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주정부가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갖고 운영한다. 그러나 각 주들은 교육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 교육부 장관 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큰 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박선미, 2004). 독일의 교육체계는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기초학교(Grundschule), 전기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 후기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상급반과 직업계 학교인 콜렉슐레(Kollegschule)로 이루어져 있다(정영근, 1997). 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지리교육은 초등교육(1-4학년)에서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과학이 통합된 사물학습이란 교과가 주당 3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리는 전기 중등교육의 시작인 5학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5학년에서 주당 2시간, 6학년에서 주당 3시간, 7-8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학습한다. 튀링겐의 경우 5-6학년 모두 주당 2시간, 7-10학년에서 1시간씩 학습한다(박선미, 2004).

독일은 지리교육에서 세계화 시대에 지리적 경쟁력을 갖춘 인간보다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독일의 지리교육에서 함양하고자하는 목적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간 삶의 기초인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김창환, 2001). 이에 따라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제4단계(11, 12/13학년)에서는 지리적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핵심 과제의 파악 및 표현,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일관된 교육 관점에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록 교육하고 있다. 즉 기초 및 중등학교 단계의 모든 교육과정 기간 동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지리학의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독일의 지리교육의 내용체계는 5-9학년까지는 지역지리 중심으로 구성하고, 10학년에서는 주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박선미, 2004). 5학년에서는 인간 삶의 공간으로써 지구에 대한 지식과 상이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학습하고, 독일의 생활공간과 경제공간에 대하여 학습한다. 6학년에서는 유럽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럽을 중부, 서부, 북부, 남부, 동부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내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학습한다. 이처럼 2차 지역을 분절적으로 학습한 이후에 유럽의 기후와 식물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종합하도록 한다. 7학년에서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대륙의 기후와 식물, 일반적 특징 등의 지역성을 학습한다. 8학년에서는 아시아 대륙의 지질학적 특징을 학습하고, 아시아 대륙의 공간 및 자연 환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2차 구분하여 학습한다. 9학년에서는 아메리카 대륙과 러시아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특히 남북문제를 강조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조적 차이 및 세계적인 노동분화 형태와 그 영향을 학습한다(박선미, 2004).

## 2) 프랑스의 지리교육

근대지리학을 태동시킨 프랑스 지리학은 인간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표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고유한 영역으로 포괄함으로써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문남철, 2005).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서의 지리교육은 1870년 이후 정립되었다. 프랑스는 1870년 독일에 패배한 일을 계기로 교육, 정치, 경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개혁 정책 속에서 지리 교육이 강화되었다(권정화, 2012). 현재 프랑스에서 지리교육은 초등학교(5년) 3학년부터 지리를 필수로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모두 10년 동안 필수로 배운다. 크게 보자면 초등학교 3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모두 계통지리, 세계지리, 프랑스지리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구성이 반복·심화되는데, 이는 유럽 근대 지리교육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균, 2010).

프랑스 지리교육의 목표는 국토애를 함양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으며, 지리교육의 방향도 기본적으로 자국의 국토애와 세계 여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박선미, 2004). 이와 같은 지리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급별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지리학습의 기초 능력을 성취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3-5학년에서는 지리적 탐구 기능 중 다양한 축척의 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중학교 지리학습에서는 다양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이상균·정프랑수와 페민느, 2014).

프랑스의 지리교육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3년(3-5세반)은 초보학습과정이고, 유치원 5세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학습과정이며, 초등학교 3, 4, 5학년은 심화학습과정이다. 초보와 기초학습과정에서는 세계의 발견이라는 교과를 통하여 지리학습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고, 심화학습과정에서는 역사/지리, 시민교육의 교과를 통하여 지리적 탐구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박선미, 2004).

중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는 세계지리(인구, 취약), 2학년은 지속가능한 개발, 3학년은 세계화, 4학년은 유럽속의 프랑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지속가능한 개발, 2학년 세계화, 3학년 유럽 속의 프랑스로 구성되어 있다(권정화, 2012).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상의 대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관과 영토, 지구상에서 인간은 어디에 분포하는가?, 도시에 살기, 촌락에 살기, 해안가에 살기, 극지에 살기 등 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은 인류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 불균등하게 개발된 사회, 인간과 자원 등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의 경우 주제는 세계화에 대한 접근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교류, 세계화 속의 영토, 세계화의 문제 등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은 오늘날 세계 속에서의 프랑스와 유럽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에 살기, 프랑스의 국토개발, 프랑스와 유럽연합, 프랑스 및 EU의 세계적인 역할 등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문남철, 2002, 권정화, 2012 재인용).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제로 인구부양, 에너지, 불평등한 발전, 위험에 직면한 사회 등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은 세계화 속에서의 영토들이 주제이며, 세계화의 행위자, 흐름, 망, 세계화와 문화적 다양성, 힘의 축과 영역, 주변의 역동성 등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주제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프랑스로서 유럽연합과 세계 속에서의 프랑스, 프랑스 국토개발의 행위자 및 쟁점, 생산 및 의사결정 공간의 변화, 인구의 이동, 본토와 해외영토 사이의 이주, 유럽연합과 그 영역 등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지리교육의 목적은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 함양으로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문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권정화, 2012).

### 3) 영국의 지리교육

19세기 초 영국의 선구자적인 지리학자들은 주로 자연환경과 기후 등에 관심을 가지며, 지구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조직화하고 조화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지리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의 지리교육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영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지리학이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목이라 인식되었고, 교육 또한 비전공자들이 담당하며 지명과 산물을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했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개됨에 따라 영국에서의 지리학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지리학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권정화, 2012).

영국의 교육제도는 전통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였으나, 1990년대 초, 중반 이후로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가 교육 내용을 결정하여 지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처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8년(중등은 2008년, 초등은 2011년부터 시행)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2014년 개정까지 네 번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마지막 개정인 2014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지리교육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지리교육은 지리적 문제 해결능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박선미, 2004).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14년 개정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 받은 시민이 되기 위한 본질적 지식의 습득과 학생들에게 지식과 이해, 기능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지식의 전달이라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심승희·권정화, 2013). 즉, 2014년 교육과정의 핵심요지는 본질적 지식과 핵심지식의 제공이다.

지리교육에 있어 2014년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교과가 초 등단계인 Key Stage 1~2에서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이해라는 통합 학습회과 형태이었던 것이 2014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독립교과 형태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심승희·권정화, 2013).

또한 학습내용상에 있어서도 핵심지식 위주로 지리교육 내용이 단순·명료화 되었다. 2000년과 2008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지리학의 전통적 개념이나 주제보다 지리적 탐구나 지리적 의사소통 같은 기능 교육뿐 아니라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적 이해와 다양성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가치내재적인 통합적 주제들이 강조되고 있었다(조철기, 2012).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본질적 지식과 핵심지식의 전달이라는 핵심요지에 따라 주요 학습내용은 위치 지식, 장소 지식, 인문 및 자연지리, 지리적 기능과 현장 답사의 4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기능영역은 1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식 영역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위치 및 장소지식이 강조되었다(심승희·권정화, 2013).

Key Stage 1에서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영국내 한 지역과 대조적인 특징을 가진 비유럽국의 한 지역을 통해 인문 및 자연지리적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ey Stage 1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과 범위는 패턴과 위치 알기, 즉 사실적 현상(사실적 지식)의 인식이라는 단순한 인지적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지식에 해당하는 기초 지리 어휘를 학습하는 활동이 병행된다. Key Stage 2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과 범위는 핵심적인 (지리적) 특징을 묘사하고 이해하기로서 사실적 현상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활동으로 심화된다. Key Stage 3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에 기반한 사례를 통해 핵심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는 지리적 현상을 과학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으로 제시

된 지리적 주제들의 핵심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의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로 동일한 학습내용이 단계별로 심화 확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권정화, 2012).

#### 4) 미국의 지리교육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리교과가 통합사회과로 운영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K-6학년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대상인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동심원적 지평확대 방법에 따라 지리, 역사, 정치·경제를 통합하여 학습하고, 7-8학년은 미국사와 뉴욕사, 9학년은 세계사, 10학년은 세계사와 세계지리, 11학년은 미국사와 미국정부, 12학년은 정치와 경제를 학습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K-3학년까지 역사학습의 기초가 되는 현재와 과거, 시간과 공간, 차이, 연속성과 변화라는 대개념을 학습하고, 4학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와 지리, 5학년과 8학년, 11학년에서는 미국사와 미국지리, 6학년과 7학년, 10학년에서는 세계사와 세계지리를 학습한다. 그리고 12학년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와 경제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박선미, 2004).

미국 지리교육의 목적은 영국과 동일한 지리적 문제 해결능력 제고에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많은 젊은이가 최소한의 지리적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지리적 무능력은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기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자각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리적 능력에 대한 요구는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따라 지리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리적 지식과 기능에 기초하여 공간적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적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의사결정하거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교육의 목적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했다(장영진, 2004).

미국 지리교육의 학급별 학습목표는 초등학교 지리교육은 장소의 특징을 지도와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으며 특정 장소나 지역, 대륙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역 간 자연·인문·문화적 특징을 확인하고 비교하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적응과 개조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이간용, 2011). 중학교에서는 지리교육은 인간·장소·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나타내고,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리적 표현물의 특징 및 기능을 이해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며, 인간과 장소가 특정 지점에 입지한 이유를 조사하고, 그 지역의 인간, 환경, 장소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있다(류재명, 2001). 고등학교에서는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지리적 표현물을 이용하여 지리적 문제 제기과 지표면의 자연적 특징의 기술, 자연적 과정과 인간 활동에 의한 끊임없는 지구의 재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인구의 특징·분포·이주와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종교 체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도록 한다(박선미, 2004).

미국 지리교육의 내용체계는 주제중심의 계통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별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선미, 2004). 첫째, 공간 개념에서의 세계라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장소의 자연적 특징, 사상 등을 지도와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고, 위도와 경도 개념을 가지고 대륙, 주요 국가, 자기가 사는 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학생은 인간·장소·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도화하고, 고등학생은 지리적 쟁점·문제·질문을 지도와 여러 지리적 표현물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소와 지역이라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다양한 장소와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자연을 이용하는지를 학습하고, 중학생은 입지요인과 입지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고등학생은 기술 변화가 장소, 지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문 체계와 자연 체계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학습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지리교육은 통합 사회과 교육과

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5) 러시아의 지리교육

러시아의 교육 제도의 근간은 구소련에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계승국으로 구소련 시절의 교육 제도의 장점 및 큰 틀을 계승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최진석, 2015). 러시아의 교육과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1992년에 초안으로 제시된 ‘교육법’ 및 ‘교육부령’에 기초하고 있다. 1998년 교육과정은 연방적 요소를 기초로 민족적, 지역적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허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기본교육과정은 불변 부분의 연방교육과 가변부분의 민족-지역교육 및 학교교육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초·중등 과정이 한 학교에 병합된 1학년~11학년제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11년간 동일학교에 재학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명을 ‘모스크바 1086학교’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각 학교는 수업 단계와 수업 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즉 초등학교는 수업 단계가 제1수준, 수업 연한은 3년~4년이고, 중학교는 수업 단계가 제2수준, 수업 연한이 5년이며, 고등학교는 수업 단계가 제3수준, 수업 연한은 2년~3년이다(외교부 홈페이지). 러시아의 일반교육기관의 기본의무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1-3학년 혹은 1-4학년으로 4년제의 1학년은 초등학교 준비과정에 해당하며 이는 부모 또는 교사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오만석·신효숙, 2004). 중학교는 5-9학년, 고등학교는 10-11학년으로, 9학년에 치

르는 국가 졸업 시험의 결과에 따라 중급의무교육기관에서 공부할지 중급전문교육기관에서 공부할지가 결정된다(최진석, 2015).

지리교육은 중학교 5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는데 1주당 시간 수가 5학년에 2시간, 6, 7학년에 4시간씩, 8학년에 5시간, 9학년에 6시간을 공부한다. 이는 수학(5-5-5-5)과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과학의 생물, 물리, 화학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가면 10, 11학년에 각각 지리가 5-5시간, 수학이 4-4시간, 자연과학이 6-6으로 매우 비중 있는 과목으로서 교육되고 있다(오만석·신효숙, 2004).

러시아의 지리교육은 ‘땅’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중시하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지리학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지리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2016년 현재 17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sup>18)</sup>(모스크바국립대학교 지리대학 홈페이지). 러시아의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리학은 주로 자연지리학이 발달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사회지리학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문지리학을 중심으로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역연구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 6) 중국의 지리교육

중국의 대학 과정에서 ‘중국지리’라는 과목이 처음 개설된 것은 1930-40년대 북경사범대학의 黃國璋 교수에 의해서였다(권용우 외, 2012). 이후 중국의 지리학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

---

18) 지질학 및 광산의 지구 화학과, 지질학 및 석유와 가스의 지구 화학과, 수문학, 공학 및 생태 생물학과, 지질 및 지음향학과, 지표면 탐사법 및 지구물리학과, 동적 지질학과, 암석 및 해양지질학과, 지구화학, 암석학과, 결정학 및 크리스탈 화학학과, 광물학과, 지역 지질학 및 지구 사학과, 러시아 지질학과, 고생물학과, 영구동토층 및 빙하학 등 17개 학과임.

요한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중국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지리 과목을 공부한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과정 설치,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정 표준이라 한다. 교육과정 설치에는 전체 목표, 국가 교육과정의 개설 요구 및 보충 내용 등이 주가 되고, 과정 표준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지리교육은 시민적 자질, 애국심,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지구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심광택, 2012). 또한 중국은 지리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지구와 지도, 세계지리, 중국지리, 향토지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과 발전 문제를 이해한다. 지리적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지리 학습능력을 기른다. 지리는 학생들이 지리과학적, 인문적 기본 소양을 갖도록 하며, 애국심을 길러주고 세계시민 의식과 지속가능발전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심광택, 2012).

중국의 지리교육과정의 기본 이념은 생활에 유용한 지리, 평생 발전에 유용한 지리, 지리 학습방식의 개선, 개방형 지리 과정, 현대 정보기술에 기초한 지리 과정, 학습 결과와 학습 과정을 함께 강조하는 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이와 같은 기본이념은 교과서 수준에서 지리를 배우는 이유는 보다 훌륭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이며, 지리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대자연의 벗으로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지리교육 내용은 기초성, 개괄성, 실용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중국 지리의 자연자원 부분에서 각 종류별 자연 자원의 계통적 나열을 반복하지 않고 수자원과 토지 자원만 제시했다(강창숙, 2012).

## 7) 일본의 지리교육

일본에서는 1947년에 선포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사회과가 성립되었고, 사회과에 공민(公民)<sup>19)</sup>, 역사, 지리가 존재해 왔으며,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보영·조철기, 2005). 일본 교육과정은 1951년판 학습지도요령을 시작으로 그 후 1955년, 1958년, 1968년, 1977년, 1989년, 1998년 개정되었다. 특히 199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초등학교에서는 통합 사회과로 운영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라는 교과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박선미, 2004). 학년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의 생활, 국토의 모습,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학습하고, 중학교 1학년은 지리, 2학년은 역사, 3학년은 공민을 학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가 폐지되고 지리·역사과와 공민과로 분과되어 있다.

일본에서 지리교육의 목적은 국토관 정립과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이해 능력 함양에 두고 있다(이보영·조철기, 2005). 즉, 지리교육은 세계화, 정보화,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로서 일본과 세계를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 및 태도, 일본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 국제 협력의 정신 및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선미, 2004).

초등학교 3-4학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지리교육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산업을 이해하고 지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5-6학년에서는 국토 모습에 대하여 이해하고 일본과 관계가 깊은 나라 및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

---

19) 일본의 공민교과서는 일본의 일반사회교과서를 의미함.

할 등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서 국토애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일본과 세계의 지리적 사상의 위치 및 관계를 파악하고, 국토의 지역적 특색을 고찰하며 지역을 보는 관점과 지역 조사 방법을 체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으로 이루어진 일본과 세계의 여러 지역을 특수성과 공통성의 관점에서 비교하도록 한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 A와 지리 B의 목표를 보면 지리 A가 현대 세계의 지리적 체계 과제를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리 B는 현대 세계의 지리적 체계 사상을 계통적, 지지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대 세계에서의 지리적 인식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에 주체적으로 사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박선미, 2004).

일본 지리교육의 내용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에서 3학년과 4학년 사회 내용을 다양한 규모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규모별 지역을 이해하도록 내용과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5학년은 산업과 국토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6학년은 다른 문화 이해의 중요성, 세계에서 수행하는 일본의 역할, 일본과 관계 깊은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에서는 세계와 일본의 지역 구성, 지역 규모에 따른 조사, 세계와 비교하여 본 일본이라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 지리 A는 현대 세계의 특색과 지리적 기능, 지역성의 입장에서 본 현대 세계의 과제라는 두 개의 단원, 지리 B는 현대 세계의 계통적 고찰, 현대 세계의 지지적 고찰, 현대 세계의 체계 과제와 지리적 고찰의 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선미, 2004).

## 8) 한국의 지리 교육

한국의 지리학은 고대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졌고 조선시대의 지리학은 상당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의 전통지리학은 온전히 계승되지 못했다. 1945년 해방이후 본격적인 한국의 지리학은 서구의 지리학을 도입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바른 국토관을 확립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대학교에 지리교육과와 지리학과를 신설하여 올바른 지리교육을 위한 지리 교사를 양성하게 된다.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은 1871년 보불전쟁 이후 지리교육을 통해 국가의 이념 강화와 전파에 주력했다. 또한 지리학은 세계교역과 국가발전의 경제적, 정치적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리학은 곧 국가의 통일과 경제력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중심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교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1874년 프로이센 정부 시대에 이르러 모든 국립대학에 지리학 강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권용우·안영진, 2001).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도 1946년 건국대 지리학과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에서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를 신설했다. 2016년 현재는 전국 대학에 9개의 지리학과와 19개의 지리교육과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에 개설된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의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2016년 현재 한국의 대학교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개설 현황

	대학 / 학과	개설연도
1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1946년
2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46년
3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947년
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전공	1951년
5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57년
6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1958년
7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962년
8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1963년
9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1968년
10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1971년
11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971년
12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1972년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1973년
14	신라대학교 지리학과	1973년
15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975년
16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975년
17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975년
18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1978년
19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978년
20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980년
21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980년
22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1980년
23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980년
24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1980년
25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983년
26	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985년
27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989년
28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992년

출처: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서 연구자가 발췌·정리함.

한국의 지리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우선 초등학교의 지리 학습 목표는 3-4학년의 경우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의 특징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한다. 도시와 촌락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또한 주민 자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과 바람직한 자세를 배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 모습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5-6학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연 및 인문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헌법을 통하여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권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우리와 밀접한 동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세계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갖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22).

<표 22> 초등학교 지리교육 내용 체계

3-4학년	5-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살아가는 곳</li> <li>• 달라지는 생활 모습</li> <li>•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기 좋은 우리 국토</li> <li>•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li> <li>•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li> <li>•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li> </ul>

출처: 2014년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및 5-6학년 사회 교과서 중 지리부분의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23> 중학교 지리교육 내용 체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사는 세계</li> <li>•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li> <li>•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li> <li>•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li> <li>•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li> <li>•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li> <li>•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li> <li>•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li> <li>•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li> <li>• 자원의 개발과 이용</li> <li>•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li> <li>• 우리나라의 영토</li> <li>•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li> </ul>

출처: 2014년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사회교과서 중 지리 부분의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중학교의 지리교육은 우리나라와 세계에 대한 자연 및 인문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나를 포함한 사람의 생활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기후와 지형적 환경에 따라 지리적 관점에서 인구, 도시, 문화, 경제의 공통성과 다양성이 나타남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종합적인 지리적 개념과 원리를 국토와 세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 학습 단원은 내가 사는 세계에 관한 단원과 자연재해에 관한 단원, 인구문제에 관한 단원, 세계화에 관한 단원, 환경문제에 관한 단원, 통일 한국에 관한 단원의 총 1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3).

고등학교 한국 지리 과목의 목표는 우리 국토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분석력, 사고력, 창의력,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며, 국토의 지리적 환경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내용의 구성 체계는 국토인식과 국토통일, 지형환경과 생태계, 기후환경의 변화, 거주공간의 변화, 생산과 소비공간의 변화, 지역 조사와 지리정보처리, 다양한 우리국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학습내용의 성취기준은 <표 24>와 같다.

<표 24> 고등학교 한국지리교육 내용 체계

영역	내용요소
국토인식과 국토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li> <li>•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li> <li>• 국토 통일의 당위성</li> <li>•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li> </ul>
지형환경과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 지형과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 과정</li> <li>• 하천 지형과 물 자원</li> <li>• 해안 지형과 경관 특성</li> <li>• 생태계로서 인간과 지형의 관계</li> </ul>
기후환경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li> <li>• 기후 변화와 주민 생활</li> <li>• 자연 재해와 주민 생활</li> <li>•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li> </ul>
거주공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촌락의 변화</li> <li>• 정주 및 도시 체계</li> <li>• 도시의 내부 구조</li> <li>• 대도시권의 형성과 주민 생활</li> <li>•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li> <li>• 도시와 농촌의 여가 공간</li> </ul>
생산과 소비공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의미와 특성</li> <li>• 농업 구조의 변화와 농촌 문제</li> <li>• 공업 입지와 공업 지역의 변화</li> <li>•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li> <li>•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li> <li>•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li> </ul>
지역조사와 지리정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li> <li>• 지역 조사 방법</li> <li>• 지리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방법</li> </ul>
다양한 우리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li> <li>• 각 지역의 구조 변화</li> <li>• 각 지역의 지역 문제와 주민 생활</li> </ul>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문제와 대책</li> <li>• 지역 격차와 공간적 불평등</li> <li>•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li> </ul>

출처: 2014년 현재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의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고등학교 세계 지리 과목의 목표는 세계 각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공존 모색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도 하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 체계는 세계화와 지역 이해, 세계의 다양한 자연 환경,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 경제 활동의 세계화, 갈등과 공존의 세계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학습내용의 성취기준은 <표 25>와 같다.

<표 25> 고등학교 세계지리교육 내용 체계

영역	내용요소
세계화와 지역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인식의 시·공간적 차이</li> <li>• 세계화와 지역화</li> <li>• 지리 정보 수집과 지리 정보 체계</li> <li>• 세계의 지역 구분</li> </ul>
세계의 다양한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대 우림과 사바나 기후 지역</li> <li>• 온대 기후 지역</li> <li>• 건조 기후와 건조 지형</li> <li>• 냉·한대 기후와 빙하 지형</li> <li>• 세계의 주요 대지형</li> <li>• 세계의 하천 및 해안 지형</li> </ul>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민족과 언어</li> <li>• 세계의 종교 문화</li> <li>• 세계의 음식 문화</li> <li>• 세계의 축제 문화</li> </ul>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성장과 인구 문제</li> <li>•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li> <li>• 도시화와 도시 구조</li> <li>• 세계화와 세계 도시</li> </ul>
경제 활동의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주요 에너지 자원</li> <li>• 세계의 농업과 목축업</li> <li>• 세계의 공업 활동과 변화</li> <li>• 다국적 기업과 발달과 국제적 분업</li> <li>• 정보 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li> </ul>
갈등과 공존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영역과 자원 분쟁</li> <li>• 세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li> <li>•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환경 문제</li> </ul>

출처: 2014년 현재 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서 목차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 Ⅲ. 8개국별 지리교과서 분석

#### 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 분석

##### 1)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독일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우선 지역지리학의 분량을 살펴보면, 독일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117페이지 1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독일을 제외한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이 530페이지 8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대륙의 지리에 관한 내용들이 독일 자국의 국토에 관한 내용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195페이지 30.2%로 인문지리학 442페이지 68.3%보다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학 및 GIS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법론 부분은 10페이지 1.5%를 나타내고 있다.

<표 26>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독일	117	18.1
	독일 외 세계 대륙 <sup>20)</sup>	<b>530</b>	<b>81.9</b>
계		647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195	30.2
	인문지리학	<b>442</b>	<b>68.3</b>
	방법론 <sup>21)</sup>	10	1.5
계		647	100

출처: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3)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0) 본 논문에서는 자국의 내용을 국내지리, 자국 외 세계 대륙을 세계지리로 명명함.

21) 방법론은 계통지리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비중을 나타냄.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27>과 같다. 대륙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세계대륙에 걸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계 대륙 부분이 362페이지 55.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각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52페이지의 8.0%, 유럽 38페이지 5.9%, 아프리카 32페이지 4.9%, 북아메리카 21페이지 3.3%,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3페이지 2.0%, 남아메리카 12페이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세계대륙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그림 2).

<표 27>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독일	117	18.1
세계 지역 공통 <sup>22)</sup>	<b>362</b>	<b>55.9</b>
유럽	38	5.9
아시아	52	8.0
아프리카	32	4.9
북아메리카	21	3.3
남아메리카	12	1.9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3	2.0
전체합계	647	100

출처: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3)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2) 세계 지역 공통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등의 전 세계 지역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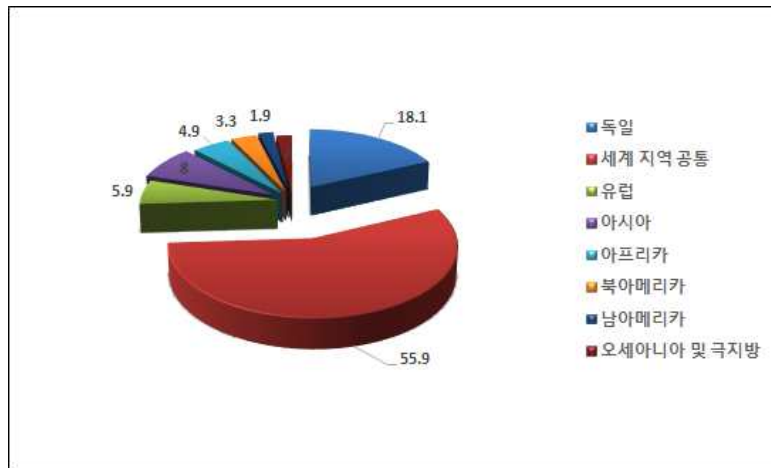


그림 2.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4)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2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28>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기후가 68페이지 10.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자원 54페이지 8.4%, 수문 35페이지 5.4%, 지형 26페이지 4.0%, 자연 경관과 토양은 6페이지 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물과 자연지리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가 273페이지 42.2%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며, 도시·촌락이 82페이지 12.7%, 인구 55페이지 8.5%, 정치·사회 21페이지 3.3%의 순으로 구성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적·위치와 교통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방법론은 GIS가 6페이지 0.9%, 지도학이 4페이지 0.6%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 보다는 인문지리학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학 관련 내용 중에서 산업·경제와 도시·촌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6	0.9
	기후	<b>68</b>	<b>10.5</b>
	지형	26	4.0
	토양	6	0.9
	생물	0	0
	수문	35	5.4
	자연환경·자원	54	8.4
	자연지리학 개관 <sup>23)</sup>	0	0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55	8.5
	산업·경제	<b>273</b>	<b>42.2</b>
	정치·사회	21	3.3
	도시·촌락	82	12.7
	교통	0	0
	문화·역사	5	0.8
	인종·언어	2	0.3
	인문지리학 개관 <sup>24)</sup>	4	0.6
	지도학	4	0.6
	GIS	6	0.9
전체합계	647	100	

출처: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4)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3) 자연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지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자연지리학 개관으로 분류함.

24)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지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인문지리학 개관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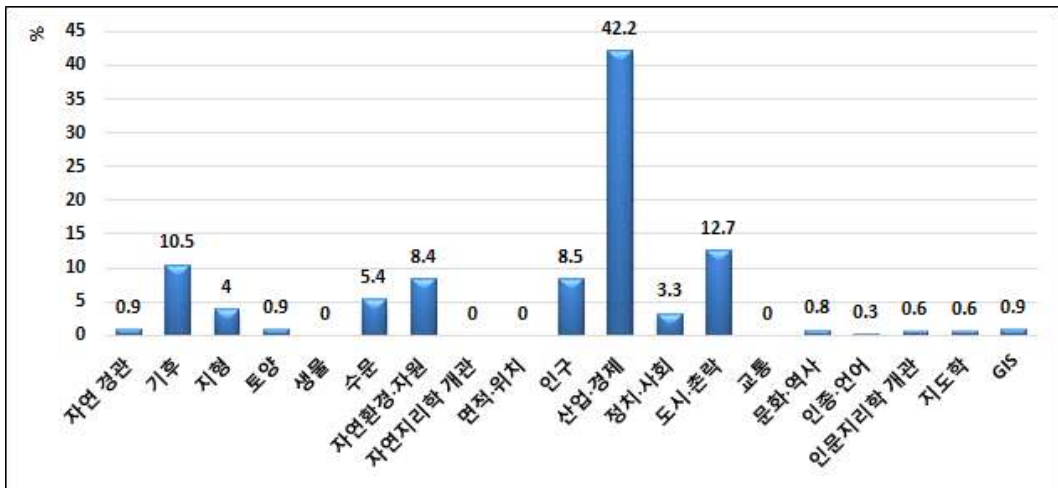


그림 3.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4)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2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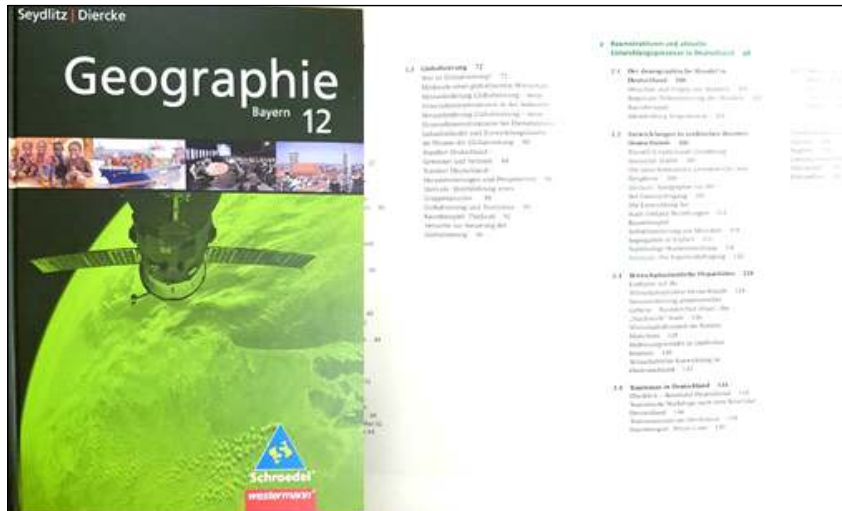


그림 4. Thomas B. 외, 2014, *Geographie 12*, westermann gruppe.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국내 서점에 주문하여 구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 2)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프랑스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우선 지역지리학의 분량을 살펴보면, 프랑스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189페이지 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이 659페이지 7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대륙의 지리에 관한 내용들이 자국의 국토에 관한 내용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191페이지인 22.5%로 인문지리학 621페이지인 73.2%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의 지리학이 인문지리학에 근거를 두고 발전해온 배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방법론은 36페이지 4.3%에 불과하다.

<표 29>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프랑스	189	22.3
	프랑스 외 세계 대륙	<b>659</b>	<b>77.7</b>
계		848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191	22.5
	인문지리학	<b>621</b>	<b>73.2</b>
	방법론	36	4.3
계		848	100

출처: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30>과 같다. 대륙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80페이지 2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시아가 88페이지 10.4%, 아프리카가 52페이지 6.1%, 북아메리카가 44페이지 5.2%,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33페이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특정대륙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262페이지 30.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은 다루지 않고 있다(그림 5).

이와 같이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속해 있는 유럽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도 비중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프랑스	189	22.3
세계 지역 공통	<b>262</b>	<b>30.9</b>
유럽	180	21.2
아시아	88	10.4
아프리카	52	6.1
북아메리카	44	5.2
남아메리카	33	3.9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0	0
전체합계	848	100

출처: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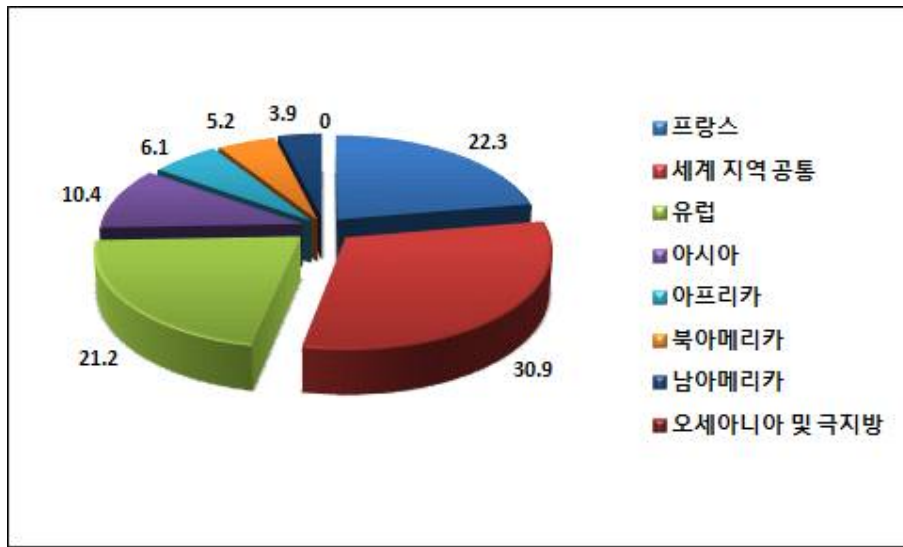


그림 5.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2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31>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지형이 74페이지인 8.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연환경·자원이 43페이지인 5.1%, 수문 37페이지인 4.3%, 자연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30페이지인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양과 생물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정치·사회 분야가 166페이지인 19.6%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문지리학의 주제별로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지리학 개관 부분이 131페이지인 15.5%이며, 도시·촌락이 111페이지인 13.1%, 인구 95페이지인 11.2%, 산업·경제 부분이 92페이지인 10.9%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역사, 인종·언어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6).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 보다는 인문지리학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학 관련 내용 중에서 정치·사회와 도시·촌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4	0.5
	기후	3	0.3
	지형	<b>74</b>	<b>8.7</b>
	토양	0	0
	생물	0	0
	수문	37	4.3
	자연환경·자원	43	5.1
	자연지리학 개관	30	3.5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95	11.2
	산업·경제	92	10.9
	정치·사회	<b>166</b>	<b>19.6</b>
	도시·촌락	111	13.1
	교통	26	3.1
	문화·역사	0	0
	인종·언어	0	0
	인문지리학 개관	131	15.5
	지도학	36	4.2
	GIS	0	0
전체 합계		848	100

출처: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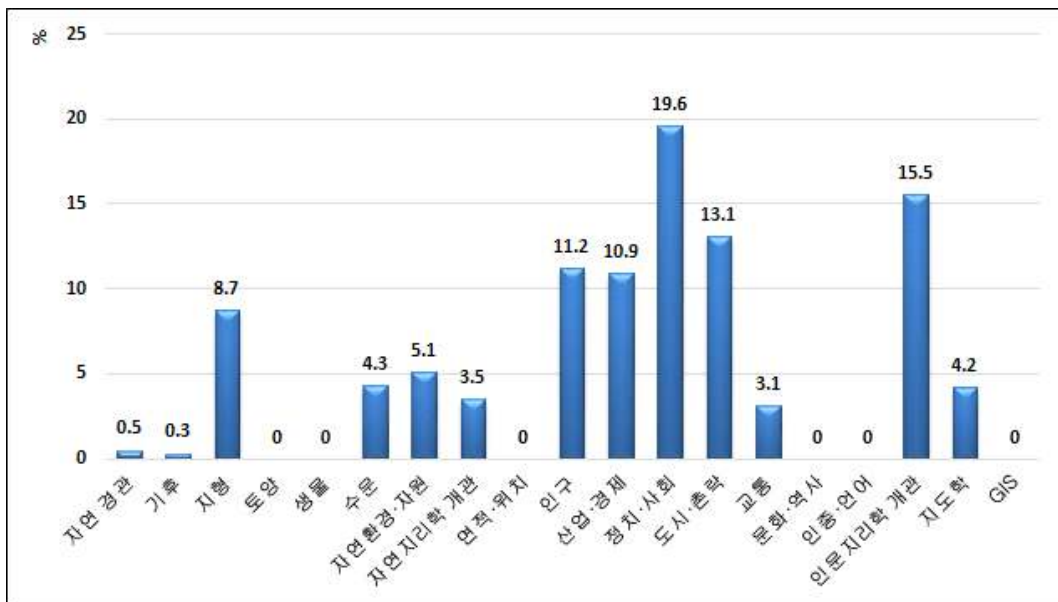


그림 6. 프랑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7)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27>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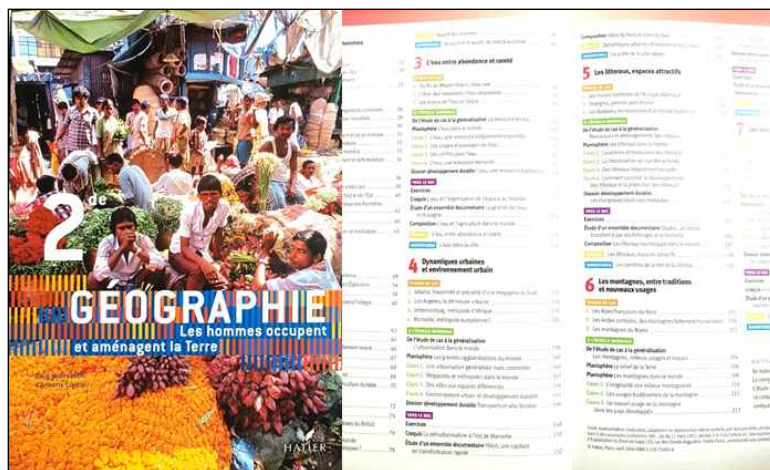


그림 7. Pascal B. 외, 2009, *GÉOGRAPHIE Les hommes occupent et aménagent la Terre*, HATIER.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프랑스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www.Eyrolles.com](http://www.Eyrolles.com)을 통해 구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 3)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영국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우선 지역지리학의 분량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국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75페이지인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세계 대륙의 내용이 655페이지인 8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대륙에 관한 지리 내용을 중심으로 지리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339페이지인 46.4%, 인문지리학이 391페이지인 53.6%로 거의 비슷한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영국의 경우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방법론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영국	75	10.3
	영국 외 세계 대륙	<b>655</b>	<b>89.7</b>
계		730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339	46.4
	인문지리학	<b>391</b>	<b>53.6</b>
	방법론	0	0
계		730	100

출처: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33>과 같다. 영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대륙별로 구분지어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세계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전체 730페이지 중 647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표 33>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영국	75	10.3
세계 지역 공통	<b>647</b>	<b>88.6</b>
유럽	8	1.1
아시아	0	0
아프리카	0	0
북아메리카	0	0
남아메리카	0	0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0	0
전체 합계	730	100

출처: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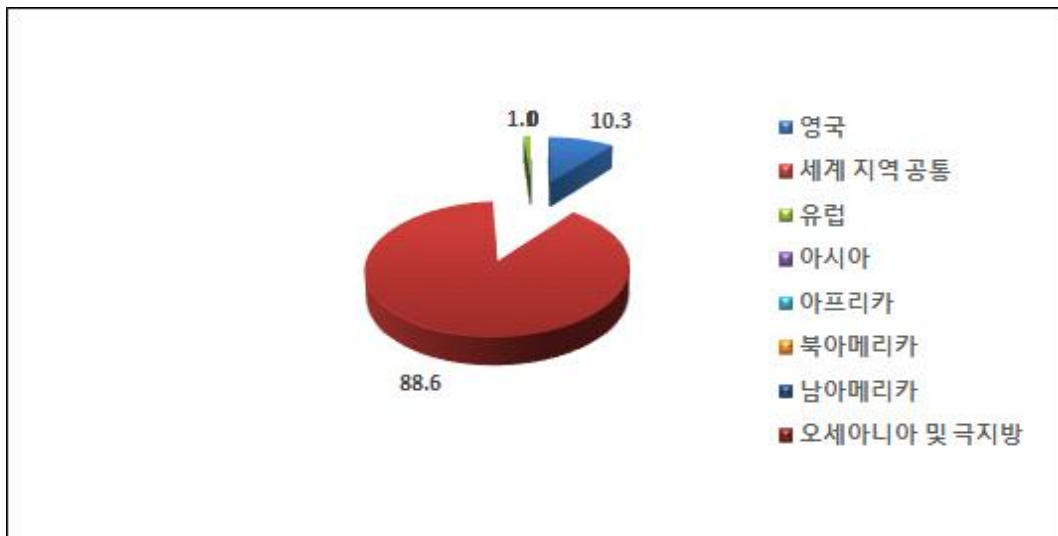


그림 8.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2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34>와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자연환경·자원이 113페이지인 15.5%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기후 89페이지 12.2%, 지형 56페이지 7.8%, 생물과 수문이 33페이지 4.5%씩, 자연지리학 개관이 8페이지인 1.1%로 나타나 자연환경·자원, 기후와 지형을 중심으로 자연지리학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인문지리학 개관이 117페이지인 1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다음으로 도시·촌락이 108페이지인 14.8%, 산업·경제가 80페이지인 10.9%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비율을 볼 때, 영국에서는 인문지리학의 주제별로 여러 지역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특히 도시·촌락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9).

〈표 34〉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7	0.9
	기후	89	12.2
	지형	56	7.8
	토양	0	0
	생물	33	4.5
	수문	33	4.5
	자연환경·자원	<b>113</b>	<b>15.5</b>
자연지리학 개관		8	1.1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32	4.4
	산업·경제	80	10.9
	정치·사회	33	4.5
	도시·촌락	108	14.8
	교통	2	0.3
	문화·역사	19	2.6
	인종·언어	0	0
	인문지리학 개관	117	16.0
	지도학	0	0
	GIS	0	0
전체 합계		730	100

출처: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련된 지리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지리학에서는 자연환경·자원과 기후,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촌락과 산업·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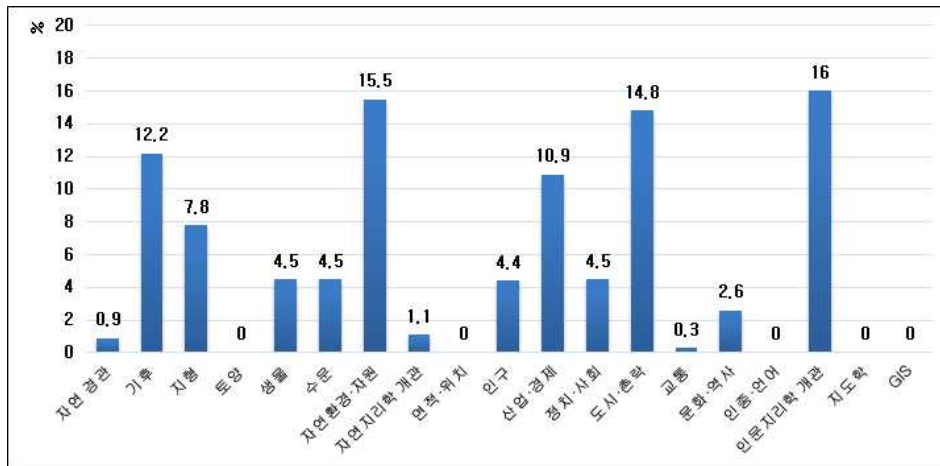


그림 9. 영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0)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0>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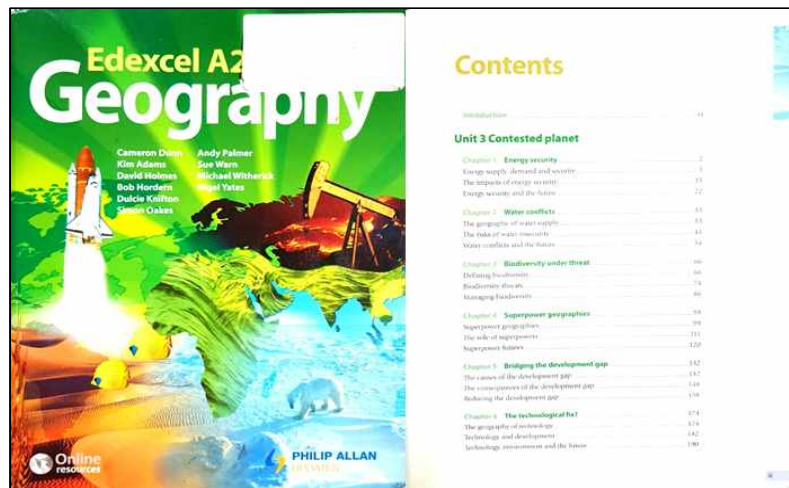


그림 10. Cameron D. 2009, *Edexcel A2 Geography*, PHILIP ALLAN UPDATES.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오산대학교 송희정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 4)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의 비율 분석

미국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70페이지로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이 736페이지인 9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리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349페이지로 43.3%, 인문지리학이 452페이지인 56.1%로 거의 비슷한 구성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밖의 방법론은 5페이지인 0.6%에 불과했다.

<표 35>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미국	70	8.7
	미국 외 세계 대륙	<b>736</b>	<b>91.3</b>
계		806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349	43.3
	인문지리학	<b>452</b>	<b>56.1</b>
	방법론	5	0.6
	계	806	100

출처: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36>과 같다. 미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세계대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각 대륙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자세히 전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륙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152페이지인 18.9%, 아시아가 151페이지 18.7%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109페이지인 13.5%, 유럽이 98페이지인 12.2%,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이 86페이지 10.7%, 북아메리카 39페이지 4.8%의 순으로 구성비율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11).

<표 36>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미국	70	8.7
세계 지역 공통	101	12.5
유럽	98	12.2
아시아	<b>151</b>	<b>18.7</b>
아프리카	<b>152</b>	<b>18.9</b>
북아메리카	39	4.8
남아메리카	109	13.5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86	10.7
전체 합계	806	100

출처: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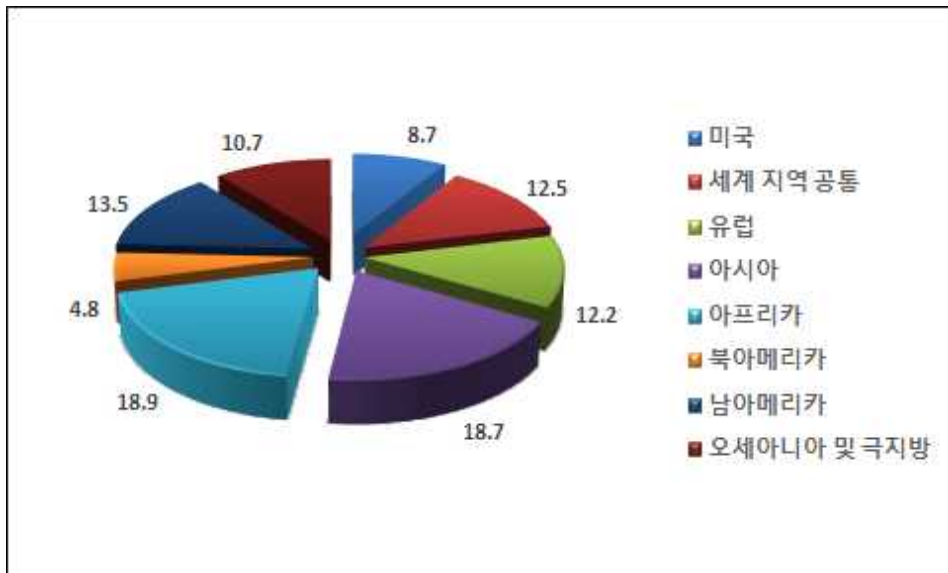


그림 11.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37>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자연지리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264페이지로 32.8%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기 보다는 자연지리학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별로 다룬 부분에서는 지형이 28페이지인 3.5%, 기후와 자연환경·자원이 16페이지인 1.9%의 구성 비율을 보여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도 인문지리학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성 비율이 181페이지 22.5%로 자연지리학과 유사하게 인문지리학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역사가 156페이지 19.4%의 구성 비율을 보여 인문지리학 분야에서는 문화와 역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2).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

과서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련된 지리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서 특정 주제 중심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7>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11	1.3
	기후	16	1.9
	지형	28	3.5
	토양	0	0
	생물	6	0.8
	수문	8	1.0
	자연환경·자원	16	1.9
	자연지리학 개관	<b>264</b>	<b>32.8</b>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6	0.7
	인구	20	2.5
	산업·경제	39	4.9
	정치·사회	42	5.2
	도시·촌락	2	0.3
	교통	0	0
	문화·역사	156	19.4
	인종·언어	6	0.7
	인문지리학 개관	<b>181</b>	<b>22.5</b>
	지도학	0	0
	GIS	5	0.6
전체 합계		806	100

출처: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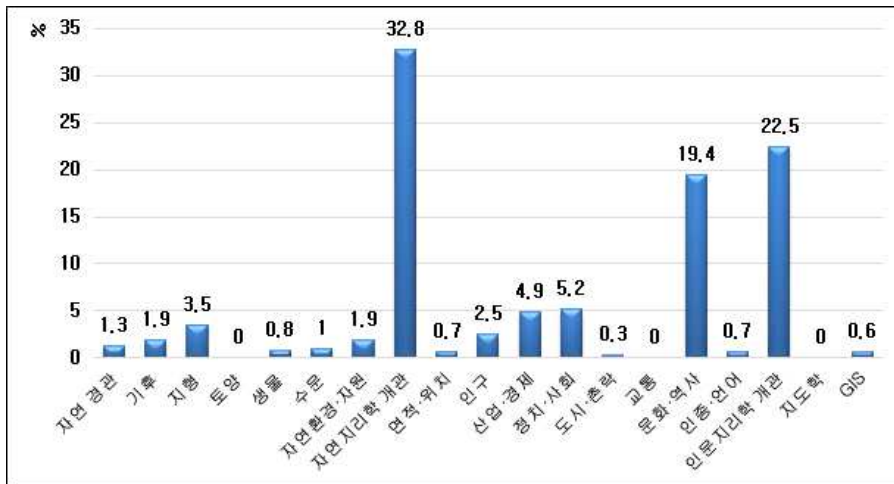


그림 12.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3)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3>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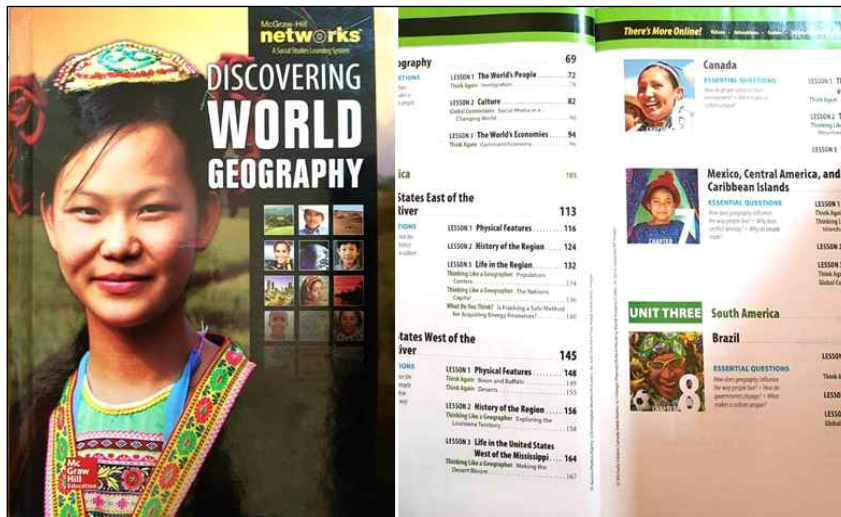


그림 13. Richard G. Boehm, 2014, *DISCOVERING WORLD GEOGRAPHY*, McGraw-Hill.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국내 서점에 주문하여 구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5)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러시아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러시아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507페이지로 5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은 371페이지인 42.2%로,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다르게 자국의 국토에 관한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방법론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361페이지인 41.1%, 인문지리학이 517페이지인 58.9%로 자연지리학보다 인문지리학에 관련된 내용 구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39>와 같다.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세계 대륙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은 비율인 199페이지 22.7%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유럽 44페이지 5.0%, 북아메리카 36페이지 4.1%, 아시아 34페이지 3.9% 순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14).

<표 38>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러시아	<b>507</b>	<b>57.8</b>
	러시아 외 세계 대륙	371	42.2
계		878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361	41.1
	인문지리학	<b>517</b>	<b>58.9</b>
	방법론	0	0
계		878	100

출처: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39>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러시아	507	57.7
세계 지역 공통	199	22.7
유럽	44	5.0
아시아	34	3.9
아프리카	22	2.5
북아메리카	36	4.1
남아메리카	20	2.3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6	1.8
전체 합계	878	100

출처: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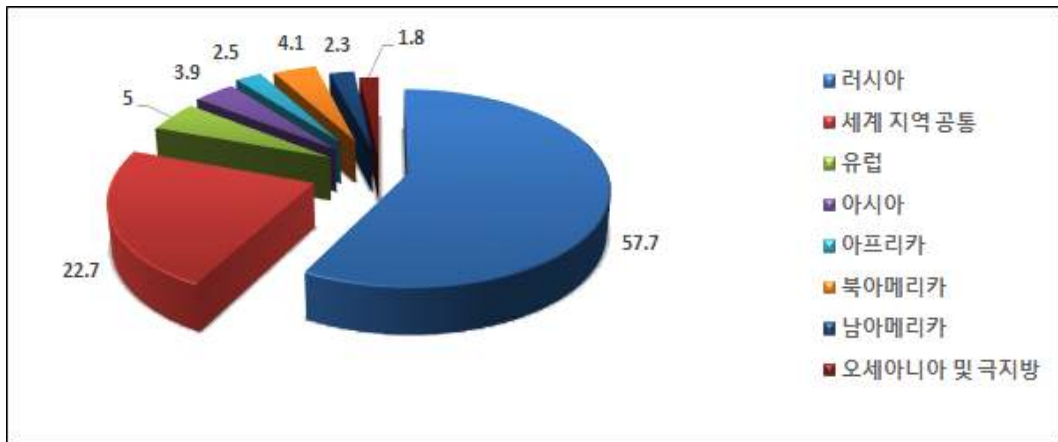


그림 14.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5>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40>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자연지리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195페이지 22.2%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기 보다는 자연지리학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다룬 부분에서는 자연환경·자원이 48페이지 5.5%의 구성 비율을 보여 자연환경·자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주제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가 246페이지인 28.0%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에 관한 내용도 96페이지 10.9%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그림 15).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자연지리학에 관한 부분을 세부 분류에 의해 전개한 것이 아닌 자연 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문지리학에 관련된 지리교육 내용은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0>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26	2.9
	기후	27	3.1
	지형	12	1.3
	토양	25	2.9
	생물	10	1.1
	수문	18	2.1
	자연환경·자원	48	5.5
	자연지리학 개관	<b>195</b>	<b>22.2</b>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60	6.8
	인구	96	10.9
	산업·경제	<b>246</b>	<b>28.0</b>
	정치·사회	47	5.3
	도시·촌락	5	0.6
	교통	24	2.7
	문화·역사	7	1.0
	인종·언어	0	0
	인문지리학 개관	32	3.6
	지도학	0	0
	GIS	0	0
전체 합계		878	100

출처: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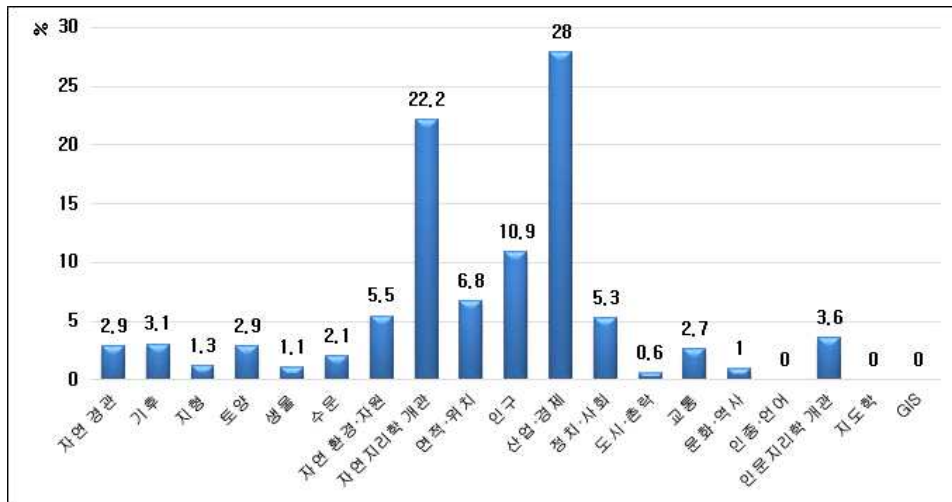


그림 15. 러시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6)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16. Максаковский В. П., 2012, *ГЕОГРАФИЯ*, ПРОСВЕЩЕНИЕ ИЗДАТЕЛЬСТВО.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원불교 원신영 교무님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6)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중국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이외의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이 206페이지인 69.4%로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 91페이지인 30.6%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은, 자연지리학이 100페이지인 33.7%, 인문지리학이 190페이지인 64.0%로 자연지리학에 비해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 관련 내용은 7페이지 2.3%로 나타났다.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42>와 같다. 대륙별로 구성을 살펴보면, 세계 대륙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계 대륙 부분이 185페이지인 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국 국토에 관한 내용이 91페이지 30.6%, 남아메리카 부분이 11페이지 3.7%, 북아메리카 부분이 8페이지 2.7%, 마지막으로 아시아 부분이 2페이지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지리학 부분은 각 대륙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보다는 세계 대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표 41>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중국	91	30.6
	중국 외 세계 대륙	<b>206</b>	<b>69.4</b>
계		297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100	33.7
	인문지리학	<b>190</b>	<b>64.0</b>
	방법론	7	2.3
계		297	100

출처: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42>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중국	91	30.6
세계 지역 공통	<b>185</b>	<b>62.3</b>
유럽	0	0
아시아	2	0.7
아프리카	0	0
북아메리카	8	2.7
남아메리카	11	3.7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0	0
전체 합계	297	100

출처: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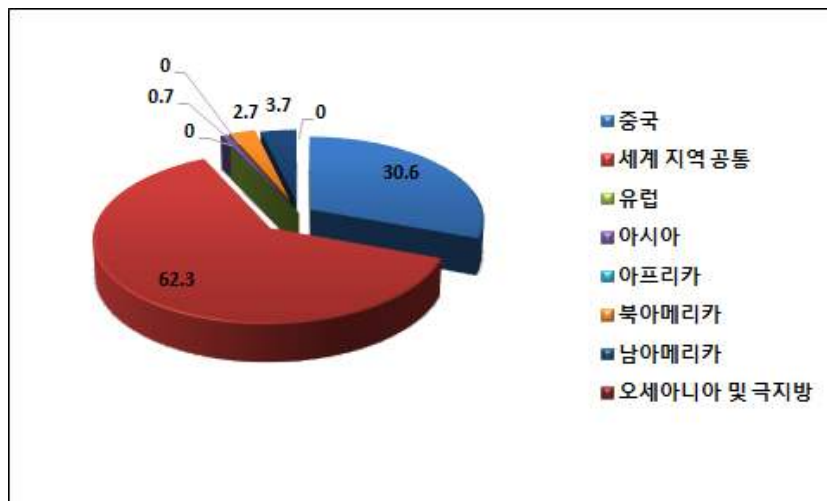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8>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중국 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43>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자연지리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연지리학 개관이 34페이지 11.4%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기후가 26페이지 8.7%, 그리고 지형이 19페이지 6.4%, 수문이 15페이지 5.1%의 구성을 보였다. 그러나 토양과 생물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과 관련된 내용은 산업·경제 부분이 다른 분야에 비해 120페이지인 40.4%로 높은 구성을 보인다. 그 외 도시·촌락 분야나 인문지리학 개관 부분은 각각 24페이지인 8.1%와 18페이지인 6.1%로 낮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인구 분야 역시 5.4%인 16페이지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표 43, 그림 18).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은 종합적으로 다루면서도 기후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0	0
	기후	26	8.7
	지형	19	6.4
	토양	0	0
	생물	0	0
	수문	15	5.1
	자연환경·자원	6	2.0
	자연지리학 개관	34	11.5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16	5.4
	산업·경제	<b>120</b>	<b>40.4</b>
	정치·사회	0	0
	도시·촌락	24	8.1
	교통	12	4.0
	문화·역사	0	0
	인종·언어	0	0
	인문지리학 개관	18	6.1
	지도학	0	0
	GIS	7	2.3
전체 합계		297	100

출처: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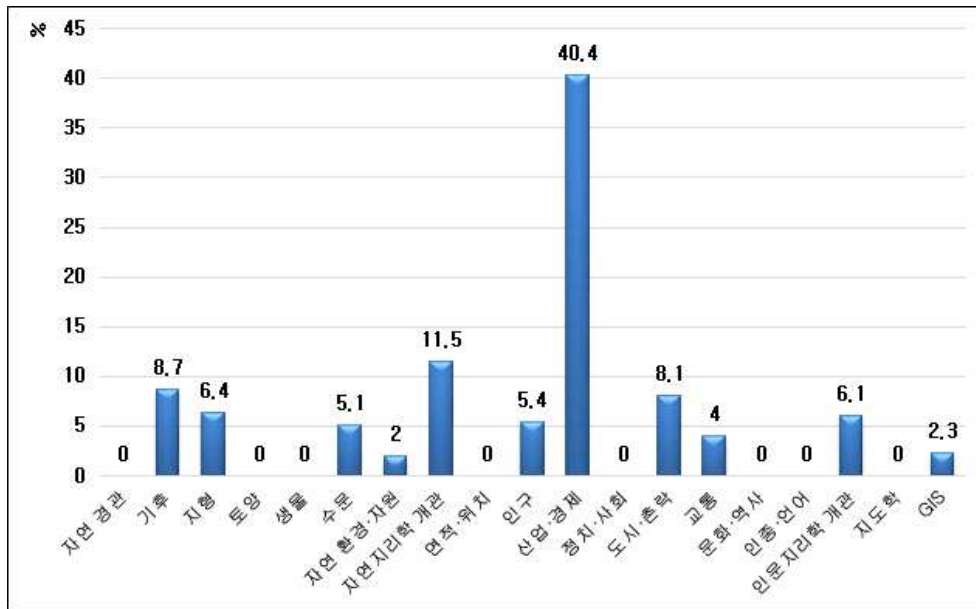


그림 18.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19)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3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19.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地理课程教材研发中心, 2014, 『地理3』, 人民教育出版社. 교과서 표지와 목차.

출처: 성균어학원 이지선 강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 7)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

일본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지리학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은,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륙에 관한 내용이 307페이지인 93.9%로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 20페이지 6.1%에 비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69페이지인 21.1%, 인문지리학이 234페이지인 71.6%로 인문지리학의 내용을 자연지리학의 내용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이 24페이지인 7.3%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45>와 같이 세계대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221페이지인 6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내용이 40페이지인 12.2%, 자국에 대한 내용이 20페이지인 6.1%,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이 16페이지로 4.9%, 북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내용이 10페이지로 3.1%, 남아메리카의 경우는 6페이지 1.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은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지역지리학의 내용 부분을 대륙별이 아닌 세계지역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0).

<표 44>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일본	20	6.1
	일본 외 세계 대륙	<b>307</b>	<b>93.9</b>
계		327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69	21.1
	인문지리학	<b>234</b>	<b>71.6</b>
	방법론	24	7.3
계		327	100

출처: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표 45>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일본	20	6.1
세계 지역 공통	<b>221</b>	<b>67.6</b>
유럽	16	4.9
아시아	40	12.2
아프리카	14	4.3
북아메리카	10	3.1
남아메리카	6	1.8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0	0
전체 합계	327	100

출처: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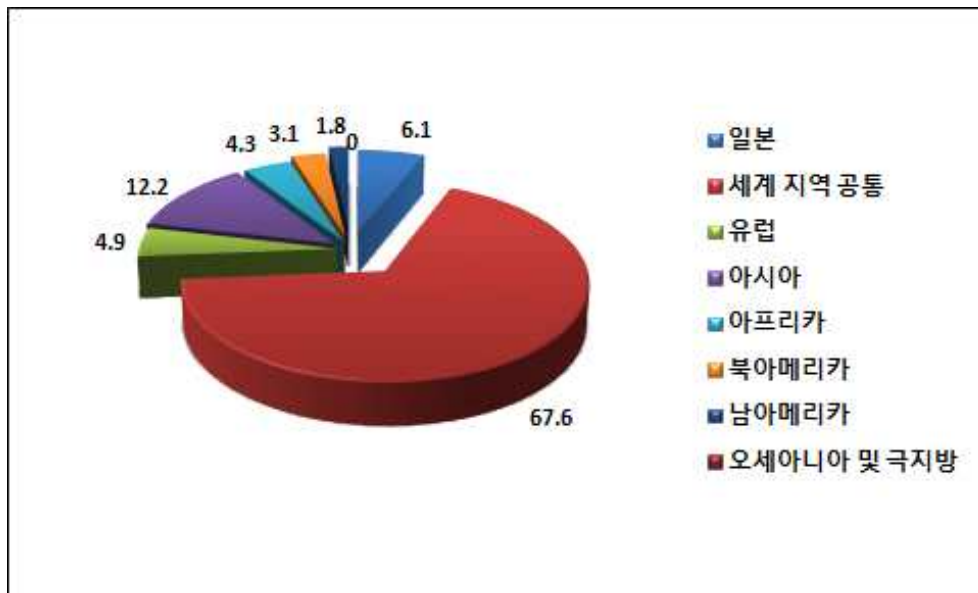


그림 20.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41>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46>과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기후가 30페이지 9.2%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지형이 23페이지 7.0%, 자연환경·자원이 16페이지 4.9%, 자연지리학 개관이 1페이지 0.3%의 순으로 나타나 일본 지리교과서는 기후와 지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인문지리학 개관이 107페이지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경제가 76페이지 23.2%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1).

<표 46>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0	0
	기후	<b>30</b>	<b>9.2</b>
	지형	23	7.0
	토양	0	0
	생물	0	0
	수문	0	0
	자연환경·자원	16	4.9
	자연지리학 개관	1	0.3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10	3.1
	산업·경제	76	23.2
	정치·사회	0	0
	도시·촌락	18	5.5
	교통	0	0
	문화·역사	17	5.2
	인종·언어	6	1.8
	인문지리학 개관	<b>107</b>	<b>32.6</b>
	지도학	15	4.6
	GIS	9	2.6
전체 합계		328	100

출처: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은 기후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인문지리학은 주제별로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지도학의 구성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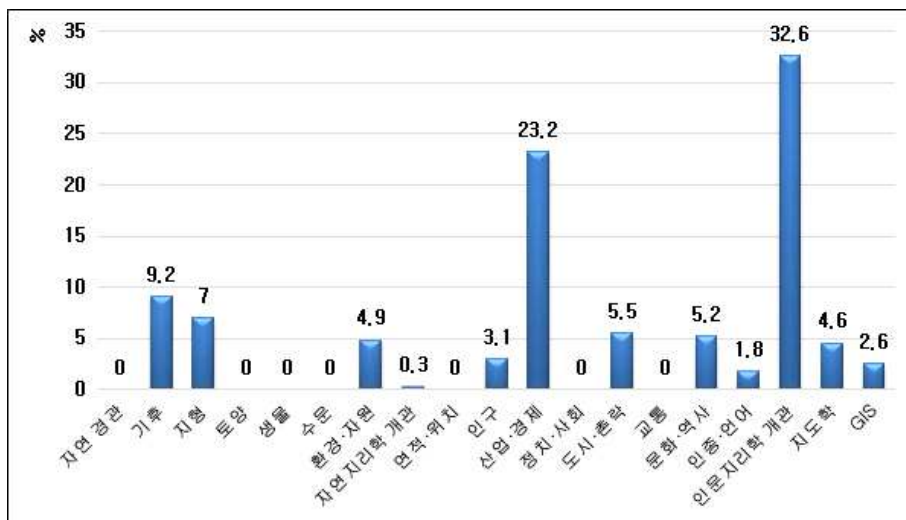


그림 21.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2)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4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22. 金田章裕, 2014, 『地理B』, 東京書籍.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성균어학원 이지션 강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8)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sup>25)</sup>

한국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를 세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국의 영토에 관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55.0%인 320페이지에서, 세계 대륙에 대한 부분은 45.0%인 262페이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계통지리학을 바탕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분야가 184페이지인 31.6%, 인문지리학 분야가 372페이지인 63.9%로 인문지리학이 자연지리학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법론은 26페이지인 4.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

대분류	중분류	페이지 분량	%
지역지리학	한국	<b>320</b>	<b>55.0</b>
	한국 외 세계 대륙	262	45.0
계		582	100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	자연지리학	184	31.6
	인문지리학	<b>372</b>	<b>63.9</b>
	방법론	26	4.5
계		582	100

출처: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5) 한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로 나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각 두 개의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인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분석함.

<표 48>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지역지리학의 소분류	페이지 분량	%
한국	320	55.0
세계 지역 공통	262	45.0
유럽	0	0
아시아	0	0
아프리카	0	0
북아메리카	0	0
남아메리카	0	0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0	0
전체 합계	582	100

출처: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6)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세부 분류에 의한 구성 비율은 <표 48>과 같이 세계대륙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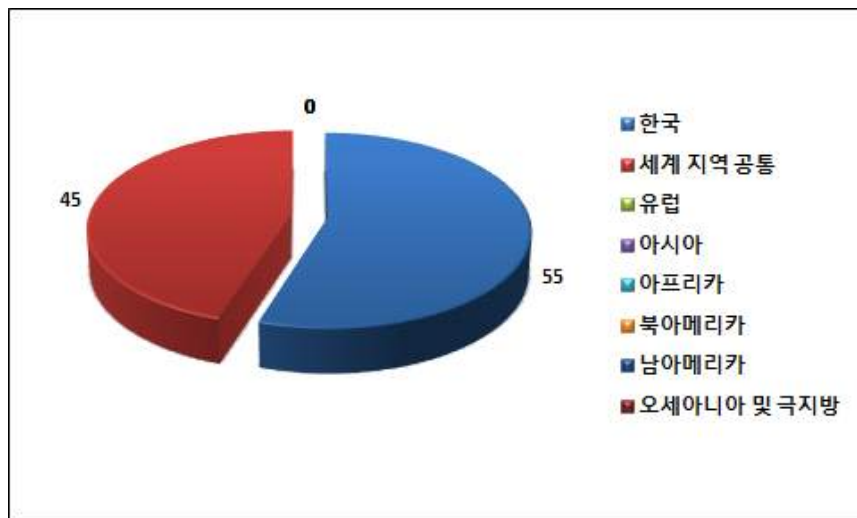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의 지역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4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계통지리학 내용의 구성 비율은 <표 49>와 같다. 자연지리학과 관련하여 기후가 72페이지인 12.4%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형이 58페이지인 10.0%, 자연환경·자원이 26페이지인 4.4%로 나타나 한국의 지리교과서는 기후와 지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과 관련해서는 인문지리학 개관이 142페이지인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경제가 90페이지인 15.5%, 도시·촌락이 52페이지인 8.9%, 문화·역사가 42페이지인 7.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표 49>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계통지리학 분류		페이지 분량	%
자연지리학	자연 경관	0	0
	기후	<b>72</b>	<b>12.4</b>
	지형	58	10.0
	토양	0	0
	생물	0	0
	수문	12	2.1
	자연환경·자원	26	4.4
	자연지리학 개관	16	2.8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면적·위치	0	0
	인구	34	5.9
	산업·경제	90	15.5
	정치·사회	0	0
	도시·촌락	52	8.9
	교통	0	0
	문화·역사	42	7.2
	인종·언어	12	2.1
	인문지리학 개관	<b>142</b>	<b>24.3</b>
	지도학	6	1.0
	GIS	20	3.4
전체 합계		582	100

출처: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 목차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이상과 같이 계통지리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학에서 기후와 지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도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문화·역사에 관한 주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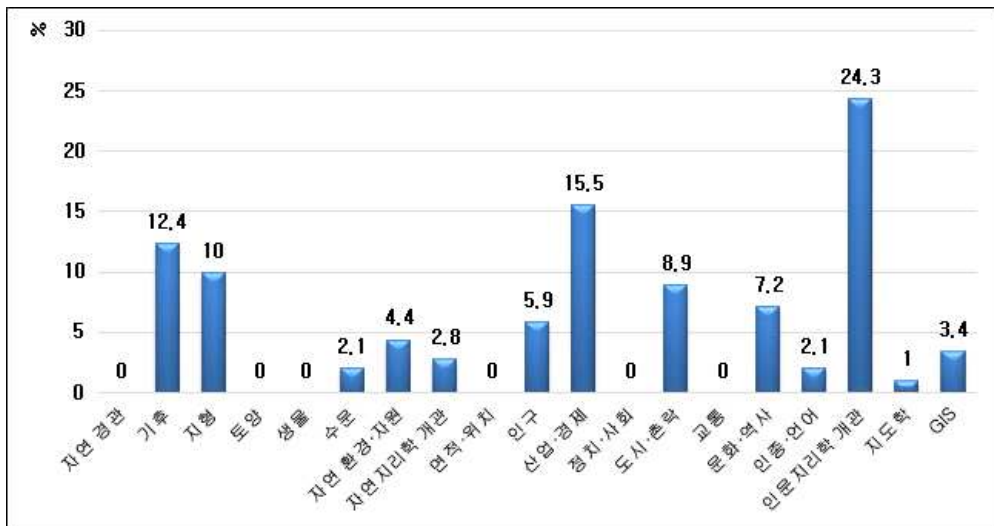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 고등학교 지리교과서(그림 25)의 계통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출처: <표 45>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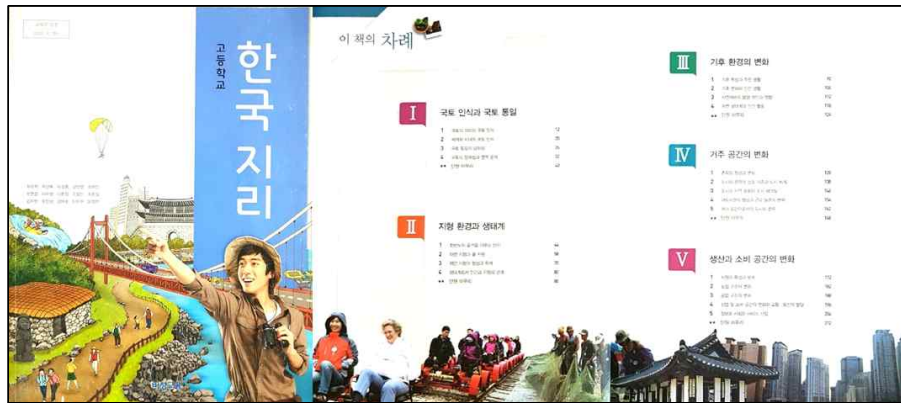


그림 25-1. 최규학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국내 서점에 주문해 구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그림 25-2. 위상복 외,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비상교육. 교과서 표지와 목차의 일부.

출처: 국내 서점에 주문해 구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함.

## 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 비교 분석

### 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비교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8개국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50>과 같다.

전체 분량을 비교해본 결과 러시아가 878페이지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848페이지, 미국 806페이지, 영국 730페이지, 독일 647페이지, 한국 582페이지, 일본 327페이지, 중국 297페이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분량은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유럽지역 및 미국의 교과서 분량이 아시아지역 국가 교과서의 분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비교

구분	전체분량 (page)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국내지리	세계지리	계	자연 지리학	인문 지리학	방법론	계
독일	647	18.1	<b>81.9</b>	100	30.2	<b>68.3</b>	1.5	100
프랑스	848	22.3	<b>77.7</b>	100	22.5	<b>73.2</b>	4.3	100
영국	730	10.3	<b>89.7</b>	100	46.4	<b>53.6</b>	0	100
미국	806	8.7	<b>91.3</b>	100	43.3	<b>56.1</b>	0.6	100
러시아	878	<b>57.8</b>	42.2	100	41.1	<b>58.9</b>	0	100
중국	297	30.6	<b>69.4</b>	100	33.7	<b>64.0</b>	2.3	100
일본	327	6.1	<b>93.9</b>	100	21.1	<b>71.6</b>	7.3	100
한국	582	<b>55.0</b>	45.0	100	31.6	<b>63.9</b>	4.5	100

출처: 3장 1절이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그림 26.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구성 비율 비교

출처: <표 4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국가별 지역지리학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국내지리의 구성 비율이 세계지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리교육의 내용이 세계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또한 국내지리의 구성 비율이 세계지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위의 국가들보다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 세계지리보다는 국내지리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26).

계통지리학에 관련하여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한국은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자연지리학의 내용보다 2배 이상 많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27).



그림 27.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구성 비율 비교

출처: <표 4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각 국가별 세계지리의 내용 구성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각 국가별 세계지리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국가에서는 세계대륙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기 보다는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의 경우 세계지리 내용을 각 대륙별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특정 주제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 각 대륙별로 구분하여 세계지리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 대륙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프랑스를 제외한 각 국가들은 아시아 대륙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구성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는 유럽지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구성 비율이 다른 대륙의 구성 비율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구분	국가별 세계지리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세계 지역 공통	<b>68.3</b>	<b>39.7</b>	<b>99.4</b>	13.7	<b>53.6</b>	<b>89.8</b>	<b>72.0</b>	<b>100</b>
유럽	7.2	27.3	0.6	13.4	11.9	0	5.2	0
아시아	9.8	13.4	0	20.5	9.2	1.0	13.0	0
아프리카	6.0	7.9	0	<b>20.6</b>	5.9	0	4.6	0
북아메리카	3.9	6.7	0	5.3	9.7	3.9	3.3	0
남아메리카	2.3	5.0	0	14.8	5.4	5.3	1.9	0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2.5	0	0	11.7	4.3	0	0	0
세계지리분량 (page)	530	659	655	736	371	206	307	262

출처: 3장 1절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각 국가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남아메리카 대륙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순으로 구성 비율이 나타났는데 오세아니아와 극지방에 대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 유럽 대륙에 대한 내용만 극히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대륙들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리학의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 속해 있는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륙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아시아 대륙은 극히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대륙들은 주제에 따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한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의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그림 28).<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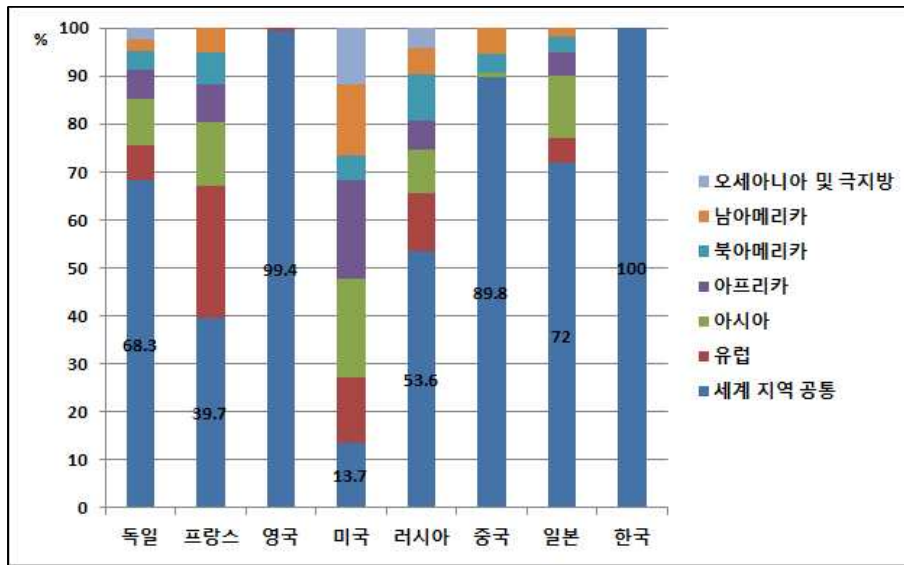


그림 28.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세계지리 내용 구성 비율 비교  
출처: <표 47>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계통지리학 중 자연지리학 내용에 대한 구성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각 국가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독일, 일본, 한국은 기후, 프랑스는 지형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자연환경·자원, 미국, 러시아, 중국은 자연지리학 개관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별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은 각 국가의 면적이나 위치 등 자연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연지리학의 내용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후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구성 비율이 높

26) 한국 세계지리 교과서 목차의 경우, I. 세계화와 지역 이해, II.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III.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IV.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 V. 경제활동의 세계화, VI. 갈등과 공존의 세계 등과 같이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다루고 있음.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형과 자연환경·자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토양과 생물, 수문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중국의 경우는 수문의 구성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연지리학의 내용 구성은 기후, 지형, 자연환경·자원과 같이 자연지리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연환경·자원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구분	국가별 자연지리학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경관	3.1	2.1	2.1	3.2	7.2	0	0	0
기후	<b>34.7</b>	1.6	26.3	4.6	7.5	26	<b>42.9</b>	<b>39.1</b>
지형	13.3	<b>38.8</b>	16.6	8.0	3.3	19	32.9	31.6
토양	3.1	0	0	0	6.9	0	0	0
생물	0	0	9.7	1.7	2.8	0	0	0
수문	18.1	19.4	9.7	2.3	5.0	15	0	6.5
자연환경·자원	27.7	22.4	<b>33.3</b>	4.5	13.3	6.0	22.9	14.1
자연지리학 개관	0	15.7	2.3	<b>75.7</b>	<b>54.0</b>	<b>34.0</b>	1.3	8.7
자연지리학 분량 (page)	195	191	339	349	361	100	70	184

출처: 3장 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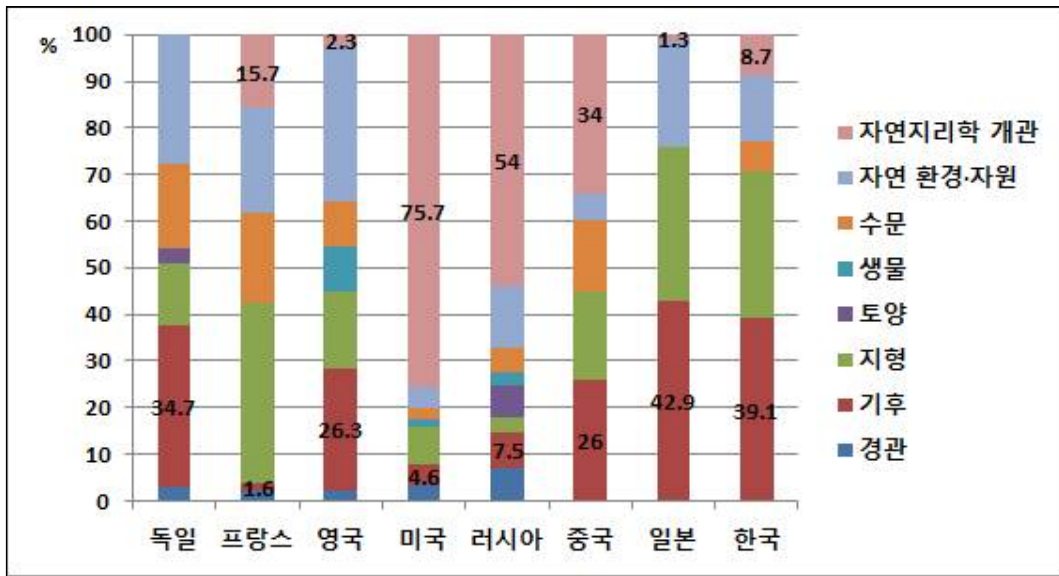


그림 29.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출처: <표 48>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4)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계통지리학 중 인문지리학 내용에 대한 구성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산업 및 경제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경제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정치·사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은 문화·역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산업·경제 다음으로는 도시·촌락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촌락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구분	국가별 인문지리학 구성 비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면적·위치	0	0	0	1.3	11.6	0	0	0
인구	12.2	14.5	8.2	4.4	18.6	8.1	3.9	8.5
산업·경제	<b>60.4</b>	14.0	20.5	8.6	<b>47.6</b>	<b>60.9</b>	29.5	22.6
정치·사회	4.6	<b>25.3</b>	8.4	9.2	9.1	0	0	0
도시·촌락	18.1	16.9	27.6	0.4	1.0	12.2	6.9	13.1
교통	0	3.8	0.5	0	4.6	6.1	0	0
문화·역사	1.1	0	4.9	34.1	1.3	0	6.6	10.6
인종·언어	0.4	0	0	1.3	0	0	2.3	3.0
인문지리학 개관	0.9	20.0	<b>29.9</b>	<b>39.6</b>	6.2	9.1	<b>41.5</b>	<b>35.7</b>
지도학	0.9	5.5	0	0	0	0	5.8	1.5
GIS	1.4	0	0	1.1	0	3.6	3.5	5.0
인문지리학 분량 (page)	452	657	391	457	517	197	258	398

출처: 3장 1절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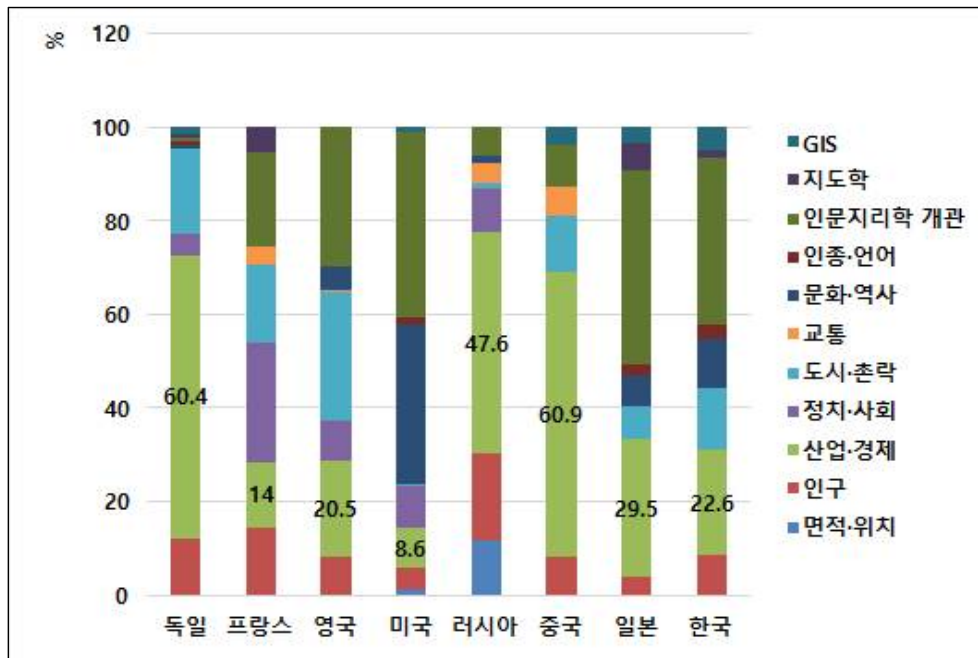


그림 30.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 비율 비교

출처: <표 4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이와는 달리 인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인구에 대한 문제는 교통의 발달, 자원의 배분 및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도 각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인구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적 및 위치, 교통, 인종 및 언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인문지리학에 관한 각 국가별 내용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산업 및 경제, 도시·촌락, 인구 등에 대한 부분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3.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 분석

#### 1) 독일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독일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리 내용이 높은 비중을,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표 50, 그림 27). 지역지리학의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의 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7, 표51, 그림 28).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으로 각각 나누어 분류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기후를 34.7%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자연환경·자원 부분이 27.7%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산업·경제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인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3, 그림 30).

독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부분 중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내용에서 산업·경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독일 산업 혁명의 특징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 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이다. 1834년 18개의 국가로 시작된 관세동맹으로 통일된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1848년 혁명으로 봉건적 토지소유가 폐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35년에 독일 최초의 철도가 개설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석탄, 철강 등을 비롯한 근대 산업 발전을 가져와 독일은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하석용, 2005). 또한 독일은 2000년대 후반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유로존 경제 위기로부터 심화된 세계 불황 사태를 인식하고 이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 기술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제조업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적용하여 지능형 공장 4.0(Industry 4.0)이라는 제조업과 ICT 융합의 새로운 제조혁신 구상으로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혁신 산업이다(황지호 외, 2016). 이러한 독일의 선구적인 산업정책은 그 중요성이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 중 산업·경제 부분이 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시·촌락 부분도 18.1%로 다른 부분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로마가 번성하여 그 영향력이 라인강 유역에까지 이르면서 쾰른 등이 도시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은 하이델베르크, 아우부르크, 뉘른베르크, 함부르크 등과 같은 중세도시가 발달했다(권용우 외, 2009). 독일은 세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이다. 독일의 도시화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는데 특히, 급격한 도시화가 나타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이후 독일 정부는 2002년 4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2004년에는 독일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공간에 관한 논의에는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환경회의(Umweltministerkonferenz)를 개최하고, 도시공간 관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였다(권용석, 2012). 따라서 이러한 독일 정부의 도시 정책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지리학 부분에서 기후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자연환경·자원 부분을 그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빠르게 정책을 수립한 나라이다. 독일 정부는 1901년 이후 평균기온의 약 0.9℃ 상승, 1980년대 이후 이상고온 및 건조일수의 증가, 홍수 및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분석하였고 특히, 해안지역 일대는 1960-2000년 악천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역별 집중호우 양상도 변화하는 등 기후 변동성의 증가로 인한 해당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독일은 2002년의 대홍수 및 2003년 폭염사태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후 기상청(DWD)의 기상예보·위험경보 능력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가뭄·홍수 등 기상이변 증가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수립·이행했다(해외환경통합정보 사이트). 이러한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오랜 관찰 및 기록, 면밀한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독일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1990년 현재 수입의존도 55%),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외교부 중유럽과, 2014).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독일 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맞선 반핵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정치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1983년에는 녹색당이 국회에 정식으로 등단하게 되었고, 1990년대 동·서독의 통일 이후로는 정부가 앞장 서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를 건립하며 심각한 동독지역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안유슬, 2015).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자연환경·자원 부분이 독일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프랑스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프랑스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계지리 내용이 높은 비중을,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표 50).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

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0, 표 50, 그림 26).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지형을 38.8%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자원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22.4%이다(표 52,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정치·사회의 내용이 25.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그림 30).

프랑스 지리학의 초기 제도화 과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른 편이었으나 독립된 하나의 학술적 분과로서 대학에 자리하게 된 것은 1870년대 이후이다. 프랑스는 학문 분야가 극히 분절화 되어 있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이 인접학문과 경계가 없이 넘나들어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문남철, 2005). 따라서 프랑스의 지리학은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의 이론을 받아들여 사회집단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여 장르 드 비(생활양식, genre de vie) 개념을 발전시켰다. 또한 프랑스의 지리학은 장소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회현상을 규명했다<sup>27)</sup>.

프랑스의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여러 차례의 공화정을 거치는 동안 프랑스의 독자적인 자유주의를 발전시켰고 또한 현대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을 이루는 프랑스 인권선언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정과 조세 형평 원칙에 바탕이 되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등을 목표로 하여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도덕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필연적 경쟁을 위해 출발점에 서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민문홍, 2012). 이러한 배경으로 프랑

---

27) 김미경(2013)은 역사학은 지리학과 더불어 사회학적 접근이 도입되면서 수학적 공식화와 함께 집단의식이 역사연구의 주제가 되었다고 주장함. 이러한 방법론은 역사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개인'에 국한되었던 연구대상을 '집단'이나 '집단의식'을 주제로 삼아 규범과 관습, 종교 등의 문제가 역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함.

스는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이 발달되었고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적,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28)</sup>.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학은 혼란한 사회에 평등한 자유와 질서를 가능케 한 주도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회학의 창시자인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은 비달 드 라 블라쉬가 제시하는 인문지리학을 사회학의 한 분야라고 하여 이를 주제로 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프랑스 아날학파<sup>29)</sup>의 창시자인 페브르(Lucien Febvre, 1878~1956)는 이 논쟁에서 인문지리학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에서의 지리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권위 있는 학문으로서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풍은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그대로 이어져 지리 수업에서 정치·사회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사회현상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달 드 라 블라쉬는 또한 지리학의 본질을 이질적 생물들이 공생 또는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락을 이루거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복합적 환경(Milieu composite)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다(최운식 편역, 2002). 생물, 특히 식물은 한 지역의 기후, 토양,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식물 군락을 이룬다. 즉, 각기 다른 식물경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형에 맞게, 즉 환경에 맞게 경쟁, 적응, 도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최운식 편역, 2002). 인간의

---

28) 한승준(2008)은 “프랑스가 추진하는 이주민 통합 전략은 프랑스와 공화주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족, 문화, 종교 등이 지니는 특수성이 공적 영역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성원들은 그들이 지니는 개별적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이로써 법 앞의 평등이 이루어진다(Martinielo, 윤진 역, 2002, 69).” 고 함.

29) 주명철(2001)은 “아날학파는 1929년 페브르, 마르크 블로크가 역사 잡지 『아날』을 창간한 이래 이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사가들이 혼자서 또는 공동 작업으로 새로운 문체 의식, 새로운 주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중요한 업적을 내놓아 역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아날학파는 두루 주목받고 있다.” 고 함.

진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한 지역에 모여 동일한 생활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로 발전시켰다. 이는 비탈 드 라 블라쉬의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지형에 따라 사회의 발전 속도나 사회현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지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진화된 모습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어떤 장소에서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규명하여 독특한 생활양식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 따라서 사회규범이나 정책 못지않게 지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프랑스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영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영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리 내용이 89.7%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지리학이 46.4%와 인문지리학이 53.6%로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46).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 대륙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지역을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 표 51, 그림 28).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자연환경·자원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33.3%이고 그 다음으로 기후가 2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52,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인문지리학 개관의 내용이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촌락이 2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그림 30).

영국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1273년에 국왕 에드워드 2세는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라는 칙령을 내린 바 있으며, 1306년에도 같은 칙령을 내렸는데 위반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였다(박석순, 2003).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기업은 거대한 공장을 짓고, 각국은 GNP를 높이는데 몰두해왔으며 이를 위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학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지구환경의 파괴와 대기오염을 걱정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수백 년을 지내왔다. 그 결과 인류는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되었다. 영국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톤(Nicholas Stern)이 영국 정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보고서의 표현대로 지구온난화는 “세계가 보아온 최악의 시장실패”로 기록된다(존 브룩만, 2009, 오세열, 2014, 재인용). 따라서 영국은 석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1956년에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오염방지법률이 이미 19세기 중엽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부터 대기오염의 해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장재연, 1990). 영국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전통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영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가 1970년에 설립되었고 1997년에는 환경, 교통, 지역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식량농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재차 개편되었다. 1970년-80년대의 영국의 환경정책은 규제(regulation)에 기초한 통제와 관리에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영국의 환경정책은 정책 운용의 유연성, 효과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환경부, 2006).

이러한 영국의 환경보존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정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08년에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국가적응정책(National Adaptation Program, NAP), 적응보고권한(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의 세 가지 정책도구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HM Government, 2012, 김동현, 박창석, 2012, 재인용).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새로운 외부적인 위협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핵심적인 접근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근원은 단기적·장기적 기후의 변동성, 기온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강우 변화의 가능성, 습한 겨울과 극한 강우비율의 증대, 건조한 여름의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다(HM Government, 2012, 김동현·박창석, 2012, 재인용). 이러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은 영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기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런던은 로마의 융성 시대에 도시의 틀을 갖춘 곳이다(권용우 외, 2009). 또한 15세기 이후 전제국가의 출현과 관료정치가 변영함에 따라 정치 중심인 수도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런던과 파리로 옮겨지게 되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특히 산업혁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공업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심부에는 상업 기능, 공장, 주거지들이 혼재하여 있었다. 도시 계획이 없는 자유방임주의적인 것이었다(전중환 외, 2008). 또한 영국의 주요 도시들은 20세기 후반에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 주택

부족,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했다 (김정후, 2008). 1997년 출범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과거 영국의 어떤 정부보다 도시정책개발에 집중했다. 이전 정부들 역시 다른 유럽에 비하여 다양한 도시정책을 보유했다(표 54).

<표 54>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국가도시정책 유무

국가도시정책의 유무	유럽연합국가
명백한 국가도시정책 존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명백한 국가도시정책 부재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주: 한경원, 2011, “국가도시정책의 해외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시정책연구, 2(1): 20.

영국의 오래된 도시의 역사와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다양한 기능 및 변화, 이에 따른 영국 정부의 도시정책의 시행 등이 반영이 되어 고등학교 지리교과과정에서 도시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미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미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리 내용이 91.3%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56.1%로 자연지리학의 내용 43.3%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표 50).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대륙의 내용을 비슷한 비중으로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5, 표 51, 그림 28).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자연지리학 개관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75.7%이고 그 다음으로 지형이 8.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연지리학 개관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비중

을 나타내고 있다(표 51,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인문지리학 개관의 내용이 39.6%, 그 다음으로 문화·역사가 3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 그림 30).

현재의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이에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유럽인들, 여기에 세계 각 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시작된 나라이다. 현재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표 55).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 고유한 풍습을 모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다양한 민족에 대해 학습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교과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문화·역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각 대륙별 비중이 모두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전반적인 교육제도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미국은 주정부나 교육공동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지리교육공동위원회는 미국의 국토문제와 세계지역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미국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y)와 함께 지리교육과정과 지침을 개발한다. 또한 지리교과에는 민주주의의 역사, 역사, 경제적 지역화, 정치적 조직, 환경문제 등 4개의 주요부분을 포함하여, 미국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여러 논리를 제시한다(권용우 외, 2009). 이러한 지리교육의 기본 지침은 각 대륙에 대해 다각적인 비교·분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미국의 지리교과서는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이 고른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본 논문 분석 국가 8개국의 인구, 인구 구성 및 종교

국가	인구	인구 구성	종교
독일	8,085만 명('14)	게르만족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4%) 등
프랑스	6,632만 명('14)	북부·중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켈트(Gaule족)·게르만·노르만계가 대다수이고 소수의 라틴계가 혼재	구교, 이슬람, 신교, 유대교 등
영국	6,374만 명('14)	앵글로색슨족(Anglo-Saxon族), 켈트족(Celt族)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 50%), 구교(11%), 감리교(Methodism)(30%) 등
미국	약 3억 2,137만 명('14)	백인(77.4%), 흑인(13.2%), 아시아계(5.4%), 원주민(1.4%), 기타(2.6%) ('14) * Hispanic : 전체 인구의 17.4%	신교(46.5%), 구교(20.8%), 몰몬(1.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기타(4.8%), 무교(22.8%) 등
러시아	약 1억 4,650만 명	러시아슬라브족(70% 이상)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구교 등
중국	약 13억 6,782만 명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일본	1억 2,713만 명('14)	전체 인구 중 외국인 구성 비율 : 약 0.02%('09)	신도(神道, Shintoism), 불교, 신교 등
한국	51,327,916명('14)	전체 인구 중 외국인 구성 비율 : 약 0.04%('15)	불교, 신교, 구교, 원불교, 천도교 등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 및 지역 정보 사이트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5) 러시아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러시아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지리 내용이 57.8%, 세계지리 내용이 42.2%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내지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비중이 비슷하나 인문지리학의 내용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표 50).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9, 표 51, 그림 28).

또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자연지리 개관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54.0%이고 그 다음으로 자연환경 ·

자원이 1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산업·경제가 47.6%, 그 다음으로 인구가 1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그림 30).

러시아의 지리학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연구 분야가 제한적이었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1917년 레닌의 혁명 이후 러시아 지리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의 발전을 위해 이론적인 측면은 경제학이, 실용적인 측면은 지리학이 담당하게 된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이에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지리대학에는 자원 탐사를 위한 과목이나 시베리아의 동토층(凍土層) 연구를 위한 영구동토층 및 빙하학, 결정학 등과 같은 자연지리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것은 레닌의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크로포트킨(Pyotr Alekseevich Kropotkin, 1842~1921)과 같은 지리학자들의 연구 분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크로포트킨은 자원의 세계적 분배를 결정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프랑스의 르클뤼(Élisée Reclus, 1830~1905)와 함께 자연지리학에 학술적 기여를 한 학자이다. 크로포트킨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상업적·정치적 이론에 기울어져 있던 협회와 대학의 지리학과로 대표되는 제도권 지리학에서도 높이 평가될 만큼 자연지리학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연지리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지리학의 연구 분야는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된 이후 신생 러시아는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고 새로운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모색했다(오만석·신효숙, 2004).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지리학,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역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본주의와 선진국의 경제지리학과 사회지리학, 문화지리학과 정치지리학 등의 분야에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국토교육협의회, 2009). 이와 같은 배경으로 러시아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자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세계의 모든 대

록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계통지리학의 내용 또한 고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부분에 대한 개방과 정책으로 인해 산업·경제 부분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중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중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리가 69.4%로 국내지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이 64.0%로 자연지리학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표 50).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 표 50, 그림 28).

또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자연지리 개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34.0%이고 그 다음으로 기후가 2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산업·경제가 60.9%, 그 다음으로 도시·촌락이 1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그림 30).

중국은 1949년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反도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를 차단했다. 정책의 중점을 농촌에 두었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가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혁명운동을 전개시켜오면서,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과 농민운동을 중요시해왔기 때문이다(정성호, 2001). 그러나 이러한 도시정책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계기로 방향을 달리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개혁의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1978년의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①중국 경제를 개방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②지방

정부와 기업의 생산 투자 의사결정권한을 확대(분권화)하며 ③기업과 개인 차원에서의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오승렬, 2001). 중국의 도시화율은 경제개방 시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표 56).

<표 56> 중국의 도시화 단계별 도시화 수준

도시화 단계		도시화율(%)
제1단계: 도시화 초보단계(1949-1957)		10.9
제2단계: 도시화 변동이 비교적 큰 단계(1958-1965)	대약진 운동(1961)	15.4
	국민경제 후퇴(1965)	12.2
제3단계: 도시화 발전 정체 단계(1966-1978)		17.9
제4단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단계(1979-1991)		26.9
제5단계: 안정적 도시화 발전 및 도시화에 대한 인식 전환단계(1992-2008)		45.7

출처: KIEP 북경사무소, 2009,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城市群) 전략,”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 09-24호: 3-4에서 발췌, 요약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또한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최대 잠재력이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경제체제 전환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오는 2020년에 인구 약 14억 5천만 명, 도시화율 60%, 도시 인구 8억 7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율 상승이 총 25조 위안 이상의 투자와 소비 수요를 견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3.5~6.8% 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KIEP 북경사무소, 2013). 중국의 도시화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불균형적인 상태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따라 중국은 도시화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애요인인 도농 이원체제 문제를 해결하여 농민공의 도시 정착에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KIEP 북경사무소, 2013).

또한 2013년 11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 자원형도시 지속가능 발전규획(全国资源型城市可持续发展规划)」을 발표했다(KIEP 북경사무소,

2014). 자원형도시는 해당 지역의 광산, 삼림 등 자연자원의 채취·가공을 주도산업으로 하는 도시이며, 중국의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전략 보장기기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주요도시를 의미한다(KIEP 북경사무소, 2014).

중국은 도시화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또한 도시의 양적·질적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자원형도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의 산업·경제와 도시·촌락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일본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리가 93.9%로 국내지리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이 71.6%로 자연지리학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표 50).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 그림 28).

또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기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42.9%이고 그 다음으로 지형이 3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그림 29). 인문지리학 및 방법론 부분에서는 인문지리학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인문지리학 개관이 41.5%, 그 다음으로 산업·경제가 2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그림 30).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이다. 산업화에서는 성공

을 거두었지만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만성 비소중독, 기관지 천식 등이 환경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후 1973년에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건강피해발생지역을 제1종 지역과 제2종 지역으로 지정, 건강피해자를 설정하여 보상급여, 건강회복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8년 대기오염수준의 변화에 따라 제1종 지역을 해제하면서 건강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개정하고 법률명칭을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관한법률’로 개칭했다(환경보건정책과, 2005).

또한 일본은 국내의 환경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기후변화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를 통한 국제 공헌’이 핵심이다.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기후변화 정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김주진, 2007). 일본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sup>30)</sup>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문제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인 한편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강혜자, 2009).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154개국이 서명했고, 1994년 3월 공식 발효되었다(김점수, 2009).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 상황은 <표 57>과 같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기본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환경과 경제의 상

---

30) 일본의 전체 에너지의 81.5%, 석유의 경우는 9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강혜자, 2009).

생, 둘째, 대응의 단계적 접근, 셋째, 이해당사자들 간의 책임공유, 넷째, 국제사회의 동참 등이다(김점수, 2009). 또한 일본의 온난화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한 것이 2002년에 제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이다. 이 대강에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 단계적인 대책 추진, 각계각층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연계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제시되어 있다(이수철, 2010).

이러한 일본의 환경에 대한 정책과 기후온난화 대책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 부분에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 경과

구분	일자	장소	논의 내용
제1차	'95.3	독일 베를린	· '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협상그룹 설치
제2차	'97.7	스위스 제네바	·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 · 인간활동의 지구기후에의 영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
제3차	'97.12	일본 교토	· 교토의정서 채택 부속서 I 국가들 <sup>31)</sup> 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토메카니즘 규정
제4차	'98.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 국가로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 표명
제5차	'99.11	독일 본	· 개도국 감축 의무부담문제 부각,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우리나라, 자발적, 비구속적 전제하 참여의사 표명)
제6차	'00.11	네덜란드 헤이그	· '02년 교토의정서 발효 위한 상세운영규정 확정예정이었으나 선진국 간 입장차로 결렬
제6차 속개	'01.7	독일 본	· 교토메카니즘, 흡수원 등 운영규정 타결
제7차	'01.11	모로코 마라케쉬	·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최종 합의
제8차	'02.10	인도 뉴델리	· 뉴델리 각료선언 개도국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기술이전 등을 위한 노력 촉구
제9차	'03.12	이태리 밀라노	· 기후변화특별기금, 개도국에 우선사용
제10차	'04.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협약 10주년 평가 등
제11차	'05.11	캐나다 몬트리올	· '12년 이후 선진국 의무부담 위해 임시작업반 구성 등 Post-Kyoto 가시화
제12차	'06.12	케냐 나이로비	· 회의에서 부속서 1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일정 결정문 채택
제13차	'07.12	인도네시아 발리	· 발리로드맵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까지 '12년 이후 협상프로세스 종료</li> <li>- 개도국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측정, 보고, 검증(MRV)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li> <li>- 미국 등 선진국이 경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국내 감축 공약 또는 행동을 추진키로 함</li> </ul>
제14차	'08.12	폴란드 포즈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2012 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의장문서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논의의 토대를 마련</li> <li>• 2009년 6월 특별작업반회의까지 협상문안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 협상을 추진한다는 작업계획을 제시</li> </ul>
제15차	'09.12	덴마크 코펜하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2012체제가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이 5년이 아닌 2050년까지의 정기 규정으로 논의</li> <li>• 기후변화가 각국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제 권력을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li> </ul>
제16차	'10.12	멕시코 칸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비전, 감축, 적응, 재정 및 기술지원 체제, 적응기금 운용,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산림규정(REDD) 및 절차</li> <li>• 선진국 추가 감축 범위, 개도국 분화 및 온실가스 감축</li> </ul>
제17차	'11.12	남아공 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li> <li>• 새로운 협상 도구 및 시한 설정</li> <li>• 감축목표 상향 및 격차 해소</li> <li>• 재정지원</li> <li>• 새로운 시장기반 감축수단 도입</li> </ul>
제18차	'12.12	카타르 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교토의정서(2013~2020) 개정안 채택</li> <li>• 교토의정서보다 광범위한 체제가 필요, 2015년까지 협상문 초안 완성 계획</li> <li>•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입장 표명</li> <li>• 대한민국 인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확정</li> <li>• 장기재원 조성 워크프로그램 1년 연장</li> </ul>
제19차	'13.11	폴란드 바르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재원 작업 프로그램 종결</li> <li>• 진전되지 못한 장기 기후재원 조성방안</li> <li>•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지침 제공</li> <li>• 재정상설위원회 2014년 작업계획 승인</li> </ul>
제20차	'14.12	페루 리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이 정하는 기여(INDC)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li> <li>• 신기후체제 합의문 준비 진전</li> <li>•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 촉구</li> </ul>

주 및 출처: 김점수, 2009,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과 외국의 정책," 강원광장, 86: 93. 에서 제13차까지 인용, 제14차부터 제20차까지는 형식에 맞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관련 각종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함.

31)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UNFCCC 4.2(a)와 4.2(b)조항에 따라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로 다짐한 국가들이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되어 현재는 40개국에 이르고 있음. Annex I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Non-annex I countries(비부속서 I 국가)로 불림.

## 8) 한국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한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내용을 지역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지리가 55.0%, 세계지리가 45.0%로 국내지리와 세계지리가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지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지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지리학이 63.9%로 자연지리학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7, 표 50). 이때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의 각 대륙에 대한 내용을 대륙별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리학적 주제별로 나누어 세계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 그림 28).

또 계통지리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지리학 부분에서는 기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 비율은 39.1%이고 그 다음으로 기후가 31.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그림 29). 인문지리학 주제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인문지리학 개관 부분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경제가 2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그림 30)

세계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국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정책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시작된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한국의 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종합대책 수립이 추진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이 발표된다.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진 시기는 참여정부 시기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당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와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

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을 수립한다. 그 이후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협약대응’을 ‘기후변화대응’ 개념으로 확장하고 장기비전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제시한다(양용석, 2010).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또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려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정부재정 및 규제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12월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의 부대행서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mance Index : CCPI)를 발표했다.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2011년 57개국<sup>32)</sup>)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되었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또한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2010년 9위)로 평가되었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로서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 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하였는

---

32) CCPI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www.germanwatch.org/ccpi](http://www.germanwatch.org/ccpi)에서 확인이 가능함.

데, 이는 ①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과 ②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BAU 대비 30%)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2010).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 부분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창조경제론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학계와 정책 집단 내에서 창조경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창조경제의 논의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과거와 달리 고용 창출을 동반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성장 동력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이 창조경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한 배경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집약된다(이원호, 2014). 이를 위한 창조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시 역할이 강조되는데, 무엇보다 도시는 고기술 인재 활용, 소비자 접근, 혁신 기회, 아이디어 교환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광역적 도시권(City-Region)의 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식 집약적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도 창조적 도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조적 산업과 직업을 갖춘 도시일수록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쉽게 달성하기 때문이다(이원호, 2014).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서남부경제허브로서 금천구 서울디지털 산업 단지과 오송 생명 과학 단지의 입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여 창조 경제 도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4. 소결

본 장에서는 8개국별 지리교과서를 분석했다. 1절에서는 각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고, 2절에서는 국가별로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별 지리교과서의 구성 비율 분석은 먼저 지리교과서의 분량 체계를 기준으로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 그리고 방법론<sup>33)</sup> 등 세 가지로 대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지리학 내용은 자국과 자국 외 세계 대륙 관련 내용으로 세분류하여<sup>34)</sup> 분석하였다. 계통지리학의 경우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sup>35)</sup>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항목별로 상이한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은 지역지리학 면에서 세계지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계통지리학적 면에서는 8개국 모든 국가에서 인문지리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계지리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7개국에서 대륙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기 보다는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각 대륙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드러났다. 이어서 국가별 지리교과서의 자연지리학 내용 구성을 비교 분석했다. 독일은 기후를, 프랑스, 일본, 한국은 지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은 자연환경·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형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토양과 생물, 수문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지리교과서의 인문지리학 내용 구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산업·경제 부분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촌락

33) I 장의 <표 2>를 기준으로 분석함.

34) I 장의 <표 3>을 기준으로 분석함.

35) I 장의 <표 4>를 기준으로 분석함.

부분은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구 부분의 비중도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나타난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개국 지리교과서 내용과 각 국가의 여건을 분석했다.

8개국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지리교육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공통점으로는 8개국별 지리교과서를 분석할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리교육 내용 분석 방법인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 등의 분류 분석 내용이 유효함이 확인된다. 그리고 지리교육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전개하기 보다는, 자연지리학이나 인문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규명됐다. 나아가서 대체로 인문지리학의 비율이 자연지리학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점으로는 환경이나 재해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를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주제를 서술하는 데 있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접근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혹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리교육 내용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은 국가 주도로 산업혁명을 이룩했고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에 독일 지리교과서에서의 산업·경제 부분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 공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원화된 사회의 화합을 이끈 나라로서 정치·사회 부분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결과 지리교과서에 자연환경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도시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다른 유럽에 비하여 다양한 도시정책

을 보유했다. 이에 따라 지리교과서에서 도시부분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미국은 세계 각 국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시작된 나라다. 따라서 지리교과서에서 문화·역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지리학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 연구 분야가 자연지리학 중심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와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 된 이후 새로운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모색했다. 최근에는 인문지리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리교과서는 자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문지리학 중에서도 경제 부분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 산업·경제 부분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反도시정책을 추구했으나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방향을 달리하게 된다. 도시화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자원형도시를 구축하여 도시화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의 산업·경제와 도시·촌락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다. 산업화의 성공에 따른 환경오염의 폐해로 일본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환경에 대한 정책과 기후온난화 대책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기후 부분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다.

각 국가의 지리교육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설계되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상이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국한하여 전반적인 지리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리교과서 내용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IV장에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리학의 변화·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V. 개화기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지리교과서 분석

### 1. 개화기의 지리교육

개화기는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본 논문에서는 근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관립학교인 육영공원의 설립연도인 1886년부터 한일합방조약이 있었던 1910년까지로 한정한다. 이 당시는 쇄국 사상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조선의 초청으로 미국의 호머 헐버트(Hulbert, H.B.)가 육영공원의 교사로 초청되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이 시기는 국권회복을 목표로 민족교육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 1)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sup>36)</sup>

육영공원 교사로 초청된 헐버트는 1889년경에 최초의 한글지리교과서인 『사민필지(士民必知)』를 발간한다. 『사민필지(士民必知)』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기타 종교, 경제, 군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교과서이다. 한글본 목차는 제1장 지구, 제2장 유럽주, 제3장 아시아주, 제4장 아메리카주, 제5장 아프리카주로 되어 있고, 총론에서는 태양계와 그 현상, 지구와 그 현상, 인력, 일·월식, 기상현상, 지진, 조석, 유성, 은하수, 화산 등 제 현상, 대륙과 해양, 경위선,

36) 한자로 된 교과서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인종 등에 관한 정의와 설명을 다루고 있다(표 58). 각 대륙에는 지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지도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국의 위치와 지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민필지는 국민들의 사상과정에 너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1909년에 일본 총독부로부터 판매, 출판이 금지가 되었다(김재완, 2001).

<표 58>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의 목차

장	내용
총론	태양계와 그 현상, 지구와 그 현상, 인력, 일·월·식, 기상현상, 지진, 조석, 유성, 은하수, 화산 등 제 현상, 대륙과 해양, 경위선, 인종 등에 관한 정의와 설명
제1장	지구
제2장	유럽주와 유럽 대륙 지도
제3장	아시아주와 아시아 대륙 지도
제4장	아메리카주와 아메리카 대륙 지도
제5장	아프리카주와 아프리카 대륙 지도

출처: 김재완, 2001,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대한 小考,” 문화역사지리, 13(2): 202에서 연구자가 발췌하여 작성함.



그림 31. 1889년 『사민필지(士民必知)』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편찬한 『사민필지(士民必知)』는 기초적인 지리지 지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글로 쓰여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읽혀졌다. 교육을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세계 지리지와는 다른 체제를 지니고 있다. 백과사전식의 항목별로 서술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풍속과 같은 부분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수록하기도 했다. 사민필지는 이후에 편찬되는 지리교과서의 체계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오상학, 2013).

## 2)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교과서 내용의 구성 체계는 <표 59>와 같다. 국내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 구성은 자연지리학이 8.4%, 인문지리학이 91.6%로 거의 대부분 인문지리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수문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인문지리학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전체의 64.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업경제 8.7%, 면적과 위치 5.0%, 문화와 역사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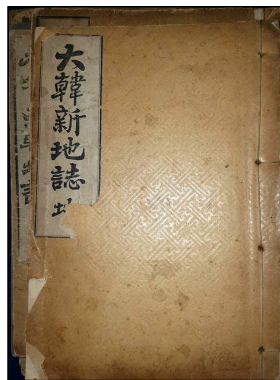


그림 32.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표 59> 1907년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학	기후	2	0.7
	지형	9	3.0
	수문	12	4.0
	자연환경·자원	2	0.7
	합계	25	8.4
인문지리학	면적·위치	15	5.0
	인구	1	0.3
	산업·경제	26	8.7
	정치·사회	10	3.3
	도시·촌락	2	0.7
	교통	7	2.3
	문화·역사	12	4.0
	인종·언어	7	2.3
	인문지리학 개관	194	64.9
	합계	274	91.6
총합계		299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는 당시 일본에서 주관하여 발행한 지도의 일본해(日本海)를 조선해(朝鮮海)라 고쳐서 한국의 자주성을 살리려고 하였다. 도서명이 “지리(地理)”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지지서(地誌書)이다. 1907년 지리과 교과용 도서로 학부의 검정을 받았으나, 당시 일본인의 주관으로 움직이던 학부는 내용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1909년에 검정 무효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지지류의 도서 중에서 비교적 과학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서술한 우수한 지리교과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 당시 검정 무효가 되기 전, 1년 6개월 만에 재판을 발행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장보웅, 1970).

3)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분석한 결과 <표 60>과 같다. 전체적으로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교과서의 구성은 세계 각 대륙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가 전체의 33.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유럽이 25.6%, 아프리카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교과서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교과서는 일본이 발행주체이고 일본과 영국에 유학을 다녀와 조선총독부의 경무부 촉탁으로 임명된 정운복이 쓴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당시 일본의 시각으로 본 세계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개화기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각종 이미지들이 실린 호화판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개화기 교과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최고, 최강, 최대의 수사학이 넘치는 것으로 이 교과서 역시 세계지도와 여러 이미지들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영훈, 2010).

<표 60>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세계대륙	세계대륙	9	5.6
	유럽	30	25.6
	아시아	52	33.3
	아프리카	8	12.2
	북아메리카	2	2.2
	남아메리카	8	16.7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6	4.4
전체 합계		115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33. 1908년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 2. 일제강점기의 지리교육

### 1) 1924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

1924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의 계통지리 분량 및 구성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1>과 같다. 지리교과서는 전체 104페이지 중 내용 중 자연지리는 18.2%였으며, 인문지리는 81.8%로 대부분 인문지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지리 내용에서는 지형이 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문지리에서는 각 도별로 구분하여 인문지리학 주제로 내용이 구성된 인문지리학 개관이 50.4%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

<표 61> 1924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	기후	4	3.8
	지형	9	8.7
	수문	4	3.8
	자연환경·자원	2	1.9
	합계	19	18.2
인문지리	면적·위치	1	0.8
	인구	2	1.9
	산업·경제	3	2.9
	정치·사회	6	5.8
	교통	7	6.8
	문화·역사	2	1.9
	인문지리학 개관	64	50.4
	합계	85	81.8
총합계		127	100

출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는 독립운동가 윤화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윤화수는 1885년 1월 29일 함경남도 정평군 부내면 풍흥리 31번지에서 태어나 1951년에 사망했다(박주신, 2000, 강순돌, 2009, 재인용). 개화 지식인이던 그는 학교교육활동에 심혈을 쏟았다. 1910년경부터 원산 사립 진성중학교, 함흥사립 영생소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13년 8월에 사직했다. 한편으로 그는 1916년 2월 함흥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미수죄로 징역 3개월을 언도받은 기록이 있고, 또한 용의조선인명부에 배일사상의 소유자로 분류되어 있는 인물이다<sup>37)</sup>. 윤화수는 1920년 말경에 간도 용정촌(龍井村)으로 이주한다(윤화수, 1927, 강순돌, 2009, 재인용). 그는 1921년 6월부터 용정촌에 소재한 영신중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교과서를 집필하여 발행한다. 윤화수의 최초 저술은 중등지리교과서인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 초판(1923년)·정정재판(1924년)이다. 그가 지리교과서를 제일 먼저 발행한 것은 근대지식을 계몽하고 독립을 위한 민

3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용의조선인명부

족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있어, 지리가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반증한다(강순돌, 2009).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두 개의 지리교과서 중 하나로서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독자적인 국가라는 관점이 강조된 교과서이다.

## 2) 1935년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

1935년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계통지리학의 자연지리학이 15.8%, 인문지리학이 84.2%로 나타나 대부분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지형, 토양, 생물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과 경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표 62> 1935년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학	지형	4	5.3
	토양	3	3.9
	생물	5	6.6
	합계	12	15.8
인문지리학	인구	3	3.9
	산업·경제	23	30.3
	교통	6	7.9
	문화·역사	13	17.1
	인문지리학 개관	19	25.0
	합계	64	84.2
총합계		76	1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1931년 9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중국대륙 침략이 시작됨에 따라 조선은 종전의 산미(産米)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했다. 일본제국주의는 군사적 파쇼체제를 확립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황민화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이와 동시에 대륙병참기지, 일(日)·선(鮮)·만(滿) 블록경제, 농공병진정책의 구호를 내걸고 군수물자 자원 확보를 위한 군수산업의 개발을 통하여 조선의 식민지적 예속화를 한층 강화했으며, 조선 민중을 착취하고 자원을 약탈하는 데 광분했다(박경식, 1986, 강순돌, 2007, 재인용).

1935년에 발행된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는 일본인 도요가와(豊川善擘)에 의해 집필된 중등교과서이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은 일본의 자원수탈 기지였으므로 지리교과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향토’라는 용어는 자기가 사는 마을(Heimat)로서 소단원의 지지를 기술하는 지역스케일을 나타낸다(강순돌, 2007). 따라서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라는 의미에는 조선을 하나의 작은 마을로서 기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선반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동화정책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여 민족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말살정책이었다(강만길 외, 1994). 또한 이러한 식민정책이 반영된 일체의 식민지 정책도 역시 일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토 공간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다(강순돌, 2007). 이런 정책으로 지리교과서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또 다른 지역(조선)을 여행하거나 이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1945년 이후의 지리교육

#### 1)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지리교육

##### (1) 1947년 『조선지리』와 『먼나라』

###### ① 『조선지리』

일제강점기 이후인 1947년의 지리교과서는 국내지리 내용의 『조선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의 『먼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조선지리』의 경우 <표 63>과 같이 총 분량은 74페이지로 자연지리학이 21.6%, 인문지리학이 78.4%의 구성 비율을 보인다. 자연지리학에서는 기후와 지형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에서는 인문지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지리학개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경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 1947년 『조선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6	8.1
	지형	5	6.8
	생물	1	1.4
	수문	2	2.7
	자연지리학 개관	2	2.7
	합계	16	21.6
인문 지리학	면적·위치	7	9.5
	산업·경제	15	20.3
	인문지리학 개관	36	48.6
	합계	58	78.4
총합계		74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출발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내지리교과서는 우리국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전국을 각 도 별로 나누고 또 각 도의 세부적인 지역의 상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목차가 구성된다(표 64).

<표 64> 1947년 『조선지리』의 목차 중 일부

장	항목
Ⅱ. 자연 모두 풀이(自然總說)	(1) 산계(山系) (2) 수계(水系) (3) 평야(平野) (4) 못(湖沼) (5) 해양(海洋) (6) 조석(潮汐) (7) 해류(海流) (8) 바뀐 내력(沿革) (9) 생물(生物) (10) 기후(氣候)
Ⅲ. 지방지(地方誌)	(1) 경기 지방(京畿地方) ① 위치와 지형(位置와 地形) ② 기후(氣候) ③ 한강유역(漢江流域) ④ 안성천유역(安城川流域) ⑤ 차령산맥북해안(車嶺山脈北海岸) ⑥ 임진강유역(臨津江流域) ⑦ 멸악산맥 남해안(滅惡山脈 南海岸)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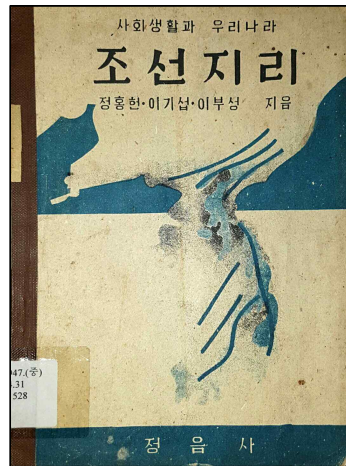


그림 34. 1947년 『조선지리』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 ② 『먼나라』

세계지리교과서인 『먼나라』의 경우 총 88페이지로 유럽이 49페이지 55.7%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보였으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북아메리카의 순으로 나타나 각 대륙에 포함된 국가의 수에 비례한 구성 비율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1945년 해방 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시야를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 그 범위를 넓히고자 많은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를 삽입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머리말에 밝히고 있다.

<표 65> 1947년 『먼나라』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세계지리	유럽	49	55.7
	아프리카	14	15.9
	북아메리카	6	6.8
	남아메리카	11	12.5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8	9.1
총합계		88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먼나라』의 계통지리를 살펴보면 <표 66>과 같이 자연지리학이 20.5%, 인문지리학이 79.5%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지형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보였으며, 인문지리학의 경우에는 인문지리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인문지리학개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머리말에 지리의 독립성(과학성)을 중점으로 타 학과와 관계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적 과정에 있어 자연이 문화를 수동적으로 규정하는 면과 인문이 능동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면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하여 인문지리학 개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6> 1947년 『먼나라』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세계지리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4	4.5
	지형	10	11.4
	자연환경·자원	3	3.4
	자연지리학 개관	1	1.1
	합계	18	20.5
인문 지리학	산업·경제	3	3.4
	정치·사회	1	1.1
	문화·역사	4	4.5
	인문지리학 개관	62	70.5
	합계	70	79.5
총합계		88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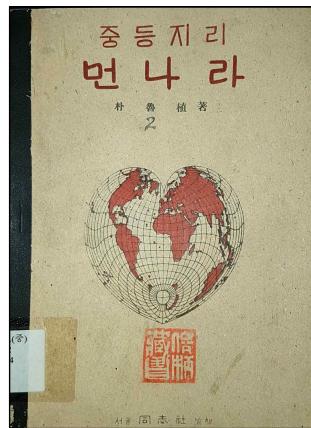


그림 35. 1947년 『먼나라』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2) 1949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 과 『경제지리』

1949년 우리나라 지리교과서는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 과 『경제지리』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은 국내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지리』는 경제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 대륙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의 경우 자연지리학이 54.9%, 인문지리학이 45.1%로 자연지리학의 비중이 인문지리학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자연지리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연지리학 개관이 가장 많았으며, 지형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연지리학 개관과 지형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의 경우 산업·경제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인문지리학 개관, 도시·촌락, 인종·언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7).

이 책의 머리말에 우리나라의 지리적 파악을 충분히 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심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반공 사상이 투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 1945년 해방 후 미군과 소련군,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던 당시 한국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7> 1949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8	5.6
	지형	30	21.1
	자연지리학 개관	40	28.2
	합계	78	54.9
인문 지리학	인구	2	1.4
	산업·경제	34	23.9
	도시·촌락	9	6.3
	교통	1	0.7
	인종·언어	7	4.9
	인문지리학 개관	11	7.7
	합계	64	45.1
총합계		142	10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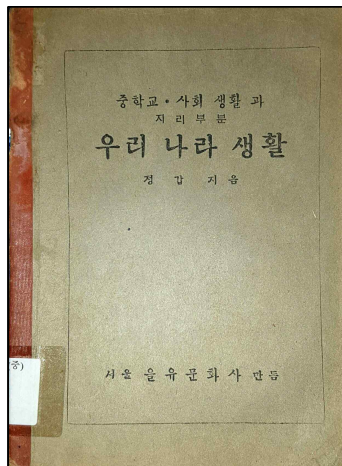


그림 36. 1949년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 ② 『경제지리』

『경제지리』의 경우 경제지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 산업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체의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이 1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이 13.5%, 공업이 9.8%, 상업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8).

이 당시 한국의 산업은 농업에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농업과 자연 환경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8> 1949년 『경제지리』의 산업별 분량 및 구성 비율

산업구분	분량(page)	%
경제지리학개론	35	26.3
농업	26	19.5
임업	7	5.3
축산업	7	5.3
수산업	6	4.5
광업	10	7.5
공업	13	9.8
상업	11	8.3
교통	18	13.5
합계	133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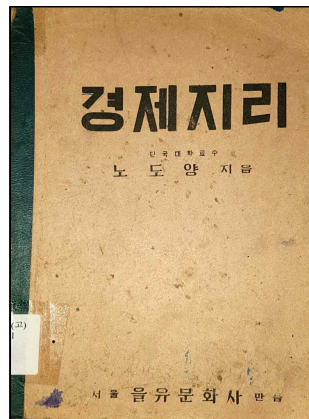


그림 37. 1949년 『경제지리』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연구자가 구성함.

## 2) 1950년대의 지리교육

### (1) 1950년 『우리나라지리』

1950년 지리교과서인 『우리나라지리』는 국내지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통지리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표 69>와 같이 자연지리학이 42.4%, 인문지리학이 57.6%로 인문지리학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연지리학은 지형이 20.8%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다음으로 기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촌락 26.4%, 산업·경제 17.4%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촌락, 산업·경제가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9> 1950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학	기후	16	11.1
	지형	30	20.8
	자연환경·자원	14	9.7
	자연지리학 개관	1	0.7
	합계	61	42.4
인문지리학	면적·위치	5	3.5
	인구	3	2.1
	산업·경제	25	17.4
	정치·사회	3	2.1
	도시·촌락	38	26.4
	교통	7	4.9
	인문지리학 개관	2	1.4
	합계	83	57.6
총합계		144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한국의 근대도시발달은 1789년 이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시기(1789~1930)는 전산업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역사적 중추행정중심지였던 한성, 개성, 평양 등이 2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이룬다. 제2시기(1930~1945)는 일제가 병참기지화 내지는 농공병진정책 등의 본격적인 식민지정책을 수행한 시기이다. 이에 제조업 중심의 공업발달과 더불어 비약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졌다. 제3시기(1945~1960)는 해방으로 해외동포가 귀국하면서 사회적 인구이동이 일어나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대전 등의 도시에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제4시기(1960~현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산업구조가 공업화로 전환되면서, 공업과 관련된 지역이 도시발달을 선도하였다(권용우 외, 2012).

1950년대 한국의 정부 정책 중 하나는 농지개혁으로 이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이다. 이는 소득분배와 부 세습의 단절을 통해 과거의 지주봉건제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승만 정부는 5개의 개발계획을 통해 경제재건과 자립경제 건설을 도모했다. 이러한 산업부흥계획은 사회간접자본의 대거 확충, 시멘트, 철강 등 기간산업의 건설, 2차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서 자립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도시·촌락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산업·경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1953년 『우리나라지리』

1953년 지리교과서인 『우리나라지리』는 국내지리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계통지리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표 70>과 같이 자연지리학이 22.2%, 인문지리학이 77.8%로 자연지리학의 비중은 많이 낮아진 반면, 인문지리학의 비중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연지리학은 기후와 지형이 각각 9.7%로 자연지리학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촌락이 27.8%, 산업·경제가 24.4%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촌락의 비중은 1950년 『우리나라지리』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업·경제의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70> 1953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학	기후	17	9.7
	지형	17	9.7
	생물	3	1.7
	자연환경·자원	2	1.1
	합계	39	22.2
인문지리학	면적·위치	4	2.3
	인구	7	4.0
	산업·경제	43	24.4
	정치·사회	5	2.8
	도시·촌락	49	27.8
	교통	9	5.1
	문화·역사	5	2.8
	인종·언어	1	0.6
	인문지리학 개관	14	8.0
	합계	137	77.8
총합계		176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3) 1956년 『국토지리』와 『인문지리』

① 『국토지리』

1956년 국내지리교과서인 국토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국토지리는 총 169페이지 분량으로 그 중 자연지리는 61페이지인 36.1%, 인문지리는 108페이지인 63.8%로 인문지리가 더 많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 자연지리에서는 자연지리 개관이 25.4%, 지형이 7.1%로 자연지리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문지리에서는 산업·경제가 32.5%, 도시·촌락이 20.1%로 인문지리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은 귀향을 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은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에 모여들었다. 또한 전후 복구작업과 산업철도의 발달에 힘입어 관동지역에 광공업과 관련된 도시발전이 두드러졌고, 특히 충남·전북·경남지역에 인구규모 2만 명 이상의 도시발달이 진행되었다(권용우 외, 2012). 이에 따라 도시·촌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1950년대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 시기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산업·경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 1956년 『국토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	기후	6	3.6
	지형	12	7.1
	자연지리학 개관	43	25.4
	합계	61	36.1
인문지리	인구	7	4.1
	산업·경제	55	32.5
	정치·사회	1	0.6
	도시·촌락	34	20.1
	교통	9	5.3
	문화·역사	2	1.3
	합계	108	63.9
총합계		169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 ② 『인문지리』

『인문지리』는 총 159페이지의 분량으로, 그 중 인문지리학이 76.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내용이 인문지리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지리학 내용 중 산업·경제가 5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72). 『인문지리』 역시 이 시기의 경제개발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 1956년 『인문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	%
자연지리	기후	21	13.2
	지형	6	3.8
	합계	27	17.0
인문지리	산업·경제	93	58.5
	정치·사회	5	3.1
	도시·촌락	9	5.7
	교통	14	8.8
	합계	121	76.1
방법론	지도학	11	6.9
총합계		159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 3) 1960년대의 지리교육

#### (1) 1960년 『인문지리』

1960년 지리교과서인 인문지리는 <표 73>과 같이 세계지역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전체의 90.2%로 나타나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73> 1960년 『인문지리』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국내지리	국내지리	20	9.8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184	90.2
합계		204	10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세계지리 내용을 중심으로 계통지리학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표 74>과 같이 인문지리학이 전체의 72.3%로 거의 대부분을 인문지리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연지리학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경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과 경제가 63.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4> 1960년 『인문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경관	0	0	22.0	12.0	22	10.8
	지형	0	0	14	7.6	14	6.9
	자연환경·자원	2	10.0	7.0	3.8	9	4.4
	합계	2	10.0	43	23.4	45	22.1
인문 지리학	산업·경제	5	25.0	117.0	63.6	122	59.8
	정치·사회	0	0	2	1.1	2	1.0
	도시·촌락	13	65.0	0	0	13	6.4
	교통	0	0	14	7.6	14	6.9
	합계	18	90.0	133	72.3	151	74.0
방법론	지도학	0	0	8	4.3	8	3.9
총합계		20	100	184	100	204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2) 1961년 『우리나라지리』

1961년 국내지리교과서는 『우리나라지리』이다. 『우리나라지리』의 내용은 <표 75>와 같이 자연지리학이 31.1%, 인문지리학이 68.9%로 인문지리학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또한 인문지리 내용은 산업·경제가 27.5%, 도시·촌락이 25.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1961년 『우리나라지리』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자연지리학	기후	23	13.8
	지형	21	12.6
	자연환경·자원	8	4.8
	합계	52	31.1
인문지리학	면적·위치	10	6.0
	인구	6	3.6
	산업·경제	46	27.5
	정치·사회	2	1.2
	도시·촌락	43	25.7
	교통	8	4.8
	합계	115	68.9
총합계		167	10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3) 1967년 『지리1』 과 『지리2』

1967년 지리교과서는 국내지리를 다루고 있는 『지리1』 과 세계지리를 다루는 『지리2』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분량도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1%와 53.9%로 거의 비슷한 분량을 보인다.

<표 76> 1967년 『지리1』 과 『지리2』 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국내지리	국내지리	256	46.1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299	53.9
합계		555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표 76>과 같이 국내지리와 세계지리 모두 인문지리의 내용이 77.7%, 75.3%를 차지하고 있어 인문지리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지리인 『지리1』 의 경우 자연지리학은 기후와 지형이 각각 9.8%, 9.0%로 자연지리학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경제에 관한 내용이 62.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리인 『지리2』 의 자연지리학은 자연지리학 개관이 8.7%로 가장 많으며, 인문지리학은 인문지리학 개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내용이 각각 28.4%와 2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7).

이 시기는 한국 정부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시기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된 국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중점 목표는 ①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②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③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④유희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보전 및 개발 ⑤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재건 ⑥기술의 진흥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은 첫째 1981년까지의 장기전망을 먼저 수립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단계의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둘째,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수출증대를 가장 중시하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었다(권영섭 외, 2015).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중점 목표와 부합하여 이 시기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산업 항목의 분량만 살펴보면,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이 42페이지의 분량이고, 지하자원을 포함한 광산업이 13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며 근대공업 및 공업지대 부분이 16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항목에서도 곡창지대, 평야, 임업활동 등의 1차 산업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7> 1967년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25	9.8	16	5.4	41	7.4
	지형	23	9.0	14	4.7	37	6.7
	토양	1	0.4	4	1.3	5	0.9
	생물	3	1.2	0	0.0	3	0.5
	수문	0	0.0	1	0.3	1	0.2
	자연환경·자원	0	0.0	6	2.0	6	1.1
	자연지리학 개관	5	2.0	26	8.7	31	5.6
	합계	57	22.3	67	22.4	124	22.3
인문 지리학	면적·위치	3	1.2	0	0.0	3	0.5
	인구	8	3.1	14	4.7	22	4.0
	산업·경제	159	62.1	83	27.8	242	43.6
	정치·사회	0	0.0	4	1.3	4	0.7
	도시·촌락	14	5.5	17	5.7	31	5.6
	교통	8	3.1	14	4.7	22	4.0
	문화·역사	0	0.0	5	1.7	5	0.9
	인종·언어	0	0.0	3	1.0	3	0.5
	인문지리학 개관	7	2.7	85	28.4	92	16.6
합계	199	77.7	225	75.3	424	76.4	
방법론	지도학	0	0.0	7	2.3	7	1.3
총합계		256	100.0	299	100.0	555	10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 4) 1970년대의 지리교육

##### (1) 1976년 『지리1』 과 『지리2』

1976년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지리 교과서인 『지리1』이 전체의 45.8%, 세계지리 교과서인 『지리2』가 54.2%로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리 내용에서는 세계 지역 공통 부분이 2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한국이 있는 아시아가 1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 다음 유럽이 6.8%, 북아메리카가 5.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8).

<표 78> 1976년 『지리1』 과 『지리2』 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	%
국내지리	자국의 국토	258	45.3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149	26.1
	유럽	39	6.8
	아시아	57	10.0
	아프리카	14	2.5
	북아메리카	29	5.1
	남아메리카	12	2.1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2	2.1
	합계	312	54.7
총합계		570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국내지리인 『지리1』의 경우 자연지리학은 자연환경·자원이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지형이 3.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경제에 관한 내용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촌락이 8.2%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세계지리인 『지리2』의 자연지리학은 자연환경·자원과 자연지리학을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이 각각 6.0%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지리학은 인문지리학의 주제들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과 산업·경제에 관한 내용이 각각 11.9%와 14.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9).

이 시기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이 가속적으로 팽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산업·경제와 도시·촌락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된 시기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자연 재해나 자연환경 보존 등에 관한 항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79> 1976년 『지리1』과 『지리2』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15	2.6	18	3.2	33	5.8
	지형	18	3.2	8	1.4	26	4.6
	토양	5	0.9	6	1.1	11	1.9
	생물	1	0.2	0	0.0	1	0.2
	수문	0	0.0	6	1.1	6	1.1
	자연환경·자원	36	6.3	34	6.0	70	12.3
	자연지리학 개관	3	0.5	34	6.0	37	6.3
	합계	78	13.7	106	18.8	184	32.2
인문 지리학	면적·위치	3	0.5	0	0.0	3	0.5
	인구	8	1.4	12	2.1	20	3.5
	산업·경제	113	19.8	68	11.9	181	31.8
	정치·사회	0	0.0	20	3.5	20	3.5
	도시·촌락	47	8.2	11	1.9	58	10.2
	교통	8	1.4	10	1.8	18	3.2
	인종·언어	0	0.0	5	0.9	5	0.9
	인문지리학 개관	1	0.2	80	14.0	81	14.2
	합계	180	31.5	206	36.1	386	67.8
총합계		258	45.2	312	54.9	570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 5) 1980년대의 지리교육

### (1) 1984년 『지리1』 과 『지리2』

1984년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80>과 같이 국내지리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리1』이 전체의 64%, 세계지리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리2』가 36%로 국내지리가 세계지리에 비하여 더 많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세계지리 내용에서 세계 공통 내용이 9%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다.

<표 80> 1984년 『지리1』 과 『지리2』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국내지리	자국의 국토	361	64.0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51	9.0
	유럽	32	5.7
	아시아	56	9.9
	아프리카	15	2.7
	북아메리카	22	3.9
	남아메리카	15	2.7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2	2.1
	합계	203	36.9
총합계		564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다음으로 1984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1>과 같다. 국내지리에서 자연지리학이 29.9%, 인문지리학이 30.4%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지형과 환경·자원, 기후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촌락, 인구, 산업과 경제, 면적의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는 경제적 안정기를 맞이하고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

된 시기로, 기후와 지형 등 인간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1980년에는 ‘환경권’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환경청을 발족했다(표 86). 세계지리에서는 자연지리학이 4.8%, 인문지리학이 31.2%로 인문지리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자연지리학 개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인문지학 개관과 산업·경제, 정치·사회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국내지리와는 내용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81> 1984년 『지리1』 과 『지리2』 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자연지리학 개관	1	0.2	8	1.4	9	1.6
	기후	22	3.9	2	0.4	24	4.3
	지형	92	16.2	2	0.4	94	16.6
	토양	4	0.7	0	0.0	4	0.7
	수문	6	1.1	0	0.0	6	1.1
	자연환경·자원	44	7.8	15	2.7	59	10.5
	합계	169	29.9	27	4.8	196	34.7
인문 지리학	인문지리학 개관	14	2.5	52	9.2	66	11.7
	면적·위치	17	3.0	6	1.1	23	4.1
	인구	21	3.7	2	0.4	23	4.1
	산업·경제	20	3.5	57	10.1	77	13.7
	정치·사회	11	2.0	28	5.0	39	6.9
	도시·촌락	62	11.0	7	1.2	69	12.2
	교통	8	1.4	4	0.7	12	2.1
	문화·역사	12	2.1	16	2.8	28	5.0
	인종·언어	7	1.2	4	0.7	11	2.0
	합계	172	30.4	176	31.2	348	61.8
방법론	지도학	20	3.5		9.9	20	3.5
총계		361	63.8	203	36.2	564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6) 1990년대의 지리교육

(1) 1994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1994년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82>와 같이 국내지리의 내용이 전체의 48.1%, 세계지리의 내용이 51.9%로 국내지리와 세계지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세계지리 내용에서 세계 지역 공통 부분이 22.9%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다.

<표 82> 1994년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국내지리	자국의 국토	292	48.1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139	22.9
	유럽	46	7.6
	아시아	60	9.9
	아프리카	14	2.3
	북아메리카	25	4.1
	남아메리카	9	1.5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22	3.6
	합계	315	51.9
총합계		607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다음으로 1994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3>과 같다. 국내지리에서 자연지리학이 11.8%, 인문지리학이 35%로 인문지리학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지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자연지리학에서는 환경·자원, 지형, 기후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

경제, 도시·촌락, 인구, 문화·역사, 면적·위치순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리에서는 자연지리학이 20.5%, 인문지리학이 30.2%로 인문지리학에 대한 내용이 자연지리학에 비하여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 자연지리학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자연환경·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산업·경제,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의 구성 비율과 비교하면, 자연지리학의 비율은 29.9%에서 11.8%로 줄어든 반면 인문지리학의 비율은 30.4%에서 35.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1994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지리	자연지리학 개관	2	0.3	0	0	2	0.3
	기후	17	2.8	20	3.3	37	6.1
	지형	21	3.5	21	3.5	42	6.9
	토양	0	0	3	0.5	3	0.5
	생물	4	0.7	0	0	6	1.0
	수문	4	0.7	2	0.3	4	0.7
	자연환경·자원	23	3.8	78	12.9	101	16.6
	합계	71	11.8	124	20.5	195	32.1
인문지리	인문지리학 개관	36	5.9	29	4.8	65	10.7
	면적·위치	11	1.8	3	0.5	14	2.3
	인구	18	3.0	6	1.0	24	4.0
	산업·경제	92	15.2	80	13.2	172	28.3
	정치·사회	7	1.2	23	3.8	30	4.9
	도시·촌락	31	5.1	5	0.8	36	5.9
	교통	7	1.2	0	0	7	1.2
	문화·역사	10	1.6	21	3.5	31	5.1
	인종·언어	0	0	17	2.8	17	2.8
	합계	212	35.0	184	30.2	396	65.2
방법론	지도학	9	1.5	7	1.2	16	2.7
총계		292	48.3	315	51.9	607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 7) 2000년대의 지리교육

### (1) 2002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2002년 한국의 지리교과서 분석결과 <표 84>에서와 같이 총 분량은 469페이지며, 국내지리와 세계지리의 분량은 각각 53.1%와 46.9%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2002년 지리교과서의 지역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분량(page)	%
세계지리	세계 지역 공통	64	29.1
	유럽	46	20.9
	아시아	54	24.5
	아프리카	10	4.5
	북아메리카	16	7.3
	남아메리카	16	7.3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	14	6.4
총합계		220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우선 세계지리의 지역별 분량을 살펴보면,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계 지역 공통은 64페이지의 2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4.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유럽 20.9%,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가 동일하게 7.3%의 구성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및 극지방의 경우는 6.4%로 가장 낮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표 84).

2002년 지리교과서 계통지리의 구성 비율을 보면 <표 85>와 같이 자연지리학이 전체의 21.1%이었으며, 인문지리학이 75.1%로 나타나 인문지리학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지리의 경우에는 자연지리학이 24.9%, 인문지리학이 71.1%의 구성 비율을 보였으며, 세계지리의 경우 자연지리학은 16.7%, 인문지리학은 79.6%로 나타나 세계지리에서 자연지리학의

비중이 국내지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후와 지형, 환경 및 자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내지리나 세계지리 모두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지리학에서는 국내지리의 경우 인문지리학의 세부주제를 구분하여 구성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산업·경제로 16.9%이다. 다음으로 도시·촌락과 인구의 순으로 각 7.2%씩으로 나타났다. 세계지리의 경우에는 인문지리학의 세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으며, 구성 비율은 산업·경제가 42.1%, 정치·사회가 22.2%, 문화·역사가 6.5%, 인종·언어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리교과서는 2002년 이후 지리학사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지리학의 방법론과 같은 분류 체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5> 2002년 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학 분량 및 구성 비율

중분류	소분류	국내지리		세계지리		합계	
		분량(page)	%	분량(page)	%	분량(page)	%
자연 지리학	기후	24	9.6	10	4.6	34	7.3
	지형	24	9.6	10	4.6	34	7.3
	토양	0	0	0	0.9	2	0.4
	자연환경·자원	14	5.6	14	6.5	28	6.0
	합계	62	24.9	36	16.7	98	21.1
인문 지리학	면적·위치	12	4.8	4	1.9	16	3.4
	인구	18	7.2	4	1.9	22	4.7
	산업·경제	42	16.9	91	42.1	133	28.6
	정치·사회	0	0	48	22.2	48	10.3
	도시·촌락	18	7.2	3	1.4	21	4.5
	문화·역사	0	0	14	6.5	14	3.0
	인종·언어	0	0	8	3.7	8	1.7
	인문지리학 개관	87	34.9	0	0	87	18.7
합계	177	71.1	172	79.6	349	75.1	
방법론	GIS	10	4.0	8	3.7	18	3.9
총합계		249	100	216	100	465	100

출처: 교과서박물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함.

<표 86> 개화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리학 및 주요 국가 정책

지리학		주요 국가 정책	
연대	주요 사항	연대	주요 사항
		1876	강화도 조약
		1886	육영공원 설립
1889	『사민필지(士民必知)』 발간		
1907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발간		
1908	『최신세계지리(最新世界地理)』		
		1909	조선총독부 『사민필지(士民必知)』 판매, 출판 금지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검정 무효
		1910	한일합방조약
		1931	일제에 의한 조선 병참 기지화
1924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 발간		
1935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 발간		
		1945	조선의 해방
		1946	대학교에 지리학과 신설, 대학교에 지리교육과 신설
1947	『조선지리』와 『먼나라』 발간	1947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신설
1949	『우리 나라 생활 지리부분』과 『경제지리』 발간		
1950	『우리나라지리』 발간	1950	농지 개혁 실시 한국전쟁발발
1953	『우리나라지리』 발간	1953	한국전쟁 휴전
1956	『국토지리』, 『인문지리』 발간		
1960	『인문지리』 발간		
1961	『우리나라지리』 발간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1963	공해방지법 제정
1967	『지리1』, 『지리2』 발간		
		1972	국토종합개발계획 실시
1976	『지리1』, 『지리2』 발간		
		1977	환경보전법 제정
		1980	헌법에 '환경권' 조항 명시, 환경청 발족
1984	『지리1』, 『지리2』 발간		
		1990	환경정책의 분화
1994	『한국지리』, 『세계지리』 발간		
		2000	환경부 관장 법률 46개까지 확대
2002	『한국지리』, 『세계지리』 발간		

출처: 본 연구의 4장 내용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 4. 소결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1886년 관립학교인 육영공원의 설립에서 시작된다. 이 학교에서는 세계사, 지리, 수학, 영어 등의 신학문을 가르쳤고 1889년에 최초의 한글지리교과서인 『사민필지』를 발간한다. 이 시기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전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였다. 사민필지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기타 종교, 경제, 군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교과서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또한 외세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교과서도 등장하게 된다. 1907년 장지연이 쓴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는 당시 일본에서 주관하여 발행한 지도의 일본해(日本海)를 조선해(朝鮮海)라 고쳐서 발행할 만큼 자주성을 잘 나타내는 교과서로 꼽힌다. 그러나 1909년에 내용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검정 무효를 당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두 개의 지리교과서가 존재한다. 하나는 독립운동가 윤화수에 의해 집필되고 1924년에 발행된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 도요가와(豊川善曄)에 의해 집필되고 1935년에 발행된 『조선향토지리(朝鮮鄉土地理)』이다. 같은 지리교과서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다. 『최신조선지리』는 근대지식을 계몽하고 독립을 위한 민족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향토지리』는 조선을 ‘향토’라는 마을 개념으로 한정하여 일본의 하나의 작은 마을에 불과한 곳으로 명명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출발을 하는 데 지리교과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출판된 지리교과서의 내용은 우리국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정

보를 담고 있다. 전국을 각 도별로 나누고 각 도의 세부적인 지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된다. 또한 이때에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고 여러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먼나라』라는 세계지리교과서도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1949년에 경제지리 과목을 개설하여 당시의 중요한 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50년대의 지리교과서 내용에서는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의 귀국 등에 의해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촌락 부분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과거의 지주봉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산업·경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1960년대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시기로 산업·경제 부분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농업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 부분이 공업, 산업, 공업 단지 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1970년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시되고 지방 권역별 발전을 꾀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국토 각 권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도시·촌락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 등을 강조하면서 관련 항목이 등장한다.

1980년대는 경제적 안정기를 맞이하고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해 기후와 지형 등 인간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990년대는 198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지리교과서는 근대 지리학이 발달한 서양 지리학의 지리연구 방법론인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 등을 기반으로 지리교과서가 구성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V. 결론

지리학은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는 장소에 관한 학문이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모하는 장소는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 담기기도 한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장소 혹은 공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리교육은 지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세계화, 지역화에 필요한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학문 분야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지리교육은 매우 유용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지리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방법론을 설정했다. 지리교육의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고자 지리학사의 맥락에 바탕을 두고, 지리학자별, 국가별,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별로 지리교육의 내용을 고찰했다. 학자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연구방법론이 있고 그것은 지리교육에서 다각적인 분석방법론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헌연구 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과서 내용 분석의 기준으로 크게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방법론 등의 3가지로 분류했다.

이어서 이러한 지리교육 분석방법론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하히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지리교육에서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연구대상 8개국은 근대지리학이 형성된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을 먼저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량혁명을 주도한 미국,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 개방정책으로 변화된 중국,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8개국별 지리교과서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8개국별 지리교과

서의 구성 내용을 지역지리학, 계통지리학 및 방법론으로, 지역지리학은 다시 자국의 지리학과 자국 외 지역을 세계 대륙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계통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나눈 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지리교과서 구성 비율을 각 국가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리교육의 특징을 파악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가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분석 내용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각 국가는 국가의 위치나 역사적 배경,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 혹은 사회변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배경과 원인이 작용하여 현재의 지리교과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각 국가 지리교과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리교육을 보다 자세히 분석했다. 한국의 지리교육은 한국이 겪어 온 역사적 사실과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따라 지리교과서의 전개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조선시대의 지리학은 국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식민시대를 겪으면서 지리학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목이므로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여행지도서나 자원 수탈의 도구로 전락했다. 해방을 맞아 지리학은 새롭게 국토관을 정립하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과목으로 등장했다. 성공적인 산업화로 인해 경제력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리교과서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지리교과서는 서구의 지리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지리교육은 국토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데 유효한 분야로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계 8개국 지리교육 내용을 분석·연구한 결과 지리교육의 실체를 제공하는 현재의 지리학은 국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학문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이라는 점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지리교과서는 국가 정책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8개국 지리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 지리교육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국가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지리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국한하여 지리교육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따라서 향후에 다른 국가들에도 이러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교육은 지리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혹은 지리학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각 국가 간 지리교육의 상이점이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면 각 국가의 지리학 발전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의 지리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대륙별 지리학의 발전 과정 및 지리교육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 지리학의 전개 과정 및 지리 교육의 변천 과정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가 간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선주 외, 2012, 유럽 주요국의 교과서 지도 비교 및 정책 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강만길 외, 1994, 민족운동 외면한 수정주의 사관 : 「한국사 13, 14」, 한길사.
- 강순돌, 2007, “일제강점기의 조선지 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순돌, 2009, “『백두산행기』에 나타난 윤화수의 장소인식과 지리지식의 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1): 99-114.
- 강창숙, 2012, “중국의 지리교육과정 변천과 지리과정표준의 구성체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17-231.
- 강혜자, 2009, “기후변화레짐 수용의 국가간 비교연구 : 독일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9권: 193-212.
- 고미나, 2010, “영국 국가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개발교육 내용 분석 : DC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환, 2013,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기반한 영국의 중등 지리 과정 프로젝트 연구 : OCR Pilot GCSE 지리 평가요강과 YP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애란, 2002, “남·북한 세계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토교육협의회, 2009, 우리국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개발, 국토교통부.
- 권미영·조철기, 2012, “한·영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분석 : 인구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33-44.

- 권영섭 · 김선희 · 하수정 · 정우성 · 한지우, 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권용석, 2012, “독일의 ‘30ha’ 도시관리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국토, 37: 64-69.
- 권용우, 1985, “근대인문지리학의 형성과정,” 인문과학연구, 5,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9-139.
- , 1986, “독일 지리학의 전개과정,” 지리학연구, 11: 1-23.
- 권용우 · 박지희, 1997, “안산시 도시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1(1): 89-104.
- 권용우 · 유환중, 1997,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환경과 주민운동,” 사회과학연구, 15(2): 167-216.
-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아카데미.
- 권용우 · 유환중, 2005, “한국의 도시체계변화와 도시 관리 방향,” 국토지리학회지, 39(1): 149-159.
- 권용우 외, 2006, 경기 지오그래피(GyeongGi Geography), 국토지리학회.
- 외, 2009, 도시의 이해, 박영사, 제3판.
- 권용우 · 손정렬 · 황철수 · 이재준 · 변병설 · 이자원 · 이승철 · 남선애, 2010, “국토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6): 721-734.
- 권용우 외, 2010, 한국지리지 발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 권용우 · 손정렬 · 안영진 · 이강원 · 이현주 · 이호상, 2012, “한국지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 8개국 지리지에 대한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7(1): 121-139.
- 권용우 · 유근배 · 김세용 · 박지희, 2012, 수원 도시환경지리지: 살기 좋은 수원 바로알기, 수원시.
- 권용우 · 손정렬 · 이재준 · 김세용 외, 2012, 도시의 이해 4판, 박영사.

- 권용우 · 박양호 · 유근배 외, 2014, 우리국토 좋은국토, 사회평론.
- 권용우 · 김세용 · 박지희 외, 2016, 도시의 이해 5판, 박영사.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아카데미.
- 권정화, 2012, “영국과 프랑스의 지리교육 비교연구”, 사회과학교육연구, 14: 181-195.
- 김기혁, 2016, “한국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1(5): 713-737.
- 김덕현, 2008, “이탈리아 초등학교의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 · 박창석, 2012, 영국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CCRA 2012)와 정책적 의미, 환경포럼, 16(7), 서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김미경, 2010, “세계화시대 역사교육이 대안적 패러다임 탐색 : 유럽 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성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3,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0, “세계지리교과서의 탈식민주의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28(3), 한국교육과정학회: 167-191.
- 김영훈, 2010, “개화기 속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5-30.
- 김인중, 2009, “공화주의, 자유주의, 1848혁명,” 프랑스사연구, 제21호, 한국프랑스사학회: 77-96.
- 김재완, 2000, “1920~1930년대 독일 지리학의 연구동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69-89.

- 김재완, 2001,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대한 小考,” 문화역사지리, 13(2): 199-209.
- 김점수, 2009,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과 외국의 정책,” 강원광장, 86: 92-97.
- 김정후, 2008,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국토, 320: 108-119.
- 김주진, 2007,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환경사회학연구, 11(1): 7-42.
- 김창환, 2001, “독일의 사회과 교육,” 사회과교육학연구, (40): 58-88.
- 김현주, 1995, “남북한 중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옥, 2006, “한·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삽화 분석 :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주연, 2004, “한국과 영국의 7학년 사회(지리) 교과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정, 2008,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 지리교과서 다시 읽기 : 미국 세계 지리교과서 속의 '한국,’” 대한지리학회지, 43(1): 154-169.
-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2014, (유엔기후변화협약)제20차 당사국 총회 참가결과 자료집(COP 20),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 류재명, 2001, “미국 중등학교의 지리교육과정과 수업활동에 관한 연구-미네소타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9(2): 27-48.
- 류제현,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달,” 지리학논총, 14: 345-358.
- 문남철, 2005, “프랑스 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연구경향,” 지리학연구, 39(4): 433-446.

- 문진영·이성희, 2013, UN 기후변화협약 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재원 논의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3(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문홍, 2012, “프랑스 제3공화정 당시의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담론 201, 15(4): 73-107.
- 박경환 외, 2015, 지리사상사, 시그마프레스.
- 박민정, 2009, “한·미·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아시아관련 지리내용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삼옥, 2005,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40(6): 770-788.
- 박석순, 2003, 만화로 보는 박교수의 환경 재난 이야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선미, 2004, “지리교육 목표와 내용의 국제 비교,” 교육문화연구, 10: 209-233.
- 박영신, 2004, “남북한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및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희, 1990, “안산시 기능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태화, 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61-169.
- 박홍갑, 2005, “청도 사찬읍지 『鰲山志』 (1673)의 編目과 특징,” 중앙사론, 21: 192-224.
- 배수연, 2009, “중국교과서의 구성체제와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원, 1999,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의 재검토 1,” 동국역사교육, 7·8: 213-238.
- 서인원, 1999,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의 재검토 2,” 동국역사교육, 9: 101-138.

-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지리학논총, 22: 80-91.
- 성수호·오영민, 2010, 코펜하겐의 희망 칸쿤으로 이어지나? : 제16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자총회 참가, 보도자료, 환경부.
- 손명철, 1995, “프랑스 지역지리연구의 전개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81-91.
- 심광택, 2012, “시민성 교육 관점에서 한국·중국·일본·호주의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교과서 살펴보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 53-68.
- 심문숙, 2012,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교육 내용 국가별 비교 연구 :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승희·권정화, 2013, “영국의 2014 개정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시사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7-31.
- 안영진 역, 2013, 지리학: 역사·본질·방법, 아카넷, 알프레드 헤트너 저.
-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 인식 체계,” 한국사 시민강좌 14, 일조각.
- , 2002, “전통지리학 : 연구와 전망,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17-57.
- 양용석, 2010, “해외의 기후변화 정책통합 현황 및 시사점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기후변화뉴스레터, 8(2), 기상청: 11-14.
- 양원택, 1996,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 국제이해교육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75-92.
- 오만석·신효숙, 2004, “현대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정책,” 비교교육연구, 14(1): 185-209.
- 오상학, 2007,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 다산학, 10: 105-131.
- , 2013, “조선후기 세계 지리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 규장각, 43: 245-275.

- 오세열, 2014, “국토와 경영,” 권용우 외, 우리국토 좋은국토, 사회평론: 413-436.
- , 2016, “도시와 경영,” 권용우 외, 도시의 이해, 5판, 박영사: 333-369.
- , 2016, “도시와 경영,” 도시문제, 51(573): 32-35.
- 오승렬, 2001,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1-31: 1-100.
- 옥한석·정택동, 2013, “풍수지리지의 현대적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8(6): 967-977.
- 유환중, 1998, “공간구조변화에 따른 수도권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2(2): 105-118.
- , 2006, “서울시 탈공업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토지이용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0(2): 269-281.
- , 2009, “초 광역권개발의 추진과 세계도시 발전전략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4(1): 42-64.
- 유환중 외 역, 2011, 도시연구 :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 유환중, 2013, “수도권과 세계 도시,” 도시문제, 537, 행정공제회: 27-31.
- 윤유숙, 2012, “국가정책으로서의 일본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변천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윤경, 2008, “한·일 지리교과서 비교·분석 : 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욱, “2002,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영역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 연구 -지역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홍경, 2013, “한국과 독일의 지리교과서 내용분석 : 중학교 수준의 자연지리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외교부 증유럽과, 2014, 독일 개황 2014, 외교부.
- 이간용, 2011, “미국 초등 지리 교육의 실천적 특성 고찰-캘리포니아 주의 두 초등학교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33-48.
- 이나리경, 2008, “한국과 호주의 중학교 지리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비교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영·조철기, 2005, “일본에서의 지리교육과정론을 둘러싼 논쟁과 그 함의,” 중등교육연구, 53(3): 297-321.
- 이상균, 2010, “프랑스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 지리탐구논리와 공화국의 시민의식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권정화, 2010, “프랑스 지리교육사 150년의 전통과 최근 동향, 그리고 전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85-204.
- 이상균·정프랑수아 떼민느, 2014, “최근 프랑스 지리 교육과정 개정 동향과 지리과 핵심역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45-56.
- 이상선, 1995,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철, 2010,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 특징과 시사점,” 환경정책연구, 9(4): 77-102.
- 이영민·노주연, 2005, “사회과 지리교육의 환경교육 내용 분석 : 한국과 영국의 7학년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과교육학연구, 9(2): 261-276.
- 이원호, 2012, “한국지리지 발간기준 및 발전방안 모색,”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61-262.
- , 2013, “교육환경과 주택가격 간 관계와 사회공간적 격차에 대한 함의 -서울시의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86-98.
- , 2014, “도시와 경제,” 권용우 외, 우리국토 좋은국토, 사회평론: 229-250.

- 이정필 · 조보영, 2010,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의 쟁점과 전망 II, ENERZINE FOCUS 4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이지선, 201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우, 2006,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우, 2009,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의 쟁점과 전망 II, ENERZINE FOCUS 4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이하나, 2011, “한·영·일 중등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1997, “비달의 지리적 사상과 지역연구 : 프랑스 인문지리학의 구축,” 국토, 185: 62-67.
- 이희연 · 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임덕순, 1999, “정약용 지리사상의 탐색,” 국토, 209: 82-88.
- 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엮음, 1996, 자연지리학 사전, 한울아카데미.
- 장영진, 2004, “한국, 영국, 미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지리과 기능영역의 내용 구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61-82.
- 장의선, 2006, “‘전통지리’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 사회과교육, 45(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97-119.
- 장재연, 1990, 스모그로 소문난 「공해의 도시」 런던, LA, 서울,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5(5): 54-59.
- 전임경, 2002,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중환 · 서민철 · 장의선 · 박승규, 2008,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 정민, 1995,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춘, 2009,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성호, 2001,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 사회과학연구 19:  
113-123.
- 정영근, 1997,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지향하는 독일의 교육,”  
구자역 외, 동서양주요 국가들의 교육, 문음사, pp. 271-340.
- 조철기, 2008,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  
석,” 대한지리학회지, 43(4): 655-679.
- 조철기, 2011,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 한국지리환  
경교육학회지, 19(1): 49-65.
- 조철기·이하나,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  
국지역지리학회지, 17(3): 332-347.
- 주봉규, 2001,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 :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토지연구, 12(1):  
108-120.
- 최운식 편역, 2002,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연구사. Vidal de la Blache,  
Emmanuel de Martonne 엮음.
- 최운식·윤재욱, 2002,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지리교과에서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한국교과교육학회연구, 6(2): 5-21.
- 최정미, 2004,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10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리내용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영, 2011,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  
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343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진석, 2015, “러시아교육제도 및 교과서 제도,” 교과서 연구, 79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한범수, 1998, “상업고등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대만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석용, 2005, “산업혁명의 성립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 한승준, 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홍창표, 2001, “한국·프랑스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 1차 산업과 생활공간 단원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환경보건정책과, 2005, 일본의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조사 결과보고, 환경부
- 환경부, 2006, 유럽연합과 유럽 주요국의 환경정책 비교연구 : 환경부 용역 보고서, 한국유럽학회.
- 환경부, 2010,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보도자료, 환경부.
- 황재기,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지리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지리학 22(1): 15-20.
- 황지호 외, 2016, 미래사회 대응 기술 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보고 2016-0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梁源澤, 1997, “韓·中·日 世界地理 教科書 內容 分析 研究 : 國際理解教育을 中心으로,” 全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張保雄, 1970, “開化期の 地理教育,” 地理學, 5(1): 41-58.
- KIEP 북경사무소, 2009,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城市群)전략,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09-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북경사무소, 2013, 중국 도시화 질적 수준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향후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북경사무소, 2014, 「전국 자원형도시 지속가능 발전규획」의 주요내용,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gnew. J. A and Duncan. J. S., 1989, *The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s*, Unwin Hyman, Boston.
- Allen. J., Massey, D. and Cochrane, A., 1998, *Rethinking the region*, Routledge, London.
- Buttimer, 1978, *Charism and context: the challenge of La geographie humaine*, in Ley, D. and Samuels, M.W.(eds.),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Maaroufa Press, 58-78.
- Casey, E. S., Chaston, I., Dimendberg, E., Gorton, M., Gulick, J., Hillier, J., ... & Stevenson, J., 1997, *Philosophy and Geography II: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ooke. P.(ed.), 1989,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Local Britain*. Unwin Hyman, London.
- Dickinson, R. E., 2014,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RLE Social &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 Duncan, S. S. and Savage, M., 1989, "Space, scale and locality," *Antipode*, 22, 67-72.
- Eckart, Karl (eds.), 2001, *Deutschland, Gotha*, Klett-Perthes.

- Entrikin. J. Nicholas,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Policy Press, Cambridge.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28.
- Gregson, N., 1987, "Structuration theory: some thoughts on the possibilities for empirical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Place*, 5, 73–91.
- Hart. J. F., 1982,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2(1): 1–29.
- Johnston, R. J., 1985, *The world is our oyster*, in King, R.(ed.), *Geographical Futures*.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Sheffield.
- Johnston, R. J., 1991,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its place,"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6: 131–147.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Macmillan, London.
- Paterson. J. H., 1974, *Writing regional geography*, in Board, C. et al.(eds.), *Progress in Geography*, 6, Edward Arnold, London.
- Philippe Pinchemel, 2009, *France A Geographical, Social and Economic Surve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d, A., 1986, *Place, Practice and Structural*, Barnes and Noble, Towota, New Jersey.
- Pudup, M. 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369-390.
- Sayer, A., 1985, *The difference that spaæ makes*, in Gregory, D. and Urry, J.(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49-66.
- Sayer, A., 1989,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problems of narra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7: 253-276.
- Sayer, A .,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2nd edition*, Hutchinson, London.
- Thrift. N.,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23-57.
- Tuan, Yi-Fu, 1982, *Segmented Worlds and Self*, Minneapolis: Minnesota Press.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nl/index.jsp>)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지리대학 홈페이지

(<http://www.msu.ru/en/resources/msu-ws1.html#geogr>)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ten-info.com/Sub\\_Modules/tei/dealTrendview.asp?pg=2  
&dir=3&loc=02&kd=&ca=&ar=&ty=&su=&od=&col=&sw=&  
num=4678](http://ten-info.com/Sub_Modules/tei/dealTrendview.asp?pg=2&dir=3&loc=02&kd=&ca=&ar=&ty=&su=&od=&col=&sw=&num=4678))

안유슬, 2015, 환경대국 독일의 환경정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energium/220353562166>).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countries/index.jsp?menu=m\\_40](http://www.mofa.go.kr/countries/index.jsp?menu=m_40))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  
L43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  
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43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해외환경통합정보 사이트

(<https://www.eishub.or.kr/main.asp>)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home/web/main.do>)

##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Geography Education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Focusing on 8 Countries of Germany, France, U.K., U.S.,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Nam, Seonae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Geography is the study of spatial structures and mutual relationship caused by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nature. Geography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academic field in the era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which presents a fundamental solution to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environmental problems based on in-depth and transcendental study on various social phenomenon. Geography education is to learn the geographical structure of a nation or of the world based on basic concept, principle, reasoning and research method of geography, leading people to equip with comprehensive and logical way thinking.

In Korea, geography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Joseon Dynasty until today, serving as an academic field tha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nature factors and local community in a comprehensive way.

In this study, comparison and analysis on geography education among in Germany where the modern geography was established, France, U.S., and Russia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regional studies and social issues with the early development of geography, and China and Japan from Asian countries are conducted. In the case of Korea, the changes in geography educ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until today are analyzed.

First, common featur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geography education in each country are analyz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geography textbooks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of an a high school.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method for classifying geography of each geographer based on the review of geography history. What those 8 countries had in common in their geography education is that industry and economy parts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in education as those two areas are the basis for economic power. The difference notified was based on each country's policy focus that is reflected and incorporated in education. Natural environment or natural landscape are not the subject that can be managed by a country alone. Therefore, those subjects were found to be similar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neighboring countries or around the world. Germany emphasizes climate area accounting for the largest share in geography education. France deals with politics and

society areas most significantly. U.K. emphasizes natural environment, in particular disaster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s and counter measures. U.S. puts a particular emphasis on cultural and historical areas while Russia allocates a significant portion of education to population. China deals with industry and economy areas, which are the common focus of all countries, significantly making the portion of those areas upto 40%. Geography education in Japan is unique in terms of explaining the world or each region according to the subject of human geography.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is classified into 4 period with 10-year term each, such as the Joseon Dynasty of the pre-modern education period, the beginning period of modern educatio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period after the independence. The position of geography can be confirmed by looking at the contents of geography books of 8 provinces edited by government and by individuals in the Joseon period. For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 contents of <What Everybody Must Know about Geography>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1889 present the world view at that time. Geography education textboo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sm was degraded to be used as a guidebook for Japanese for the purpose of exploiting underground resources and travel. However, after the independence, it is confirmed that the geography textbook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 view of state and education contents were changed based on the changes in national policy. Since 2000, geography education of Korea has been transformed based on the

western geographical studies, and contributed to promugate the nation's land policies.

To conclude, the analysis on geography education in 8 countries shows that geography contributes to regional research and analysis on social chang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geograph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to deal with social changes.